



2

199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2. 2호

(루계 532)



차 례

문학은 인간학이다	4
나의 어머니	10
2월의 아침에	11
평양의 밤	12
새벽 산보	18
생명수	24
향도의 태양	25
김정일 그이는 영원한 북극성	29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이 누리는 최대의 영예와 특전	30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의 운명	35
내 그립던 정일봉 기슭에서	36
고향집 귀틀목에 한손을 얹고	38
명제해설	39
4. 15 문학창작단 창립	40
고향길	42
소백수의 물소리	49
작가적성장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50
위대한 사랑의 해발	53
내 나라의 2월은 축원의 꽃계절	57
운명의 품	58
나에게 어머니만 있으면	62

기다려 잠들지 못하는 밤.....	63
인식의 한계를 두고	64
백두산고향집앞에서	66
우리 집	67
이날의 영광 있어.....	68
사랑합니다!.....	69
사랑속에 만발하는 꽃송이	70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높이 모신 단편소설에서의 생활탐구	73
만병초.....	80
젖줄기	83
어서 창문을 열자.....	94
나의 조국이여!	95

김정일

문학은 인간학이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 중에서-

문학예술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다.

의식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서 필수적인 물질적조건으로 되지만 사람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만으로는 만족할수 없다.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구속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살게 될수록 그들의 생활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우리는 문학과 예술이 없는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사회는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이며 지덕체를 갖춘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들이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되여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이다. 이 위대한 사회건설에서 작가, 예술인들은 그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으며 그들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크다.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먼저 문학예술의 고유한 본성을 옹게 인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요구에 맞는 참다운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의 본성과 시대의 요구를 옹바르고 깊이있게 인식하는것은 새형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창작하는 출발점으로, 훌륭한 창작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 매우 큰 작용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로자들을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무게있고 깊이있는 작품이 많지 못하다.

우리의 작가들이 쓴 작품들가운데는 새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생활세계를 그려내어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는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생동한 생활이 없고 산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작품들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창작가들의 재능과 관련되는것이 아니라 문학예술을 어떻게 리해하고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창작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와 관련되는것이다.

문학은 인간학이다.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한다는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이 있다. 문학이 인간을 그린다는것은 현실에서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하는 산 인간과 그의 생활을 그린다는것을 말하며 문학이 인간에게 복무한다는것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통하여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준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은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게 그려야 가치있는 인간문제를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다.

사실 지난 시기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인간학이라고 말해왔지만 그 인간학의 근본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똑바로 밝히지 못하고 다만 문학은 사회적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을 그려야 하며 형상의 중심

에 인간을 세워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을뿐이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서 정당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완벽한 해명을 주었으며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근본문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옳바르게 풀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문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야만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시대의 인간문제를 진정한 인간학의 경지에서 옳바르게 밝혀낼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문학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운다는것은 자기의 정치적자주성을 지키며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밝힌다는것을 말하며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창조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 인간들의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남에게 매이거나 남의 힘을 빌지 않고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가진 새형의 인간들의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은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주체가 선 인간형상을 창조하여야만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변혁해나가는데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문학이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면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를 내세우지 않고 신변잡사에 매달리면 사람들에게 경험과 교훈이 될수 있는 인간문제를 내놓을수 없다.

어떤 작가들은 작품에서 인간학의 문제로 될수 없는것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의 우리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투쟁을 반영하는 작품들에서 인간문제대신에 생산기술적문제를 내세우는것도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그전에 애국렬사유가족들의 생활을 담은 어느 한 작품에서 유가족들이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여야 하겠는가 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 대신에 생산문제를 들고나왔기때문에 우리는 그때에도 문학이란 인간학인데 인간문제를 내세우지 않고 생산문제를 제기할바에야 무엇때문에 유가족들을 등장시켜 작품을 쓰겠는가고 말해주었다. 유가족들의 생활에 대한 작품을 쓴다면 응당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하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야 할것이다.

문학작품에서는 언제나 인간문제를 다루면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풀어야 한다. 말하자면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지키고 빛내어나가야 하는가를 기본으로 내세우고 풀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자주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근본요구이다.

사람들이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생활을 개척하고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기 위한것이다. 우리의 근로자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벌리고있는 투쟁도 다 자기의 정치생활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과 련결되어있다. 근로자들의 노동생활만 놓고보더라도 그것은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생산활동일뿐아니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며 동시에 자신을 혁명화하는 과정이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자들은 언제나 혁명을 한다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며 일하며 투쟁하고있는것이다.

사람들의 생활이 이러한것만큼 작가들은 인간문제를 다루면서 마땅히 사람들의 정치적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내세우고 깊이있게 풀어야 한다. 그래야 작품에서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할수 있으며 순간을 살아도 영생할수있는 참다운 삶의 길, 투쟁의 길을 가르쳐줄수 있다.

일부 작품들에서 인간문제보다 생산문제를 앞에 내세우고 인간을 형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보다 생산공정을 보여주는데 치우는것은 작가들이 문학의 본성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인간문제와 생산문제의 호상관계를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옹계 풀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작가들은 생산활동을 그리는데서도 어디까지나 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 노동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문화도덕적 관계를 밝히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생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위한 일이므로 문학에서는 마땅히 생산의 주인인 사람들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생산과정에서 나서는 인간문제를 푸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만 아니라 그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우리 시대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풀어야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문학이 내세우는 인간문제는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전형적인 인간형상을 통하여서만 옹게 밝혀질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의 전형을 내세우는가에 따라 작품이 제기하는 인간문제의 가치와 의의가 좌우된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문학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인 간을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력사의 창조자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도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열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그 어떤 문학도 인민대중의 형상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생활과 력사에 대하여 진실하게 말할수 없으며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할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그리면서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성격을 깊이있게 밝혀내야 한다.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이 주체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그리는 방법이다.

문학은 산 인간을 그려야 한다.

산 인간을 그려내지 못한 문학은 참다운 인간학이 아니다.

문학에 산 인간이 없으면 형상이 있을수 없으며 형상이 없으면 문학의 고유한 본성도 살려내지 못하게 된다. 같은 인간을 다루면서도 인간과 그의 사회적관계를 추상화된 개념으로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생활에서와 같은 생동한 형상으로 그려내는데 문학이 다른 사회과학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다.

문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그려야 한다. 인간은 사상과 감정에서,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문학에 그려지는 인간은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구체적이며 생동한 인간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문학에서 혁명가를 그리면서 그의 정치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만 보여주고 구체적인 생활정황에서 나타나는 풍부한 정신세계를 그려내지 못한다면 그 인간형상은 얼마나 메마르게 되겠는가. 물론 혁명가에게 있어서 확고한 신념과 강의한 의지는 고상한 품모를 이루는것이지만 혁명가의 정신도덕적품모를 일면적으로 그려서는 안된다. 혁명가의 강의한 신념과 의지를 진실로 감명깊게 보여주려면 그러한 혁명정신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가 하는것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혁명가들의 정치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만 아니라 그들의 리상과 포부,구체적인 심리와 감정까지도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게 그려야 현실에서와 같이 생동한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수 있다.

문학에서 산 인간을 보여주자면 생활하는 과정에 드러나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인간의 사상감정은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이루어지고 표현된다. 구체적인 생활을 떠나서 인간의 사상감정에 대하여 말한다는것은 벌써 인간을 추상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기 한 영화문학에서는 적구에 떨어진 인민군비행사의 용감한 투쟁을 보여주면서 그는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는 혁명적지조를 지켜 굴함없이 싸웠다, 그는 끝내 탈출에 성공하여 부대로 돌아왔다는 식으로 행동의 결과만 따라가면서 보여주었을뿐 그가 적구에 떨어지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였으며 적들의 갖은 고문과 회유책동에 맞서 어떻게 혁명적지조를 지켜 싸웠으며 탈출하여 부대로 돌아오는 과정에는 어떻게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여 그 어려운 고비를 끝끝내 넘어서게 되었는가 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모두 스쳐버림으로써 인간을 추상적으로 메마르게 그려놓은 일이 있었다.

문학에서 웅당 깊이있고 생동하게 그려야 할 인간의 사상감정세계를 스쳐버리면 자연히 형상을 놓치게 되며 작품에는 생경한 론리만 남게 된다.

문학에서는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리는것과 함께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그려야 한다. 문학에서 산 인간을 그린다고 하여도 현실에 있는 인간을 단순히 그대로 옮겨놓을수는 없는것이다. 현실에 있는 인간을 그대로 옮겨놓아서는 그 어떤 의의있는 문제와 사상도 감동깊게 밝혀낼수 없으며 도대체 인상깊은 인간형상을 창조할수 없다.

문학에 그려지는 인간형상은 개성적일수록 생동해진다. 세상에 똑같은 인간이란 없다. 사람들은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사상감정과 그 표현도 달라서 개성적인것이다. 문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개성을 뚜렷하게 살려야 한다. 개성적인 성격을 통하여 새롭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독창적으로 밝혀내는데 진정한 창조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제목이 다른 작품들에서 비슷비슷한 인물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서로 다른 작가들이 각이한 인간과 생활을 취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일정한 류형의 관박이인물들이 그려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작가들이 사람을 산 개성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틀에 맞추어 그리는데 있다.

개성적인 산 인간의 형상이 없는 작품을 볼 때처럼 따분한 경우는 없다. 그런 작품은 산 인간의 모습과 그의 생활을 감명깊게 보여주지 못하므로 정치론설이나 신문기사를 보는것보다 못하다.

문학에서는 생활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그에 체현하고있는 생활을 말한다. 오늘 우리 인민의 전형적인 생활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려는 그들의 보람찬 투쟁속에 있다. 혁명적인 생활이야말로 력사발전의 기본흐름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생활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생활을 풍부하게, 깊이있게 그려야 작품에서는 인간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고 시대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도 옳게 보여줄수 있다.

일부 작가들은 항일유격대나 인민군대의 생활을 그리면서 그들의 군사활동을 보여주는데만 치우치고 있는가 하면 또 로동자, 농민의 생활을 그리면서 그들의 생산활동을 보여주는데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생활을 그리는것은 실생활정형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문학에서 생활을 그리는 목적에도 어긋나는것이다.

원래 혁명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다양하고 풍부하다. 혁명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군사활동이나 생산활동만 하는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생활도 있고 문화생활도 있으며 가정생활도 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사람들의 전투행동이나 생산활동 일면만 그릴것이 아니라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그려야 하며 전투행동이나 생산활동을 그리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내야 한다.

물론 생활을 다양하게 그린다고 하여 이런 생활도 있고 저런 생활도 있다는 식으로 그저 늘어놓아서는 안된다. 작품에서는 어디까지나 생활을 다양하게 그리면서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서 깊이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부상병들을 데리고 후방병원으로 가는 과정의 생활을 깊이있게 잘 그렸다. 그 과정에는 전투대오에서 떨어져 후방병원으로 가는 부상병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보여주는 생활도 있고 당원들이 회의를 열고 자기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총화하며 어린 간호원 처녀를 도울것을 결의하는 생활도 있고 혁명전우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수혈해주는 주인공처녀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보여주는 생활도 있고 군민일치의 미풍을 보여주는 생활도 있다. 이렇게 후송과정의 생활을 다양하게 그리고있기때문에 비록 부상병을 후송하는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것이다. 이처럼 문학예술작품에서는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는 생활의 단면들을 여러모로 파고들어가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문학에서 인간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려면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려야 한다.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여나가는 구체적인 생활정형의 단면들을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릴

때라야 작품에는 감명깊은 인간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생활을 제시하는것만으로는 아직 산 인간을 구체적으로 보여줄수 없으며 생활자체도 생동하게 그려 내지 못한다. 작가가 그 어떤 정치적인것, 큰것만 그리려고 하면서 거대한 사회력사적사건들을 그저 라렬하거나 거창한 생산투쟁을 보여주는데 매달리면 생활을 본색 그대로 그려낼수 없다. 생활을 세부화하지 않고 통채로 라렬하며 인간중심이 아니라 사건본위로 생활을 그리며 생활의 결과만 제시하는것은 형상의 요구로부터 멀리 벗어나는것이다.

작가들은 하나의 세부라도 소홀히 하거나 조잡하게 그리면 작품의 전반적형상에 큰 손상을 주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고 인물들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낼수 있고 성격을 뚜렷하게 특징지을수 있는 생활세부들을 골라잡고 섬세하게 그려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생활을 잘 그리는것은 결국 인물들의 성격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어떤 생활을 그리든지 인물들의 성격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치렬한 전투정황이나 복잡한 생산정형을 그리는 경우에도 화면에서는 대포소리나 기계소리보다도 사람의 목소리가 더 힘있게 울려나와야 한다.

문학은 어떤 시기의 어떤 생활을 반영하든지 반드시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산 경험과 교훈을 줄수 있게 되여야 하며 거기서 사람들이 신심과 용기를 얻고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되여야 한다.

우리의 문학은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 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사회가 인류의 가장 높은 사회적리상이라면 주체형의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리상을 체현하고있는 인간의 본보기이다. 이러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여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이바지하여야 할 우리의 인간학은 자기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바쳐 싸우는 참다운 애국자, 참다운 혁명적 작가, 예술인들만이 창조할수 있다.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작가는 진실로 인민을 위한 작품을 쓸수 없으며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 예술인은 결코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조할수 없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인민을 위한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작가, 예술인으로 더 잘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혁명적 단련과 수양에 적극 힘써야 할것이다.

나의 어머니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나를 품어 키우신 나의 어머니

만가지 소원을 헤아려보시며

조선의 고운 꿈 꽃피워주셨네

비와도 눈와도 먼길 떠나도

손잡아 이끄신 나의 어머니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길러준 그 품을 내 어이 잊으랴

기쁘나 힘드나 부르고싶은

정답고 미더운 나의 어머니

그 은혜 못잊어 세월의 끝까지

수령님 받들어 한길을 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뜨거운 그 사랑 내 크며 알았네

2 월의 아침에

신진순

하늘높은 백두산정에 새별이 솟아

이 땅에 영원한 행복의 빛을 뿌린

2월 16일

민족의 미래 한품에 안으시고 탄생하신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계시여

조국은 영원한 청춘기를 맞이했노라

쌓으신 위업은

하늘에 닿고

펼쳐주시는 민족의 존엄은

온 누리를 진감하노라

돌러보아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대기념비들

인민의 행복 넘친 밝은 모습

삶의 향기 차고넘친 내 나라

우리의 지도자동지 계시여

주체조선의 오늘과 래일이 있어라

친애하는 그이 계시여

지구우에서

그 어떤 진눈까비 휘몰아쳐도

주체조선의 위업 만방이 우러르고

조국은 무비의 영광 펼치며

사회주의 한길로만 나아가나니

축하를 드리노라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만민이 우러르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받들어모시는 영광으로

가슴불태우며

민족이 축복받은 영광의 날

2월 16일 이 아침에

심장을 불태워

충성의 맹세 다지노라!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손잡아이끄시는 영광의 길에

물불을 가리오리까!

생사를 가리오리까!

목숨으로 받들어

오직 달리오리다!

한생을 달리오리다!

그 맹세 그 진정을 담아

삼가 이 아침 축원의 인사드리웁니다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부디 만년 젊어계시라!

평양의 밤

정창윤

어제도 오늘도 하늘에서는 불별이 내려찍었다. 울어름 더위는 기록적이다. 한낮의 기온이 최정점에 오를 때면 그늘 밑에 앉아있기조차 힘들었다. 숨쉴 때마다 덥고 메마른 공기가 입안으로 흘러들었다.

밤에도 더위는 물러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바람을 기다리고 비를 기다렸다. 하지만 밤에도 바람한점 없었다. 그래서 낮동안 가열된 대기는 이 밤도 식을줄 몰랐다. 지금은 사람들의 왕래도 끊긴 늦은 시각이다. 공원의 풀잎들, 거리의 가로수들, 녹지의 잔디들조차 제빛갈, 제모양을 잃은채 후줄근해졌다. 높은층, 낮은층, 어데라없이 집집의 창문들은 활짝 열려있다. 그안에서는 더위에 견디지 못하여 뒤치락거리던 사람들이 간신히 잠들었다.

이런 밤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거리로 나오시였다. 집무실의 사무탁에 쌓인 서류들과 손님들, 전화들... 그속에서 낮을 보내시고 밤을 보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사이다. 그러시다가 깊은밤이나 새벽녘에 잠깐씩 눈을 붙여보신다. 하건만 최근엔 그 잠깐씩 눈을 붙여보시곤하던 잠시간마저 낼수 없으시였다. 그것은 년초부터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높이고있는 인민경제 모든 전선들이 여름철에 잡아들면서 전에 볼수 없었던 기적적인 전진속도를 내면서 힘있게 내달리고있기때문이었다.

검덕의 영웅적인 지하전선이 그러하였고 락원의 기계제작이나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이 그러하였다.

또한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서는 매 시각 세인들을 놀래우는 위훈들이 창조되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모든 중요전선들을 지도하시면서 그곳들에서 걸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는가? 수시로 알아보시고 있다면 제때에 풀어주어 그들의 전진에 아무런 애로도 없도록 해주시였다.

한편 국제정세역시 금년들어 매우 복잡해지고있었다. 시각마다 급변하는 세계였다. 먼나라, 가까운 나라들에 소란스러운 정치변화상을 보이고있어 그나라들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되시였다.

새 세계를 창조하려면 어제의 세계는 물론 오늘의 세계를 잘 알아야 한다. 백전백승의 령도를 실현하려면 주어진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잠시도 잊지 않고계시는 지론이었다. 오늘은 비록 이른감이 있지만 래일은 벌써 늦을수도 있기때문에 시간포

착의 정확성을 놓치지 않고 대응책을 세우는데서 매번 천재적인 수완을 보이시고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사였다.

조선도 세계속에 있다. 그렇기때문에 조선혁명을 우리 식 사회주의길로 보다 힘있게 이끌어가는 시늉에서 세계의 움직임을 소홀히 할수는 없었다.

최근 우리가 잘 알고있는 이러저러한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정치와 경제, 문화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상은 심각한것이였다.

...살인적인 무질서와 혼란, 강도단들의 광란,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동로, 매춘부들의 시위...

...기능이 마비된 정권들, 당내분파들의 최후결렬, 비틀거리리는 경제, 격분하여 미친듯이 소리치는 인테리들의 고향소리, 고향소리...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졌다. 텅빈 국가 식량창고, 식료매대앞에 늘어서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허기져 쓰러지는 할아버지와 손녀...

...회의장들, 크고작은 회의장들, 둥근천정에 매달린 산데리야의 백광이 차거운 빛을 뿌리는 무덤같은 회의장들이다. 거기서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정치인들이 소리치고있다. 허나 그것은 벌써 죽은자를 땅속에 묻고난뒤의 통곡과도 같은것이 다...

...해질녘의 쓸쓸한 종소리가 도시의 상공에 울려퍼지는 교회당, 그곳으로 굽주린 사람들이 밀려가고있다. 교회는 이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사람들이여, 정신차려라, 이제와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이것이다...

오늘 현재의 세계는 이러하였다. 인류가 피의 대가로 쌓아올린 사회주의위업은 진통과 좌절을 겪고있다. 이런 정세속에서도 조선만은 끄덕없이 자기 갈길로 가고있다. 그 어떤 비바람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전진하고있는 조선혁명, 그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령도하고계신다. 그때문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매분 매초를 아껴쓰시면서 바쁘신 하루하루를 보내신다.

하건만 이 깊은밤에 거리로 나오시게 된것이다. 그것은 보건부 일군들이 올려보낸 보고서때문이었다. 보건부 일군들은 울어름의 이상기후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한 일과 또 자신들의 힘으로 할수없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보고올렸다. 그에 의하면 금년처럼 보기도문 더위속에서도 위험한 질

병을 갖고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겐 애로도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금년여름의 이상기온으로부터 올수 있는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하여 모든 부문들에서 특별조치들을 취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보건부문에서는 이상기온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병원들과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개별대상들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대책을 취하였습니다. 심장질환이나 혈압이 몹시 높은 사람들과 각종 질병이 심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입원이나 요양을 보내고 치료휴가들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로동시간을 조절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근하는것을 불허하고 자택안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로 하여 많은 환자들이 금년처럼 고온이 계속되는 조건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적조치에 불복하고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치료일군들의 불안은 가셔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중에서 작가 박일천은 대표적인물입니다. 그는 이상기온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80까지 살아온것이 기적이라 할만치 병투성이 몸입니다. 심장, 혈압, 위장, 기관지 할것없이 온갖 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령의 작가에 대하여 오늘까지 성의를 다하여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박일천으로서의 치료기관이나 의사들에 대하여 응당 고맙게 생각해야 하며 고분고분하고 치료약물을 잘 지켜야 할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귀중한 고급약재들을 쓸수 있도록 언제나 배려를 돌려주고있는 당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겐 그런 초보적인 레의조차 없습니다. 의사들의 지시에도 복종하지 않고 자기하고 싶은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기온이 계속되는 금년 여름만이라도 창작로동을 하지 말것을 여러번 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박일천은 명성높은 작가로서 우리 인민모두가 아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작가 박일천의 건강에 대하여 늘 관심하고 계신다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자신은 자기 병에 대하여 별반 마음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여름처럼 이상기온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쓰고 쓰고 또 쓰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작가들도 금년여름엔 글을 쓰다가 병원에 자주 실려오군하는데 이 사람은 고령의 환자임에도 밤이나 낮이나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명백한것은 이 고령의 작가가 지금처럼 철야창작을 계속한다면 금년여름을 무사히 넘기기가 어려운것입니다. 의사들은 반복되는 설복과 위협까지 해가면서 그가 이여름을 무사히 넘기도록 휴식시

키려 하였지만 박일천은 들은동안동입니다.

하는수 없이 작가 박일천의 오랜 벗이며 의학계의 원로인 최석환박사가 자주 구급차를 타고가서 진찰도 하고 약도 먹이고 주사도 놓습니다. 그런데도 박일천은 뻔뻔스럽다고 할만치 일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박사의 규칙적인 방문치료를 시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의 원로서 아직 제일선 치료진을 지휘하고있는 최박사와 박일천은 오랜 벗으로서 금년처럼 자주 다루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고령의 작가 박일천을 더이상 설복하여 금년여름을 무사히 넘길수 있도록 휴식시킬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가 박일천에게 충고를 주시고 안정하도록 당적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박일천은 코대가 높고 고집이 매우 센 사람이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한말씀만 해주신다면 법처럼 지킬것입니다. 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존경하는 마음은 비길바없이 뜨겁고 열렬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을 삼가 올리는바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넓은 집무실을 거니시며 자신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로작가 박일천을 생각하시였다.

너무 늦은 시각이여서 당중앙청사엔 불을 켜놓은 방도 없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문건을 들고 들어오는 일군도 없었다.

화짝 열어놓은 창문에 다가서시여 밖을 내다보시며 가슴이 후련해지도록 심호흡을 해보시였다. 창밖엔 깊은밤의 진한 어둠이 벽체처럼 마주서있다. 무성한 정원수들의 짙짙에 서있는 전주들에 매달린 전등들이 구내를 밝혀주면서 깜박이고있었다. 저 멀리 시가쪽 상공은 명멸하는 장식등들의 빛을 받아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고층집들의 일각이 툭박을 드러내군하였다. 또한 대동강건너의 별빛밝은 상공엔 주체사상탑의 해불이 이밤도 힘차게 타오르고있었다.

창조로 들끓던 평양은 지금 고요속에 잠자고있었다. 꿈이 깃들고 평화가 깃들고 래일의 희망이 깃든 평양의 밤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 별들과 장식등들이 빛나고있는 하늘밑의 한집 서재속에서 이 시각도 책상에 마주앉아 글을 쓰고있을 작가 박일천을 생각하시였다.

자기의 건강을 넘려해주고있는 당의 고마움이나 의사들의 수고도 모르고 사람이라고 보건부일군들은 그에 대하여 격분하고있다. 그들은 이 병투성이 고집쟁이 허약자가 이상기온이 계속되고있는 울여름을 무사히 넘길수 있도록 당적충고나 조치를 취해주기를 청원하고있다.

보건부일군들의 비판어조는 차지만 정은 뜨겁다.

소설가 박일천-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사람이다. 불원 80이 될 고향의 작가다. 이 작가에 대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높이 평가하고계신다.

독자들속에서 그의 인기는 매우 높다. 조국의 지성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중 한사람인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사상으로만 말하고 쓰고 활동하고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우리 당 정책이 집행되는 첨단의 가열전선이다. 그가 창조하고있는 인물들은 우리 당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어깨에 지고 동분서주하면서 난관을 뚫고나가는 전사들이다. 수많은 단편소설들과 중편들 그리고 장편소설들을 썼을뿐아니라 무게있고 호소성이 강한 정론들을 썼다. 그가 대학들에 초빙되어 강의할 때면 비좁게 밀려드는 청강생들로 하여 창문들이 깨지곤하였다.

그의 강의엔 애국과 애족, 공민적의무와 성실, 근면과 탐구적사색,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이땅의 청년인테리들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다.

키가 작고 여위여 살불이라고 얼마 없는 백발의 로인... 허지만 채룡채룡 강당을 울리던 그의 목소리는 맑았고 둘러보는 눈빛엔 흐린 티하나 없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간 오늘까지도 그가 정력적으로 하던 강의 구절들이 귀전에서 맴돌고있는듯만싶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대학시절에 이 박식한 로인의 정열적인 초빙강의를 여러 들으신바있다. 정치와 경제, 력사와 문화, 국방과 군사 등 로작가가 자기 강의에 끌어들이는 지식의 한계는 무한대하였다.

그는 매번 다음과 같은 말로 강의를 끝맺곤하였다.

...여러분들은 신성한 조국땅이 천박과 무지의 잡초로 덮이고 소시민들이 자기 집 담벽을 장식하는 색종이조박따위에 얼룩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는 청년지식인 여러분들이 조국과 당을 위한길에서 자기 명예를 오물장에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할것을 각별히 부탁한다...

이것은 청각이나 자극하는 강의 결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으로 육박해들어오는 화살과 같은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부문을 지도하시며 박일천과 자주 만나시였다.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그의 의견들은 많은 도움으로 되였다.

이 로작가는 몇해전 어느 비오는 여름날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짧은 편지를 올린바있다. 그것은 박일천이가 대동강기행문을 쓰기 위하여 현지답사를 하던 대동강 상류지대에서 보낸 편지였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꼭 알릴 말씀이 있어

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동강상류지대에 아직 호안림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않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곳들에서는 장마비에 농토들이 류실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호안림조성문제에 대하여 수백번도 넘게 강조하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곳 현지일군들의 조국애를 놓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호안림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구역들을 표식한 지도를 한장 동봉하여 올립니다. 지도작성숨씨가 번번히 못해서 초라한 그림처럼 되였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구역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국땅 한치라도 장마비에 류실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동강 상류지대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모든 하천지역들에서 호안림 조성정형을 다시금 료해하고 호안림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않은곳들에서 이 사업을 적극화할데 대한 대책을 취하시였다.

불빛 찬란한 끝은 거리, 인적이 드문 광장, 백화점앞 십자로, 버스정류소들에도 사람들은 적었다.

비를 대신하여 물차들이 지나갔다. 그러자 대동로들엔 전광이 부서져내리며 번쩍였다. 박일천이가 사는 고층주택이 바라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전날 여러번 다녀가신바있는 주택이였다. 2층 모퉁기쪽에 있는 3호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아직도 박일천의 서재풍경까지 기억하고계셨다. 두툼하고 색바래진 책들이 벽들에 가득 꽂혀있어서 무거운 감을 주는 서재였다.

이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보다 앞서 박일천의 집으로 갔던 부관이 빠른걸음으로 마루 다가왔다. 날씬한 몸매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부관이였다.

《무슨 일지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금쯤 박일천의 서재에 가있으려니했던 그를 보자 물으시지 않을 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박일천선생을 만나시기전에 아셔야 할 일이여서 말씀올리려고 돌아서왔습니다.》

《그렇소.》

《방금전에 목격한 사실입니다.》

부관은 정중하게 말씀올렸으나 입가엔 약간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금방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올리기 시작하였다.

부관이 박일천네 아파트의 마당에 가서 닿았을 때 최석환박사가 진찰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인듯 치료가방을 든 간호원과 함께 현관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배가 나오고 어깨가 넓으며 키가 구척같은 백발의 최박사는 위생복을 입고있었다. 그 뒤에 그

를 바래우기 위해 박일천이가 따라나오고있었다.

《이젠 더 이상 오지 마시오. 난 죽지 않는단말이요. 밤마다 찾아오는건 공연한 수고요.》

구급차가 서있는데까지 왔을 때 박일천이가 작별인사를 대신하여 하는 말이였다.

《흥, 나이먹었다고 철이 드는건 아니야, 제편에서 못마땅해 투덜거린단말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요.》

《그럼 내가 철부지라고 합시다. 어쨌든 이제부터 오지 마오.》

부판은 불빛이 미치지 못하는 한쪽옆에 서있었다.

《당신은 이제 혼썰이 날거요.》

《남을 위협하는 버릇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꼭 같구려.》

《위협이라구. 아무렴 우리가 가만 있을줄 알았소. 보건부가 당신에 대하여 당중앙에 보고하지 않은줄 아오. 사실이 그러니깐 어쩔수 있소.》

《그 사실이란건 뭐요?》

《당신의 교만성과 안하무인식 무규률성이요. 당신이 보건부나 의사들을 뭇루 아오. 신다가 췌버린 구두창처럼 알지 않소.》

《격분도가 지나치구려.》

박일천은 최박사의 위협을 끝내 정자세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어쨌든 당신에 대하여 당적인 조치가 취해질거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도 당신이 안하무인이고 당의 교마음도 알지 못하는 의리없는 인간이라는걸 아시게 된단말이요.》

으름장을 놓는 최박사는 자기의 어깨높이밖에 키가 닿지 못하는 박일천을 엄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자기의 오랜 친구를 그렇게까지 깎아내려서 무슨 좋은 일이 있소?》

《당신이 언제한번 나를 친구로 대했소?》

《나는 당신들 의사들의 웅졸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개탄하게 되오.》

이때 진찰가방을 들고 구급차문옆에 서있던 처녀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들도 싸우시네.》

처녀의 웃음소리는 두 로장을 창피하게 했던지 그때부터는 더이상 다툼질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박사가 떠나려고 구급차문의 손잡이를 잡으려 하였을 때 다툼질은 다시 시작되였다.

《정말 나를 당에 보고하려고 하오? 아니면 벌써 했는가말이요? 설마하니 그렇게까지야 했겠소. 한번 올려본거겠지.》

박일천은 최박사가 잡으려는 손잡이앞에 막아섰다.

《여보, 떨리오?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걸 당신도 알지 않소.》

《당신은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 방구석에 우두

커니 앉아있으라는거요?》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살라는거요.》

최박사의 올렸다면든 기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앞으로도 최박사의 그 기세는 계속될것이 명백하였다. 이것이 확실해지자 박일천의 어조는 부드러워지면서 자세도 달라졌다. 그 자세, 그 어조는 타협과 애원에 가까운것이였다.

《여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작가 박일천은 규률위반자고 교만한자며 안하무인이라고 알려졌다는거요? 당신과 나는 산다는것에 대한 해석개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요. 견해상차이를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는건 온당치 못하오. 견해상차이는 어디까지나 견해상차이요. 다시말하면 당신네 의사들이 산다고 하는 그 삶과 우리 작가들이 산다고 하는 삶은 같은 뜻이 아니란말이요. 좀더...》

여기서 박일천은 더이상 말을 못하고 끊기고 말았다. 최석환박사의 폭발적인 노염이 터졌기때문이였다.

《그따위 소린 그만하오. 당신네 작가들은 삶에 대한 해석단수가 높고 우리 의사들의 해석단수는 낮다는거요.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는 삶이란 생물학적견해외 아무것도 아니라는거요?》

최박사의 격분한 어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박일천의 어조는 더욱더 침착하고 낮아졌으며 부드러워졌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소. 자연생명을 다루는 게 의사들이니 그건 그럴수도 있소. 여기엔 그 어떤 격분할 근거란 없단말이요. 당신은 무엇때문에 성급하게 고향을 지르는거요. 내 얘기를 참을성있게 들으란말이요. 그리고 리해의 폭을 넓히란말이요.》

《그럼 어디 말해보오. 내가 참을성있게 들을테요. 그리고 리해의 폭을 넓히라니 그것도 넓혀보겠소.》

《작가 박일천이가 산다는게 뭐겠소. 그건 한순간도 쉬지 말고 쓰고쓰고 또 쓰는게 아니겠소. 그것 없이야 이제 백년을 산들 무슨 기쁨이 있겠소. 그리고 금년같은 이상온도때문에 죽을가봐 겁내면서 그늘밑에 누워있으면 용광로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작가들이 무슨 말을 할수 있소. 이건 너무 일반적인것 같소. 구체적인 한 생명개체인 나를 놓고 말해봅시다. 나는 금년 79살이 되는 병투성이 작가요. 그러니 당신보다 한살 더먹은 손우사람이란말이요. 병쟁이 늙은이가 오래 오래 살았소. 거리에 나가면 지나가는 청년들이 흥미있게 바라보오. 19세기가 떠나가면서 남겨놓고간 사람이 아닌가해서말이요.》

《그러니 어쨌다는거요? 오래오래 살았으니 인젠 죽어도 된다는거요? 주제를 명백히 하란말이요.》

《또 당신은 참을성을 잃었구려. 자기 입으로

약속하지 않았소.》

《…》

까르르 간호원처녀가 또 한번 참지 못하고 웃었다.

《내 인생은 끝나가고있소. 벌써 끝났을 내 인생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속에 계속되고있소. 당신도 우리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겠지. 그게 어느때가 하면 당신이 도표에 가서 피눈물나는 고향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돌아와서 의사생활을 시작한 해요. 그해에 나도 문단에 등장하여 인기작품을 두세편 썼지…》

《그래서?》

《잠차코 듣게. 당신의 조급성은 나의 교만성보다 더 나빠.》

《…》

《그해에 말이요. 나는 폐결핵진단을 받았소. 가난했던 나는 병원에 입원할 힘도 없어서 강변에 초막을 꾸리고 나가살며 대동강물고기나 잡아먹으며 죽을날만 기다렸지…》

《그랬지. 생각나. 당신은 기력이 없어서 낚시질도 겨우 했으니깐.》

《신문들은 <평양의 재사 박일천은 불원 세상을 떠나갈것이다.>라고 썼드랬지. 그때 우리의 중학동창들은 나를 찾아와서 울다가 가군하였지. 특히 당신은 자기가 의사인데도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약한번 맥이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파 목놓아울었지. 그러다가 하루는 주인 몰래 병원약국에 들어가서 산삼 한뿌리와 주사약 스무대가 든 마분지팩을 훔쳐가지고 나한테 왔댔지. 그것때문에 당신은 병원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댔어. 그러저럭 병든 문사였던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해방을 맞았소. 해방후에도 병약한 나는 늘 앓았지. 사람들은 내 건강이 오래 견디여내지 못할거라고 하였소. 당신자신이 늘 나를 치료하면서 깨진 그릇을 다루듯하였소. 그런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단말ियो. 우리 수령님과 당의 은덕이 아니라면 생각이나 할수 있는 일ियो? 당신도 지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 늙은 나를 얼마나 극진히 보살펴주시는가를 잘 알지 않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내가 병때문에 쓰러질가봐 산삼이나 록용은 말할것도 없고 외국의 이름있는 병원들에 가서 치료받고 료양할수 있도록 끝없는 배려를 돌려주시었소. 어찌 그뿐이겠소. 당신도 아는것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정치사상적 과오들을 범하였소. 그 과오들은 매우 엄중한것들이였고 용서받기 힘든것들이었소. 나의 낡은 사상에 기초한 세계관적약점이 창작품들에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 독자들속에서 물의가 일어난것도 한두번만이 아니었소.

그때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신이 범하신 과오처럼 가슴아파하시며 나의 잘못을 일깨워주시고 용서해주시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

도록 이끌어주시었소. 이런 나로서 하루가 가고 한달이가고 일년이 가는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소. 인생은 끝나가는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에 보답할길은 없단말ियो. 내가 만일 두분의 은혜에 만분지 일이라도 보답했다면 무슨 여한이 있겠소. 이 심정은 나뿐이 아니라 당신도 같은것이고 우리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이 다 같은것이란말ियो. 나는 하루 스물세시간을 일하고 한시간을 자면서 은혜보답을 할 결심ियो. 나는 우리 인민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쓰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수 없는 심정ियो. 그것은 퍼내고퍼내고 또 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샘물처럼 내 가슴속에 언제나 차넘치고있소. 내가 만일 이제부터 병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휴식만 한다면 배은망덕하는 죄의식과 량심의 아픔때문에 더 빨리 죽든가 이미 죽은사람이 될거요.

나는 이런 심정때문에 일하고 또 하는것이지 당신이 생각하는것처럼 안하무인이나 교만성이나 무규률성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란말ियो. 당신이 정말 나의 오랜 벗으로서 내가 오래살기를 바란다면 내가 일을 계속하도록 해달란말ियो. 내가 일하고 또 하는것, 쓰고 또 쓰는것, 그것만이 오래사는 길ियो. 나에게 휴식은 사색의 정지고 혈액순환의 정지요. 맥박의 정지로도 되요. 따라서 죽는것이란말ियो. 인젠 리해가 가오? 나는 휴식하기 위하여 침대우에 누워있다가 죽는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오. 나는 죽는 순간까지 창조자로,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위해 충성다하는 로동당원-전사-작가로 살려고 하오. 이진 다른한편 일생의 전시기를 이 못난 친구의 벗으로 지내다 되는거요.》

《…》

최박사측에서는 잠시 아무런 응대도 없었다. 그다음 약간의 격분감소가 알리는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니 내가 여직껏 당신에게 <죽었!>하고 구령을 쳤다는거겠소?》

역시 최박사가 완전양보를 할 의사는 비치지 않았다.

《당신의 심장은 이 순간에도 너무 차오. 리해를 넓히지 못하고있단말ियो.》

이 말은 다시금 최박사의 격분을 더뜨렸다.

《뭐요? 차다구… 여보, 뜨겁기때문에 이 늙은 사람이 밤중에도 당신을 찾아오군한단말ियो.》

그러자 어린 간호원이 구급차의 문을 열고 최박사를 끌어당겼다.

《할아버지들이 더 다투시면 저는 올래요.》

구급차는 부르릉거리더니 떠나갔다. 구급차의 전조등이 트랙을 환히 밝혀주다가 사라진후 박일천이도 그자리에 잠시 서있다가 자기 서재로 들어가버렸다. 마당엔 그 서재로부터 흘러나오는

불빛이 멀어져 내려올뿐이었다.

그 불빛은 어둠에 둘러싸여 마당 한귀퉁이만을 비쳐주었다. 그다음은 정적이 무겁게 드리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방금전에 두 로전사가 《말다툼》하고난뒤의 정적짓는 마당을 천천히 거니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동강쪽으로 발길을 돌리시었다. 박일천을 만나시기 위해 이리로 오실 때의 생각이 달라지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기계획에 의하면 당장 박일천을 창작로동에서 떼여 료양소로 보내실 생각이시었다. 그랬지만 지금은 생각을 달리하신것이다. 박일천에게 하루나 한달, 혹은 한 계절을 일하지 말고 휴식하라고 한다는것은 그자신이 말하듯이 《죽었!》 하고 구령을 치는거나 같은것이라고 생각하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휴식이나 그 피서생활이 어찌면 그의 생명을 단축시킬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위험을 방금전에 본인의 절절한 목소리로 들으신것이다. 그것은 생에 대한 철학이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때 그것은 인간본연의 자세며 참된 당원의 자세이기도 하였다. 의학계의 로거장인 최석환박사자신이 이것을 모를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모르는척했을수도 있다. 왜냐하면 박일천에 대한 그의 우정이 너무 두텁고 뜨거운것이여서 리성이전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할수도 있는것이다.

박일천, 최석환-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두 로거장들을 놓고 우리 나라 인테리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충성심을 생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여 건국사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을 따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달려온 인테리들이였다. 우리 당 인테리들이야말로 당과 수령을 따라 비바람수만리길을 동요한번없이 함께 온 동행자들이며 앞으로 영원히 함께 갈 동행자들이였다. 진통을 겪다가 붕괴된 당들엔 바로 이런 인테리들이 없었다. 그들에게 이런 인테리들이 없었던것은 큰 불행이 아닐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박일천을 만나보실 필요성도 없으며 그가 휴식하도록 당적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였다.

박일천은 일을 해야 한다. 그가 쉬임없이 일을 한다는것, 단하루도 창작활동을 중지하지 않는다는것 -그것은 그의 행복이다. 그것없이 그는 그하루를 살고 백년을 살아도 무의미한것이다. 비가오던 눈이 오던 이삭기운이 계속되는 여름이던 겨울이던 그는 일을 하고 또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생각을 계속하신다.

《그를 서재에서 떼내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기 서재에서 사색하고 집필하여야 한다. 그에게 안정을 주고 생의 마지막순간에 자기는 행복한

일생을 보냈으며 부끄러움이 없는 생을 누렸다고 생각하도록 하는것은 이것뿐이다. 당은 그에게 좀더 많은 의약품(그것이 아무리 비싼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지구의 다른쪽. 먼곳에 있는것이라 하더라도)을 그에게 보내주는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의사들이 그를 집중감시하는것이다. 이 일은 최석환박사와 나자신이 말아해야 할것이다. 래일 나는 최석환박사와 만나서 이 일을 의논하겠다. 최박사측에서 결사반대하지 않는 한 나의 이런 계획엔 변동이 있을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밤이 유익한 밤이였다고 생각하시였다. 하신것은 하나의 큰 생명이 마지막순간까지 꽃을 피울수 있도록 정확하게 보살펴주실수 있었기때문이었다.

작가 박일천-조국이 아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끼시는 로인, 자기생의 전부를 당을 위해 바치는 사람, 그 이름높은 작가는 이밤의 고마움을 영원히 모를수도 있을것이다.

날섷녁의 대동강변 상단유보도는 텅-비어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리쉽도 하실겸 상단유보도의 장의자 한복판에 앉으시였다.

발밑은 대동강이다. 강기슭돌계단엔 예이제 다름없이 맑은 물결이 밀려와서 조심스럽게 철썩이며 활아보고는 물러가군하였다. 류경고도의 운치를 돋구고있는 강변의 실버들은 예이제 변함없이 휘늘어져있다. 날밝기직전의 고요가 깃든 대동강이다. 이제 곧 화물선들과 려객선들이 저 거울같은 수면위에 나타날것이다. 그리고 미구하여 대동강의 장엄한 해돋이가 있게 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동강으로 나오시여 이렇게 앉아보신지도 퍼그나 오래되였다. 젊으시던 시절엔 동무들과 함께 대동강호안공사장에 나오시여 땀도 많이 흘리시였다. 그리고 떠나는 려객선들을 향하여 손도 흔들어주셨고 자신께서 뽀트도 타보군하시였다. 또한 대동강의 해돋이를 보시기 위하여 어둑새벽부터 동쪽하늘을 지키시기도하시였다. 그런데 인제는 그 시절이 영원히 흘러가버린것이다. 당과 국가를 이끌어가시는 중임은 대동강 기슭을 한가로이 거닐어보실 토막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일을 하시고 또 하시느라 대동강에 봄가고 여름오고 또 가을이 가는 계절풍경조차 보시지 못한채 보내는 해들도 있었다. 간혹가다 집무실창문에 다가가시여 정원수들의 색깔변화를 바라보시며 마음만으로 산책의 길에 나서실 때가 있었을뿐이었다.

먼동이 터오고있었다. 부지런한 낚시꾼들이 좋은터를 차지하려고 벌써 한사람 두사람씩 나타났다.

또 하루 평양의 방이 지새인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평양사람들의 안녕과 행복, 꿈과 평화를 지켜 잠드시지 못한 밤이다.

은정깊은 밤이며, 평양의 밤이며.

새벽 산보

김문창

1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회의가 끝난후 집무실에 돌아오신것은 자정이 지난 때였다.

그이께서는 방에 들어가시자 곧추 집무탁앞에 가앉으시였다.

집무탁우에는 그이의 결론을 기다리는 각종 문건들이 그득 쌓여있었다. 맨우에 놓인 문건들은 모두 급변한 정세와 관련된것들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며칠전에 《관문점사건》을 도발하고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여 남조선전역을 준전쟁상태에 들어가게 하였다. 백악관과 펜타곤에서는 매시각 선전포고와도 같은 폭언들을 쫓았다. 세계의 통신과 방송들은 조선에서의 새로운 전쟁발발을 예고하는 보도들을 연방날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활발한 필치로 가필도 하고 비준도 해주시며 문건들과 대책안들을 재빨리 보아나가시였다. 만수대에술단에서 새로 지어 올려보낸 노래를 지도하기 위해 벽가에 놓인 녹음기도 틀어놓으시였다. 지방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녹음기소리를 낮추고 수화기를 드신 그이께서는 보시던 문건에 시선을 계속 달리시면서 몇마디로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료해하시고 그 즉시 결론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비상한 정력으로 한번에 두세가지의 일을 동시에 처리해나가시였다.

미제의 움직임에 대한 정세통보를 보시는 그이의 안색에는 신중한 빛이 흘렀다. 도수를 높이는 적들의 발광에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었으나 불에 날아드는 부나비를 보는 때처럼 가소로운 생각도 드시였다.

재빨리 정세통보를 다 읽고나신 그이께서는 자료통보서들에 눈길을 주시다가 사진첩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뽑아내시였다.

사진첩은 동력화된 현대적인 유희기구들을 사진찍은것들이였다.

그이의 안광에는 금시 반갑고 기쁜신 미소가 어리였다.

유희기구는 그이께서 크게 관심을 돌리고계시는것들중의 하나였다. 그이께서는 벌써 여러달전부터 새 유희장건설을 구상하고 추진시켜보고계시였다.

년초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평양지구에 새로 일떠세울 거리형성안을 보여주시였는데 그날 수령님께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지난해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였을 때 한나라에서 현대적 유희시설을 갖춘 유희장을 본 일이 있는데

우리 인민들에게도 그런 유희장을 갖추어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으면 자신의 한가지 소원이 풀리겠다고 하시였다.

그 어디에 가시여서도 좋은것만 보시면 우리 인민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즉시 풀어드릴것을 결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는해에 유희장을 인민들에게 선물할것을 계획하시고 그 작전을 펴나가시였다. 다른 나라들에 사람을 파견하여 유희장들을 보고 오게하시였으며 여러차례 해당일군들과 마주앉아 우리인민의 기백과 생활기호에 맞게 설계를 통이 크게 잘할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한편 《관문점사건》이 있기전인 지난달에 동력화된 현대적인 유희기구들을 구입하기 위해 그 생산에서 제일 발전했다고 하는 한 자본주의나라에 엄석민을 보내시였다.

그런데 그가 돌아온것이였다. 사진첩까지 만들어가지고 온것을 보면 거기에 찍힌 모든것들을 다 가져오기로 계약을 맺은것 같았다. 참말로 반갑고 기쁜 소식이였다.

그이께서는 만족하신 기분으로 사진들을 하나 하나 보아나가시였다.

두사람씩 짝을 지어앉아 돌아가는 회전그네, 급한 경사와 구배길을 아찔아찔하게 달리는 관성단차, 여러 차량에 수십명이 앉아 긴 궤도를 내달는 관성렬차, 아이들이 타게 된 전기자동차...

그이께서는 모든 유희시설이 마음에 드시였다. 그중에서도 그이의 마음에 제일 드시는것이 관성단차와 관성렬차였다. 그것은 청소년들뿐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모험심과 대담성을 아주 잘 키워줄수있을것 같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사진을 떼어드시고 이윽도록 들여다보시였다. 눈앞에 그것들란 소년들과 청년들의 즐겁고 활기에 넘친 모습이 방불히 그려지시였다. 그이의 입가에 만족한 웃음이 저절로 떠오르시였다.

한 일군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이께서는 사진을 내려우고 물으시듯 그한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이젠 3시가 넘었습니다.》 그 일군이 애탄 표정을 지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알겠다고 눈으로 대답하고 물으시였다.

《엄석민동무가 왔구만! 언제 왔습니까?》

《예, 지도자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가신 다음에 왔습니다. 저녁국제렬차로

돌아왔답니다.》

《그런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급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가 혹시 사무실에서 그냥 기다리고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동지께서 군사위원회에 가신걸 알려주고 집에 가서 꼭 쉬라고 하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엄석민이 얼마나 섭섭해하였을것인가를 생각하시였다. 그는 외국에 다니며 언제 한번 사업보고를 하기전에 집에 들어가본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전쟁시기의 경찰소대장이며 전후 강제청년발전소 건설자인 엄석민은 그이의 사업을 처음부터 보좌해온 일군들중의 한사람이었다. 드레진 체구에 넓은 이마와 버들잎같이 굵은 눈썹을 가진 그는 생김것과 같이 담대하였으며 림기응변을 잘하고 어떤 정황에서도 눈치를 보거나 당황함을 몰랐다.

그이께서는 그 어느때 보아도 솔직하고 진실할 뿐아니라 행동에서 주저와 동요를 모르는 그를 못내 사랑하시였다. 그를 대외시장에 자주 내보내신것도 그래서였다. 그는 매번 그이께서 바라시는대로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곤하였다. 그를 것처럼 믿으시기에 유희기구를 구입하는데도 그를 파견하신것이였다.

그가 갔던 나라는 미제의 동맹국으로 우리에게 시종일관 적대시정책을 써오고있는 나라였다. 개인실업가들이 우리와 무역을 못하도록 관세도 터무니없이 높이 붙였으며 여러가지 제한조치들을 실시하고있었다.

그런데 엄석민이 그 나라에 간 다음 《판문점사건》이 터졌다. 그것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울 엄석민에게 더욱더 커다란 장애를 조성했을것이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라시는대로 일을 맺고 돌아오리라는것을 그 이께서는 믿어의심치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대국에 가있다가 돌아온 그를 제때에 만나주지 못한 마음의 무거움을 안은 신체 곁에 서있는 일군에게 물으시였다.

《이 사진들을 보았습니까?》

《예.》

《그래 어떻습니까. 사진에 있는것들이 마음에 듭니까?》

《정말 유희시설들이 훌륭합니다.》

《이런 유희기구들을 가져다놓으면 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인민들은 또 얼마나 좋아하고... 오늘 오전에 설계일군들을 불러주시오. 도당책임비서들과의 협의회를 한 다음 만나겠습니다. 전번에 설계초안을 보고 종합유희장 규모가 작다고 지적해주었는데 어떻게 고쳤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 일군이 나가자 시계를 보시고 통보서들을 앞으로 끌어당기시였다. 날이 썰 때까지 10건이상은 읽으실수 있었다. ...

어느덧 새벽이 창문에 질게 들어붙었던 어둠을 밀어버리며 집무실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 일군이 다시 문간에 나타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엄석민동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불빛이 그냥 있는데 지도자동지께서 집무실에 계시지 않는가고 물어왔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집에 안들어가고있었구만!》

그이께서는 즉시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엄동무입니까? 수고했습니다. 사진을 다 보았는데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새 앓지는 않았습니까? 난 여전히 건강합니다. 외국에서 돌아와 몹시 피곤하겠는데 밤을 새우게 해서 안했습니다. 사무실 장의자에서 코를 골면서 잤다구? 그럼 좋습니다. 지금 나한테 와주시오.》

이웃청사에 있는 엄석민은 얼마 안있어 나타났다. 그는 달려온 모양으로 높은 숨소리를 감추지 못하였다. 그는 그이께 안기듯이 다가와 인사를 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와 인사를 나누시며 그의 얼굴을 재빨리 살피시였다. 그의 커다란 눈가와 그 가녀에 깃들어있는 피곤의 그림자를 순간에 알아보고 그의 가슴에 가볍게 손을 가져다대시였다.

《엄동무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구만.》

《예?》 엄석민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며 눈길로 그이께 물음을 올리였다. 그랬다가 무엇때문에 그러시는지 깨달은듯 벌쭉 웃으면서 가슴을 짚었다. 《아직 이틀쯤은 밤을 새워도 끄떡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내가 속아봅시다. 자 그럼 갔다온 이야기는 후에 듣기로 하고 함께 산보나 갑시다.》

《예? 산보를 말입니까?!》

그이앞에서 티끌만큼도 자기를 감출줄 모르는 엄석민은 진한 눈썹을 흠칫하며 자못 놀라와하였다.

《대성산쪽에 나갔다웁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엄석민의 팔을 잡고 집무실을 나서시였다.

2

푸름푸름 새벽이 밝아오고있었다. 비행기활주로같이 넓은 길우에는 아직 엷은 어둠이 안개같이 깔려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엄석민을 옆자리에 앉히고 손수 운전대를 잡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거리의 새벽단잠을 깨울세라 소리를 죽여 차를 천천히 몰아가시였다.

그이의 곁에 앉은 엄석민은 자신이 운전해올리

지 못하는 송구함에 싸여 그이께서 먼저 무슨 말
씀이 계시기를 기다리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었다. 그한테 시선도 주
지 않으시고 끝은 앞만 내다보시었다.

거리에는 아직 인적이 드물었다. 다른 때갈으
면 주책의 창문들과 식당, 상점들에서 내비치는
불빛이 휘황할것이나 한줄기의 광선도 보이지 않
았다. 놈들의 전쟁책동에 대응하여 불가림을 잘
한 고충주책들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아침
을 짓느라 그릇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거리에 흘
려내렸다. 전투서열에 나선 병사마냥 불을 켜지
않고 서있는 가로등주들과 높은 건물들에 길다랗
게 드리운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규탄하는
대형구호관들이 전쟁접경에 이른 정세의 국면을
느끼게 했다.

반쯤 열려진 창문으로 거리에 시선을 주고있던
엄석민은 시르시 고개를 돌려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의 안색을 살피었다.

그이께서는 여전히 같은 자세이시었다.

(정세와 관련하여 무엇인가 깊은 사색을 하고
계시는중이시다.)

엄석민은 그이의 이 새벽산보가 보통산보가 아
님을 대뜸 느끼었다.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발광하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내릴 새로운 철추
를 구상하시는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간밤에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있었으니 적들의 책동을 일
격에 짓눌러버릴 작전을 무르익히시는것이 분명
하였다.

엄석민은 그이의 사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숨
소리마저 죽이었다.

그가 보건대도 이번의 미제놈들의 전쟁발광은
매우 심상치 않았다. 《푸에블로》 호사건과 《이
씨121》 비행기사건때보다 몇배 더하였다. 놈들은
기어코 전쟁을 해보자는것 같았다. 엄석민은 갔
던 나라에서도 그것을 강하게 느꼈고 조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각국의 통신들을 읽으면서도 그
것을 진하게 감수하였다. 이번에는 위불없이 전쟁
이 터질것 같았다. 그러한 예감속에서 자기의 이
번 외국걸음이 무의미한것으로 되어버리지 않을
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엿저녁
에 구체적인 사업보고서는 빼고 만약경우를 생각
하여 사진첩만 그이의 서기실에 맡기고 사무실에
돌아왔었다.

그의 예감을 확증해주기라도 하듯 줄곧 말씀없
이 천천히 차를 몰아가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께서 대성산유원지에 들어서자 엄석민에게로 눈
길을 돌리시었다.

《눈을 좀 붙일줄 알았더니 끝내 뜨고있구만.》
하고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시고나서 이렇게 물
으시었다.

《엄동무, 통신들을 보니 동무가 갔던 나라 출
판물들이 이번 <관문점사건>과 관련하여 제일 떠
들고있는것 같은데 실지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

습니까?》

《누구나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것으로 보고있
습니다.》

《그렇다면 흥미있구만. 그래 어떤 측면에서 그
렇게들 말합니까?》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호기심을 보이시었다.

《미국사람들이 이번까지 가만있겠는가구 우려
합니다. 세계앞에 <푸에블로>호사건때두 그랬구
<이씨121비행기사건>때두 망신하였는데 이번
에는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게라우말입니다.》

《하하.》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
렇듯하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틀림없이 <보
복>을 당한다 그 말이구만?》

가소롭다는듯 호탕하게 웃으시는 그이를 우려
르며 엄석민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병싯하니 미
소를 따라 지었다.

《그런속에서 이번에 엄동무가 정말 힘들었겠습
니다.》

《예. 잘 응해주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승용차가 어느 사이에 대성산마루에 이르렀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사제가 확 트인
산코승이로 걸어나가시었다.

은구슬같은 이슬방울들이 그이의 신발을 적시
었다. 머리위의 나무잎새들이 미풍에 흔들거렸다.

그이께서는 허리언저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사
위를 둘러보시었다.

사동벌의 문수봉너머에서 노을이 피어나기 시
작했다. 모란봉의 거연한 웅자가 밤새 수도를 지
켜낸 보루인양 자태를 드러내고 청류벽과 룡라도
를 품에 안은 비단필같은 대동강이 노을을 머금
기 시작하며 자기의 용용한 흐름을 자랑하기 시
작했다. 연하같이 서린 새벽 보라빛 대기속에서
도 진하게 검푸른 공원들의 나무숲과 가로수들,
그 록음바다우에 떠받들려있는 고층살림집들...
승벽내기로 우짖는 못새들의 울음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흔든다. 록음방초 우거진 대성산골짜기
에는 온갖 새들의 노래가락과 매미들의 귀따가운
음향으로 들끓기 시작한다.

감개무량하신 안광으로 수도의 시가와 산아래
의 골안을 이윽히 굽어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께서 팔을 들어 골안의 식물원웃쪽을 가리키며
말씀을 폐시었다.

《엄동무, 저 식물원웃쪽에다 종합유희장을 얹
히자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것들보다 부지가 어
떻습니까. 작지 않겠습니까? 함께 부지를 보기
위해 이렇게 산보를 나오자고 했습니다.》 그이
께서는 팔을 들어 식물원 웃쪽일대를 가리키시며
말씀을 폐시었다.

엄석민은 진한 눈섭을 저도 모르게 흠뻑하였다.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어서 자기의 귀를 의심하며
잠시 어리둥절하니 그이를 쳐다뵈기만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러한 엄석민이

도리어 놀라우신듯 그에게로 몸을 돌리시며 웃음을 지으시었다.

《왜 그러니까?》 하고 그이께서는 부드럽게 물으시었다.

《너무 상상밖의 일이 돼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말끝을 맺지 못하는 엄석민의 솔직한 대답에서 그의 심중을 꿰뚫어보시었다. 했으나 그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하지 않고 이미 물으신것에 대한 대답을 다시 요구하시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이 보았겠는데 그래 유희장부지가 작지 않았습니까?》

《예, 작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것들보다 훨씬 큼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유희장들은 대체로 도시주변들판에 있어 풍치도 이 대성산에 가져다 댈바 못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유희장건설을 힘있게 내밀어봅시다. 이제 유희장까지 앉히면 이 대성산 유원지가 정말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손색이 없을겁니다. 큰 식물원도 있지 동물원도 있지 고구려시기의 력사유적들도 많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더없이 만족하신듯 손가락을 꼬아가시었다. 그러시고는 두팔을 넓게 벌려 대성산전체를 끌어안듯이 하시며 기쁨을 견잡지 못하시었다. 《식물원과 동물원, 고구려의 옛성터와 남문을 돌아본 다음 유희장에서까지 마음껏 즐기거나면 늙은이들도 10년은 더 젊어질것입니다. 그래 엄동무는 그 관성단차라는것을 타보았습니까?》

《관성단차말입니까? 타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 나라에서 타보지 못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쩔어쩔합니다.》 엄석민은 그이의 부드러우신 눈길앞에 솔직했다.

《허허, 강제 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처녀를 지켜 곱과 싸웠다는 엄동무가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이께서는 믿기 어려운듯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유감을 표시하시었다. 《이제 유희장이 다되면 우리 한번 같이 타봅시다. 사진을 보니 관성단차와 관성렬차는 청소년들에게는 물론 어른들한테도 대답성을 키워줄수 있는 아주 좋은 유희시설입니다. 높은 공중에서 달리는데다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구매가 심하여 한번 타고나면 모든 겁이 다 없어질것입니다.》

긴장한 정세는 안중에 없으신듯 유희장에만 심취되어계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엄석민은 저절로 생각이 깊어지었다.

보통사고로써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중요한 공장기업소나 큰 건설장에 대한 현지도라면 또 몰랐다. 그런데 유희장이라니... 지금과 같은 정세하에서 그 누구든지 뒤로밀어놓을수 있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다르시었다. 유희장건설을 두고 다른 때보다

더 마음을 쓰고계시는것 같았다.

석민이로써는 참으로 놀랍고 리해가 선듯 가지 않았다.

전세계가 조선에서의 새로운 전쟁발발을 우려하고있는 이 시각에 그이께서는 어떻게 그처럼 유희장에 대해 생각하실수 있는것인가?

자기로서는 백번 고쳐산다 하여도 그이의 이담력의 깊이를 다 알수 있을것 같지 않았다.

한편 그것을 자각할수록 자기가 그이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죄의식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앞으로 관성단차를 함께 타보자고 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이르러 금시 심장이 멎는듯하였다.

그는 그이께서 것처럼 말씀하시는 관성단차와 관성렬차를 수입계약에 물리지 못하고 겨우 회전그네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여섯가지만 주문하고 돌아온것이였다.

엄석민은 등골에 축축하니 땀을 느꼈다. 관성단차까지 다 해결한것으로 알고 기뻐하시는 그이께 무슨 말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캄캄하기만 하였다. 그렇다고 그냥 입을 다물고 서있기만 할수도 없었다. 그는 그이의 너그러운 품을 생각하고 용기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깃든 어두운 고뇌의 그림자를 어느새 그이께서 먼저 알아보시었다.

《엄동무, 왜 그러니까? 이변에 혹시 관성단차와 관성렬차같은것을 못해결해가지고 온게 아닙니까?》 하고 그이께서는 걱정스레 먼저 물으시었다.

《예, 그런 비싼것들은 해결 못했습니다.》 엄석민은 머리를 떨구었다.

《그럼 내가 본 사진들은 어떻게 된겁니까?》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유희기구들을 전부 찍은것인데 찾으실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사진이야 백장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주문을 더 받아주지 않아 그랬습니다.》

엄석민은 그 나라에 가서 있었던 일을 보고드렸다. 그 나라의 유희기구회사들은 왜서인지 처음부터 주문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번 면담을 제기하였으나 회사 사장들은 전혀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역원들도 매번 그와 마주았을 때마다 값이 낮은 일반유희기구는 주문받으면서도 관성단차나 관성렬차같이 고급하고 비싼것은 외면하군하였다.

《그래 그들이 무엇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엄석민의 보고를 들으시고나서 의문에 차신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때문인것 같습니다.》

《적대시?》 그이께서는 리해가 가지지 않는듯 반문하시었다. 《그 나라 정부는 그렇다치고 실업가들이야 무엇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러시고는 잠시 생각해보시듯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물으시었다.

《<관문점사건>이 일어난후에 면담을 계속했습니까?》

《이미 년불로 계약한 여섯가지마저 취소시키자고 하기때문에 관성단차량은 두세번 더 해보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모든것이 리해되신 듯 더 묻지 않으시었다. 무엇인가 실망하시는듯한 안색으로 석민의 넓은 어깨와 팽팽한 앞가슴을 보시다가 평양 시내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사동벌너머에서 아침노을이 타올랐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동안 그쪽을 향해 서 계시다가 엄석민에게로 다시 돌아서시었다.

《엄동무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전에 곰과 싸워 이겼다는것이 사실이긴 합니까?》

유희기구를 전부 해결해가지고 오지 못한것으로하여 커다란 죄책감에 싸여있던 석민은 뜻밖의 물음속에 고개를 들었다. 그이께서 왜 갑자기 그것을 물어보시는지 의아하기만 하였다.

그러한 그를 보시고 그이께서는 미소를 띠우시었다.

《외국출장에서 돌아와 밤을 새운 동무에게 사업적인 이야기만 시켜 안되었습니다. 산보를 나왔으니 즐거운 얘기가 합시다. 어디 곰과 싸운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래 어느만한 곰과 싸웠습니까?》

《예... 한 백키로쯤 되겠는지...》

《어서 말하십시오.》 그이께서는 호기심을 보이며 재촉하시었다.

《저... 그때 저와 우리 집사람은 수로공사장에서 일했었습니다.》 엄석민은 그이의 미소에 끌려 긴장해졌던 마음을 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저는 굴진공을 하고 집사람은 압축기운전공을 했습니다. 합숙과 강사이의 거리가 15리여서 우리는 매일 함께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압축기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퇴근하였는데 얘기에 정신을 팔다가 가까운 앞에 곰이 나타난것을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벌써 도망칠 거리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갈라지며 누워 죽은척하자고 했습니다. 곰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녀자들이란... 글썽 곰이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냅다 뛰지 않겠습니까. 곰이 그를 보고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벌떡 일어나 곰을 따라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엄석민은 그이의 요구여서 응하긴 하면서도 게면쩍은 생각이 들어 실한 목을 손바닥으로 문다 지었다.

《그래 그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런 얘기를 무슨 다...》

《흥미가 있습니다. 어서 마저하십시오.》

《그러시다면... 제가 뒤따라가며 소리치니 곰이 란놈이 똑 서서 앞발을 쳐들고 소리나는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뒤로부터 달려

들어 곰의 목을 두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곰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전 팔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집사람한테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뛰어왔을 때까지 그렇게 곰과 맞붙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찌나 곰의 목을 세게 끌어안았던지 곰이 사람들한테 맞아 쓰러진후에도 겨우 풀었습니다.》

《정말 담이 보통아니였겠구만. 하긴 사랑은 죽음도 이긴다니까... 그런데 그런 담력이 이제는 다없어진게 아닙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볍게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 ...》 지난날의 회상으로하여 얼마간 기분이 풀렸던 엄석민은 그이께서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이 있으리라는것을 감촉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엄석민의 팔굽을 잡고 승용차가 있는 길쪽으로 걸음을 떼시며 말씀을 꺼내시었다.

《엄동무, 미제놈들이 지금 몹시 갈개진 하지만 우리한테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갈개는것은 원래 그놈들의 버릇이 그런것이고 이번에 <관문점사건>을 계획적으로 조작해가지고 그 도수를 높이는것은 한번 허장성세를 부려보느라고 그러는것입니다. 설사 덤벼든다 해도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수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있는데 뭐가 무서울게 있습니까. 자기 당, 자기 인민의 힘을 믿으면 그 어떤 적도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적들의 발광이 심할수록 우리는 시작했던 일들을 더 줄기차게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놈들이 정 갈때 한번 파웅하고 소리치면 됩니다.》

그이의 확신에 찬 우렁우렁하신 목소리가 메아리를 일으키며 대성산의 고요한 아침을 깨우듯 흔들었다.

그이의 말씨는 석민의 가슴에도 세차게 메아리쳤다. 그 어떤 정세의 면회에도 바위처럼 끄떡하지 않으시는 그이의 굳센 의지와 신념이 그의 흥벽을 세차게 두드리었다.

그이께서 지니신 담력이야말로 얼마나 이 새벽과 같이 무한대하고 자신의 위업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되어있는것인가! 그러한 담력을 이 세상 그 누가 또 지닌적이 있었던가.

실로 잊을수 없는 새벽이었다. 이것은 인류사에 영원히 기록될 새벽이라고 엄석민은 생각하였다.

그는 온몸에 차오르는 자신심과 그 어떤 견잡기 어려운 세찬 충격을 느끼면서 그이의 앞으로 한걸음 힘차게 나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고 그는 말씀드렸다. 《제 다시 갔다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관성단차량 다 사오고야말겠습니다.》

《됐소! 난 엄동무가 꼭 그렇게 나오리라 믿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무하시듯 엄석민

의 팔굽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시었다.

3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획하셨던대로 이날 아침 첫시간에 도당책임비서들의 협의회를 지도하시었다.

도당책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이하기 위해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밝혀주시는 그이의 말씀을 신심에 싸여 받았다.

그이께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데 번하여 말씀하시고났을 때였다.

부관이 회의실 옆문으로 조용히 들어와 그이께 한통의 문건을 올리였다. 도당책임일군들은 무슨 급한 문제일가고 생각하면서 숨을 죽이였다.

문건에 시선을 달리시던 그이께서 도당책임일군들을 향해 랑해를 구하시였다.

《동무들, 협의회를 잠깐 중단합시다. 다른 한가지 중요한 문제를 먼저 토론해야겠습니다.》

그러시고는 서기에게 엄석민이 있는가고 물어보시고 그를 들여보내라고 하시였다.

방에 들어선 엄석민은 그이께 다가가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방금전에 받은 전보내용을 말씀드렸다.

《그 나라에서 주문받았던 여섯가지 유희기구마저 계약을 전부 취소한다는 전보가 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랬지만 그의 말은 도당책임일군들의 귀에까지 다 들리였다. 유희기구라는 말에 그들은 저마다 놀람과 의아함을 숨기지 못하고 서로들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문득이 엄석민한테로 시선을 모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방금 보신 문건을 집어들고 흔드시며 엄석민에게 물으시였다.

《그래서 그 나라에 다시 갈것을 포기하고 판매가보겠다는겁니까?》

《부서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다시 가자면 정세가 완화된 다음에나 가야지 안될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는것으로 엄석민의 말을 단호히 부정하시였다.

《동무들이 왜 내 심정을 그리 몰라줍니까? 명년이 어떤 해입니까. 수령님께서 탄생 65돐을 맞이하는 해가 아닙니까.》

나는 명년에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으며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고급옷과 학용품일식을 수령님의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년에 현대적인 유희장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선물할 결심입니다.

그런데 적들의 발광이 심하다고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 교섭한다거나 정세가 완화된 때를 기다려 그 나라에 가서

는 명년에 유희장건설을 완공할수 없습니다.》

그이의 말씀은 매우 절절하시였다.

한 도당책임비서가 키를 우뚝 솟구며 일어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유희시설들이 어떤 건지 저희 도에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를 뒤따라 다른 도당책임비서들도 련이어 일어났다.

엄석민은 그들쪽에 고마운 눈길을 보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을 미덥게 보시였다.

《우리 로동계급이 물론 해낼수 있을겁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시일을 보장하기 곤란합니다. 실계를 하고 장비를 갖추자면 시간이 걸립니다. 다량 생산할것도 아닌데 사오는것이 더 빠르고 낫습니다.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인민들을 위해 우리가 당자금을 마련해왔는데 그것을 아꼈다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이렇게 리해시켜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러시고는 길게 생각할것도 없으시다는듯 말씀하시였다.

《대성산에서 결심했던대로 그 나라에 그대로 당장 가야겠습니다. 가서 겸장을 쳐야겠습니다.》

《예? 겸장말입니까?》

《내가 보건대는 계약했던것마저 취소시킨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때문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미제놈들의 전쟁책동에 겁을 먹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돈을 충분히 가지고 가시오. 가서 우리가 유희기구를 년불로 사는것이 아니라 즉시지불로 그것도 일식으로 몽땅 사가기 위해 왔다는것을 크게 광고하시오.》

《알았습니다!》

엄석민은 신심이 차올라 힘찬 대답을 드리며 그이를 우려했다. 그는 그이께서 지니신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거대한 정신력과 그것으로하여 그 어떤 불의의 장애도 단칼에 쭉 갈라헤치시는 그이의 비범하신 용단을 다시금 커다란 흥분속에서 받아안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를 문밖까지 배워주시였다.

《한번 가서 통이 크게 해보시오. 끝까지 잡은 담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석민의 어깨를 잡고 거둬 당부하시였다.

《이번에는 문제없습니다!》

엄석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가슴을 쭉 펴 보여드리고 떠났다.

×

10여일후 엄석민이 간 나라의 통신과 신문, 방

송들은 세계를 향해 경이에 찬 보도를 날리었다.
 《북조선은 판문점사건에 유희기구구입으로 대답》
 《북조선은 자기의 드림없는 신념을 다시금 과시》

한편 엄석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령도자로 모시고 사는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며 자기의 숙소로 앞을 다투어 찾아온 유희기구회사 사장들과 가진 만족스러운 면담결과를 조국에 전화로 알리었다.

생명수

박장화

세상에 태어난 그날부터
 내 지금껏 마시며 살아온 물이
 이렇게 목메인것인줄 몰랐노라
 이렇게 뜨거운것인줄 몰랐노라

우리 무역선이 돌아오는 항로를
 지도에서 손수 짚어보시며
 선원들을 넘려하시던 지도자동지
 수송선가득 조국의 단물을 보내주셨으니

너무도 귀한 물이어서
 너무도 큰 사랑이어서
 두볼을 타고내리는 눈물만 삼킬뿐
 누구도 선뜻 마시지 못하여라

한여름에도 얼음물처럼 이발이 시린
 향나무가지 드리운
 고향집의 정가로운 박우물과 함께
 뻗꼭새소리 구성진 산촌이 떠오르고

출항의 그날
 고추장까지 보내주신 다심한 사랑
 친애하는 그이의 정겨운 시선이
 우리 몸 해빛처럼 쓰다듬어주시고...

진정 두손에 받쳐든 이 물엔
 바다를 채우고도 남을 사랑이 어리고
 하늘을 채우고도 남을 그리움이 넘쳐
 내 마음은 하늘땅을 다 받아안은듯!-

아, 만리대양우에 배길이 열려
 무역선이 오가기를 수천수만번
 그 기나긴 대양의 력사에
 언제 이런 사랑의 전설이 있었던가

먹을 물이 없어 숨진 사람들
 갑판에 돋은 한방울의 밤이슬에
 타는 입술을 대인채 숨진
 그런 비극들은 있었어도

몇명의 평범한 선원들을 위해
 물을 싣고 위도와 경도를 넘은 배는 없었거늘
 하늘에서 내린 물이 아니여라
 땅속에서 솟은 물이 아니여라

만리대양북판에 꿈같이 솟아오른
 위대한 사랑의 오아시스!
 이것은 친애하는 그이품에 시원을 둔
 세상에 단 한줄기, 우리의 생명수여라!

향도의 태양

문상봉

날이 밝는다. 복판은 이 강산에 2월의 경사스러운 명절이 왔다.

이날을 기다리던 만민의 환호인가 아득히 설레이는 천리수해, 잊지 못할 추억의 노래이런가 소백수의 유정한 여울물소리!...

이깔이며 천나무아지들에 피어난 눈꽃, 서리꽃은 신비론 환상속에 백두광명성전설을 아로새기고 밀림속의 오솔길 어느 풀 한포기를 보아도 새날을 불러온 력사의 자욱들이 눈에 삼삼한 혁명의 성지, 유서깊은 소백수팔안에는 봄서기가 한껏 어려있다.

오늘따라 그 모습 더욱 숭엄하게 안겨오는 백두산! 그 련봉들에서 뿜어올리는 열기인양 하늘가에 붉게 타는 아침노을!...

온 누리를 한층 더 황홀하게 빛내이며 태양이 솟는다. 정일봉의 장엄한 해돋이가 시작되었다.

오, 밝은 태양
너는 아름답다
하도 그 빛발 찬란해
...

인류는 태고적부터 태양을 무엇보다 숭배하였고 그 거룩함을 찬미하여 수많은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태양의 속성인 빛과 열이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자양이며 또 태양처럼 뜨거웁고 빛나게 사는것이 삶의 목적이였기때문이라.

허나 인간은 이 아름다운 지향과 념원을 쫓아가지 못하고 수천년의 세기적잠속에서 꿈으로만 그려왔다. 엄혹한 자연과 사회의 어두운 질곡이 걸음마다 앞을 막았기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옛사람들은 하늘의 해를 우상으로 받들고 《태양신》에 운명을 의탁하기도 했던것이다.

세월이 가고 력사가 뒤채일수록 그 우상은 점점 빛이 바래여졌고 열렬한 숭배심도 분출뒤끝의 화산처럼 식어갔다. 물질세계의 유일한 주인으로, 력사창조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지 못하였던 인간은 여전히 자연앞에 무력하였으며 사회의 질곡에서 벗어날수가 없었다.

인간세상에는 착취와 억압의 질은 그들이 오래동안 드리워져갔다. 소수인 무위도식자들이 다수인 근로인민을 억누르며 주인행세를 하였고 극단한 개인주의와 약육강식의 생활풍조가 여기저기서 악취를 풍기며 지구를 어지럽혔다. 지어 어떤 인간들은 본래의 아름다운 지향과 념원을 쫓아버리고 다시 동물화되어가는 타락의 길을 걷고있었다.

하늘중천의 해도 이 세기말적인 현상을 외면하여 빛을 거두었으며 력사는 진공속에서 숨이 막혀 허덕이었다.

압제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근로인민은 검은 구름에 가리워지고 부패물로 오염된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해방의 구성을 애타게 기다렸다.

과연 수수천만년 기원해온 인간의 참모습, 세계의 주인으로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지향과 념원을 꽃피워줄 그런 태양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력사적사명, 시대의 절박한 요구, 인류의 세기적숙망을 다 안고 불세출의 태양이 누리를 밝히며 솟아오른곳은 조선이었다.

예로부터 《해쑤는 밝은 아침의 나라》로 널리 알려진 조선은 오늘 태양이 빛나는 나라로 동방일각에 우뚝 솟아 세계만방에 그 이름 떨치고있다.

어찌보면 이것은 아득한 태고적에 벌써 오늘의 조선을 예언하여 그런 표현들이 생겨났고 삼천리이 강산이 그런 행운의 땅으로 지구상에 부풀어올랐는지도 모른다. 이 력사적일치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의미를 느끼게 되는것이다.

사실상 조선은 20세기초엽에 위대한 주체의 태양을 맞이하였다면 20세기 중엽에 찬란한 향도의 태양을 맞이함으로써 인류가 우러르는 태양의 나라로 되었다.

인류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내세워주고 인간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준 주체의 태양 **김일성**동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 필생의 사명을 안고 세기를 주름잡으며 광휘로운 미래에로 인류를 이끌어가는 향도의 태양 **김정일**동지!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성스러운 위업은 대를 이어 끝까지 수행할 혁명위업이다. 세대교체과정을 동반하는 로동계급의 기나긴 투쟁로정에서 진보적인류가 안고 모태겨온 고민은 혁명위업의 계승과 완성 문제였다.

혁명위업의 계승과 완성! 이 문제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빛나게 해결되어 온 세상의 눈길과 시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의 필생의 사명은 우리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것입니다.》

력사의 갈피를 들춰보면 한때 희망에 넘쳐 번영의 길을 걷던 민족이 뜻밖의 재난에 부딪치자 침몰하는 배처럼 흔적없이 사라진 사실도 있었고 자기의 전도를 띠고 찬란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던 혁명이 역경에 맞닥뜨리자 비판하여 주저 않은 실례도 있다.

어찌 그뿐이라. 인류의 이상사회를 향하여 수십년동안 사회주의보루를 쌓아올리던 나라들이 대를 똑똑히 잇지 못한 관계로 광풍에 흔들리고 사분오열되어 오늘은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을 말아먹는 추태까지 빚어내고있다.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과 혁명들에는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어떤 조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날을 확신케 하는 절대적 원동력, 삶의 구심점, 향도의 빛발이 없었기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세상에 《홍망성쇠》란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성스러운 주체위업의 완성으로 시대를 이끄시는 희세의 향도자이시다.

조선의 봄이 제작되는 력사의 2월.

백두성산에서 태양의 승고한 뜻을 이어받으며 탄생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높이 추대한것은 자주시대, 주체시대의 가장 큰 력사적사변이었다.

시대의 방향타를 역세계 틀어쥐시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워 누리를 밝히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거대한 실천으로 세기적기적을 창조하시어 우주를 놀래우시며 인류에게 휘황찬란한 미래를 안겨주신다.

하여 오늘 이 땅에는 먼 앞날까지도 우리 후손들이 룡성변영할수 있는 기쁨이 든든하게 마련되었고 주체조선의 위력과 잠재력은 날로 커져 세세만년 부흥을 노래할 사회주의락원이 꽃피나고있다.

이름난 음악가이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애국인사 윤이상은 이렇게 말하였다.

《...평양에 울적마다 몰라보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면 조선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그마한 나라가 거창한 건설을 하자니 부담도 많고 힘이 들겠지만 조국의 건설모습을 보면 젊음이 되살아나고 공지가 솟구칩니다.

나는 해외에 나와 남의 나라땅에서 살면서 놀라웁게 변모되는 조국의 건설모습을 보는 과정에 공화국에 내가 바라는 땅, 죽어서도 내가 묻혀야 할 땅이 있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소용돌이와 지향의 일시적좌절에 부대끼며 향방을 잃은 사람들이여! 예 와서 보시라. 해쫓는 맑은 아침의 나라를 찾아오시라.

온 강토에 차고넘치는 생기발랄한 기상으로 하여 인간의 삶은 해빛처럼 빛나고 자연도 사회도

이 땅의 모든것이 사람들의 창조적열정으로 하여 봄날의 화원처럼 무르녹아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나라! 이른바 세계를 창조했다는 《조물주》도 만들어낼수 없는 현실속의 무릉도원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꾸시며 자래우신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 어디서건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면 어머니를 뵈는것처럼 다정함을 느끼며 그 품에 한번 안기면 무서운것, 고통스러운것, 힘든것을 모르고 만시름을 놓게 되는것이다.

이 운명의 시작도 끝도 오직 그품속에 있는 우리여서 이렇듯 행복감으로 가슴이 부풀었는가. 이아침 한껏 들린 저 하늘이 그리도 황홀하고 그리도 창창한가...

꺼질줄 모르는 빛과 열로 만물을 보살피는 향도의 태양!

한없이 위대한 그 품이 있어 가장 어려운조건에서 가장 들끓는 창조와 빛나는 번영을 안아온 조선혁명의 영광찬란한 새 시대가 인류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질수 있었다. 한없이 따사로운 그 품이 있어 인민들은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없이 참된 삶을 꽃피우고 제국주의를 쓸어버릴 우리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한다.

참으로 우리 민족과 인류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향도의 태양으로 맞이한것은 시대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이다. 이것은 주체의 태양이 빛나는 나라에서 또 다시 향도의 태양을 맞이한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특전이며 행복이기도 한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인간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주체위업에 쌓아올리신 불후의 업적, 혁명대오안에서의 절대적인 권위로 하여 그이의 존칭을 향도의 태양으로 영원토록 높이 부르고싶은것이 우리 인민의 열망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주체위업의 유일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향도의 태양으로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를 강화발전시키여 공산주의를 앞당기는 여기에 세세만년 길이 흥할 민족의 존엄무궁토록 번영하는 조국의 미래가 있다.

위대한 인간을 알려거든 먼저 위인의 초상을 보라는 말이 있다. 누구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처음 뵈는 사람이라면 그이의 뛰어난 인격적매력에 자신을 잊는다고 한다.

서글서글하신 그이의 눈길에는 언제나 위대한 영재의 깊은 사색이 비껴있고 천길속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보는 신비론 예지의 불빛이 번쩍이고 있다.

열정이 넘치는 그이의 안팎에는 거대한 사장이 담겨있고 온 우주가 새겨져있다.

순간에 사람을 매혹시키는 자애로운 미소, 소

달하고 우렁우렁하신 음성, 위인의 예지와 기지가 가득차넘치고 총명과 영특이 번뜩이는 환한 안색, 짙막한 말쑥한마디에도 천지를 헤가를 기백과 담력이 넘쳐나는 중령... 한마디로 그의 존귀하신 영상은 아침해처럼 눈부시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친애하는 그의 초상화를 뵈옵고 《**김정일**비서선생님의 인격만으로도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고 하면서 민족적자부심을 금치 못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사람들이 그이께 완전히 매혹된것은 떠오르는 아침해처럼 준수하신 인격만이 아니였다. 보다 위대한것은 사상의 숭고성과 투철성, 원대성이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초석을 이룬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그의 령도적자질,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서의 가장 숭고한 천품이며 투철한 정신이며 원대한 지향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원대한 구상과 뚜렷한 목표의 제시는 로동계급의 령도자에게 첫째가는 사명으로서 된다.

자연과 사회를 인간의 요구에 맞게 변혁하는 사업은 거창한 혁명이다. 그 어떤 감상적인 웨침이나 제멋대로의 편력이 아니라 원대한 구상과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참다운 위업인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드시고 혁명위업계승의 첫자욱을 떼신 그때부터 주체위업완성의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로선과 전략, 방법과 전술에서 철저한 우리 식! 이것이 바로 그의 모든 사업에서의 출발점으로 된다.

조선을 통해 세계를, 조선혁명을 통해 세계혁명을! 모든 사색과 창조의 바탕을 세계와 전인류적인것에 두고있음으로 하여 주체위업은 더욱 성스럽고 위대한것 이다.

우리가 혁명의 진두에서 붉은기발을 휘날리고 우리가 시대의 령마루에서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며 우리가 력사의 중심에서 세계혁명에 이바지해야한다는 주체적관점! 이는 그이께서 혁명투쟁에 대하시는 투철한 립장이며 자세이다.

우리 혁명위업의 본질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리론! 이는 주체위업의 중궁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필승불패의 화불이고 혁명과 건설에 나선 모든 투사들과 근로인민의 유일무이한 투쟁의기치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활동에서 기초로 되는것이 주체의 사상체계라면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이며 그 특징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라고 한

다.

비범한 예지와 고유한 천재적기질과 풍부한 지성으로 하여 그의 사상리론활동은 국제적으로 고금동서에 류례없는 일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에는 사고와 인식의 한계를 뛰어 넘은 사상리론의 천재가 있다. 그이는 존경하는 **김정일**비서이다.》

이것은 세계도처에서 들려오는 학계와 정계의 목소리이다.

사고력의 신비성과 탐구의 립체성! 과학적인 예견성과 통찰력의 정교성! 탐구의 심오성과 기억력의 섬세성!...

참으로 주어진 시간당 사고와 인식, 활용능력과 재능에 있어서 특출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지략, 뛰어난 기질과 슬기는 이 세상의 명망높은 못사상가들과 제노라하는 리론가들 그리고 지성인들을 끝없이 경탄시키고 있다.

특출한 사상은 활자와 전파로 세계를 지배한다고 어느 책에 써여있다. 하다면 이처럼 비범한 예지와 지략, 풍부하고도 다방면적인 지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의 사상리론은 어떻게 표현해야 옳겠는가?

력사는 서슴없이 말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상리론은 그대로 삶과 투쟁의 참된 기치이며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대강이며 인류의 리상과 념원을 활짝 꽃피우는 해빛이라고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상리론의 대가이실뿐아니라 주체위업을 필승의 길로 이끄시는 령도예술의 영재이시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완벽하게 체득하시고 놀라운 정력과 비상한 열정으로 혁명실천에 혁신적으로 구현해나가신다.

필요한것이면 불가능도 가능한것으로 전환시키는 비범한 혁명적전개력!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정지와 실수가 아니라 오직 비약과 진군, 승리만을 안아오는 무비의 담력! 근로인민대중의 잠재력을 투쟁대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으로 승화시키는 걸출한 령군술! 조선과 세계의 모든 움직임을 한눈에 굽어보는 천리혜안!...

이처럼 뛰어나신 그의 령도예술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령도자만이 지닐수 있는 으뜸가는 자질인것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최대한 발양시키는 것이다. 그러자면 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충족시키고 창조적능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는 옳바른 로선과 방침, 투쟁구호, 방도와 묘술을 밝혀주어야 한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생

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모두 다 속도전 앞으로!》, 《우리 식대로 살아가자!》,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거창한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며 지난 세대들을 달려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뿌듯한 자랑을 안고 되새겨보는 이 혁명적인 구호!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내놓으신 이 유명한 구호들에는 력사발전의 매 시기를 창조와 건설의 일대 양양기로 전변시킨 그이의 위대한 령도업적이 그대로 집약되어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손길이 가닿으면 사소한것도 거대한것으로 존재가치를 빛내이고 그이의 눈길이 미치면 평범하던것도 위대한것으로 본래의 의미를 달리하며 그이께서 결심하시면 기존관습으로 잠자던 분야에서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되고 시대의 기념비가 하늘높이 일떠선다.

이미전에 스리랑카신문 《아일랜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었다.

《...거창한 변혁의 뒤에는 언제나 유명한 위인이 서있다. 조선의 이 위대한 현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독특한 인류사적인 령도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꽃피난것이다...》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하고 특출한 령도는 이 땅에 주체시대의 새로운 대전성기를 안아온 태양의 견인력이였다.

예로부터 정치와 민심이 같으면 나라가 운이 터서 흥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이 일거나 망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강요의 산물이거나 맹목적인 추종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우리 식 사회주의인간관계이다. 세상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이라고도 한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이며 이것이 바로 혁명의 주체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특징짓는 이 독특한 생활기풍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가 맺은 고귀한 결실이며 그 위력은 날을 따라 커지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지니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고 한다. 위대한 사랑은 위인의 품에서만 참된 삶의 온기로 태어날수 있다. 이 위대한 사랑이야말로 인간을 행복의 절경으로 올려세우는 태양의 열기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공산주

의적사랑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인민대중에게 한없이 뜨거운 은정을 베푸시는 자애로운 태양이시다.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투쟁의 사명이며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정신은 그이의 삶의 총체이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못별을 따서라도 행복의 화원을 펼쳐주려는 태양의 위대한 사랑!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간세상의 모든것이 근로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그 열정! 혁명전사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어 백절불굴의 투사로 키워내는 그 무한대한 사랑의 열도를 어찌 저 하늘에서 뜨고지는 천체의 태양열에 비기랴!...

하기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외국의 한 정객은 인상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놓았다.

《영명하신 **김정일**각하는 위대한 인간이시다. 그이의 인간애는 우주상에서 제일 뜨겁다는 태양의 열도보다 더 뜨겁고 대양에서 제일 깊다는 필리핀해구의 심도보다 더 깊으며 세상에서 제일 살뜰하다는 어머니의 손길보다 더 세심하다.》

사랑은 내리고 충성은 오른다는 말이 있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것은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불러주는 령도자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이다.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고 전사는 시대의 기수, 대오의 나팔수, 혁명의 전위투사로 위훈과 용맹을 떨친다.

사랑과 믿음에는 신념과 의리로 보답하는것이 우리 시대의 인간률리이다. 사람은 한번 다진 신념, 한번 맺은 의리를 지킬줄 알아야 한다. 굳센 신념과 뜨거운 의리가 있는 사람만이 준엄하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동지들 사이의 신념과 의리를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신다. 그이께서는 혁명적 신념과 의리가 있어야 수령관과 인생관을 똑바로 세우고 혁명적동지관계도 올바르게 맺을수 있으며 대오의 통일단결도 튼튼히 이룩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이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가르치심이다.

추세와 대세에 따라 쉽게 변하는 인간, 앞에서는 미소로 반기고 뒤에서는 골살을 찌프리는 인간. 그들은 인간의 허울을 쓴 속물들이다. 이런자들이 혁명의 양양기에는 《투사》로 둔갑하고 시련기에는 변절자, 배신자로 제 본색을 드러낸다. 력사는 이미전에 이런자들에게 준엄한 선고를 내리였다.

저 하늘의 해는 빛이 바래고 열이 식어질수 있다. 허나 인류가 맞이하고 높이 받들어올린 태양

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빛나고 그 열도가 높아질것이다. 인민의 아들로 태어나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을 깨우쳐 광휘로운 미래로 인도하는 태양의 주체위업은 영원불멸할것이다.

태양의 위업을 받들어 순간을 살아도 값있고 뜨겁게 살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한생을 아름답고 빛나게 살자! 바로 이것이 오늘 시대와 력사앞에 다지는 우리들의 선서이며 심장의 불타는 맹세이다. 바로 이것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우리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리이다.

아, 2월의 백두산에서 높이 솟아올라 인간의 참된 삶을 꽃피워주고 찬란한 미래를 펼치여주는 향도의 태양! 그 눈부신 빛과 뜨거운 열의 은혜로움이여! 주체의 태양을 이어 인류력사에 쌓은 업적, 이제는 충충구만리 창공으로 아아히 치솟았거니 천만의 붓끝을 움직인들 어찌 그 위대함을 다 노래할수 있으랴!

해빛은 누리를 더욱 눈부시게 비치고 귀전에 들려오는 소백수 여울물소리 예이제 변함없이 유정한데 백두성지의 만년초석우에 서있는 고향집은 너무도 수수하였다. 그 수수한, 봄서기가 한껏 어린귀틀집마당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대하처럼 흘러들고있다. 끝없이 끝없이!...

김정일 그이는 영원한 북극성

김도훈 뽕 클로매르

김정일 그이는 20세기의 영재

그 언제 인류가 본적 있었든가

음악과 무용 가극 예술의

오늘같은 찬란한 개화를

김정일 그이는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자주의 길 밝히는 조선의 북극성

김정일 그이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

불멸의 사상리론으로 앞길 밝혀주시네

김정일 그이는 통일된 조선의 희망

주체의 혁명사상으로 인민들을 고무하시여라

오, 향도의 별 **김정일**

그 이름 통일된 조선의 력사에 금문자로

새겨지리

주체의 빛발아래 빛나리

오 **김정일** 그이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영명하신 지도자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신분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선의 영광 영원하리

김정일 그이는 인민대중의 친근하신 벗 인류의

자랑

압박받는 인민대중의 열렬한 옹호자이시여라

김정일 그이는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평화와 사회적 정의의 단결을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마를줄 모르는 정신적량식을 주시여라

김정일 그이는 문학과 예술의 영재

세계 피압박인민들 영광의 노래드리네

가장 뜨거운 인사드리네

우리 언제나 그이와 함께 있으리

(필자는 베닌 상급전자기술자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우리 문학이 누리는 최대의 영예와 특전

최길상

문학은 시대와 생활을 반영한다.

위대한 시대와 생활이 남긴 뚜렷한 흔적이 없
이 시대를 빛내이는 문학작품이 나올수 없다.

인류문학의 발전력사를 놓고보면 역사에 확고
한 자취를 남기고 전해지는 문학작품은 레외없이
거창한 시대와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시대와 생활은 위대한 인간이 창조한다.
위대한 인간이 없이 위대한 시대와 생활은 있을
수없다. 그러므로 문학은 바로 위대한 시대와 생
활을 창조하는 위대한 인간을 그림으로써만이 시
대를 빛내이는 위대한 문학으로 될수 있다. 이것
은 어느 역사적 시대, 어느 민족에나 다 차례지
는것은 아니다.

위대한 시대의 전진을 이끌고 령도하는 위대한
인간의 출현을 맞이한 시대의 작가와 민족만이
위대한 문학을 창조하는 영예와 특전을 누릴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주체문학이 누리는 최대의 영예
와 특전은 어디에 있는가.

1

우리 문학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
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
을 형상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는 본보기로, 수령의 혁명위업에
적극이바지하는 문학으로 그 위력을 과시하며 승
승장구할수 있었다.

이것은 주체문학의 위대한 향도성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우리 문학만이 누릴수 있는 영광이며 긍지이고
자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조국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
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대를 이어 계속되
는 혁명위업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
학을 건설하는 사업도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리론, 업적을 견
결히 고수하고 드팀없이 계승하는 수령의 후계자

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영광을 지님으로써 우리
문학의 영원한 생명선을 굳건히 담보하는 역사적
위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문학이 시대와 역사 앞에 지
닌 숭고한 사명이 있고 우리 문학이 누리는 최대
의 영예와 특전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형상
하는것이 우리 문학이 누리는 최대의 영예와 특
전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성을 생명으로 하
는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의 본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
가는 개척자의 영예를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었
기때문이다.

우리 문학은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
시자이시며 20세기 인류가 낳은 걸출한 영재이시
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형
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문학
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사회주
의, 공산주의 문학을 건설하는 역사적위업을 수
행하는데서 불멸의 리정표를 세워놓았다. 그리하
여 우리 문학은 혁명문학의 참다운 기치로 되었
고 선구자로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
는 영예를 지님으로써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 공
산주의 문학 건설에서 또하나의 빛나는 리정표를
세웠으며 수령의 혁명위업의 계승자의 형상을 창
조하는데서도 개척자의 영예를 계속 지니게 되었
다.

이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
하는 문학,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의 명맥을 굳건
히 이어나가는 문학을 건설하는데서 우리 문학이
누리는 또하나의 무상의 영광이며 자랑이다.

또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그리게 됨으로써 우리 문학이 인류문학과 유구한
민족문화사에 가장 빛나는 자욱을 새길수 있게
되었기때문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력, 고매
한 품모를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 수령이 개척

한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간다. 그러므로 수령의 후계자도 수령이 지니고있는 위대성을 그대로 체현하고있어야 한다. 수령의 사상과 혁명위업이 위대할수록 그 후계자도 위대한것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사상과 이론의 위대성, 탁월한 령도의 위대성,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덕성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그리는 영예를 계속 누리게 되었으며 시대와 력사앞에 빛나는 모범을 남길수 있게 되었다.

우리 문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시대적요구를 구현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장장 반세기의 투쟁로정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는것이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라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고있으며 위대한 령도자를 언제나 몸가까이 모시고 뵙고싶어하는것을 절대적인 소원으로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여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는것을 가장 큰 민족의 긍지로 간직하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정은 날을 따라 더욱 두터워지고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등대와도같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여나가시며 사회주의기치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령도하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뵙고싶어하고 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문학의 화폭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날이 갈수록 도도히 굽이치며 끓어오르는 인민의 이 열망을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

2

탁월한 령도자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영예롭고 숭고한 창작사업이면서 또한 미학실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우리 문학은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원칙들과 리론실천적방도를 명확히 밝히준 주체적문예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형상문학의 새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영원한 본보기를 마련하여 혁명문학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이 찬란히 빛나고있기에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하는 숭고한 위업수행의 길을 빛나게 걸어나갈수 있었다.

우리 문학은 이미 장편소설들과 장편서사시 등 큰 형식의 작품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고있으며 수많은 단편소설들과 시가작품들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창작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한 문학작품들에서 뜨겁게 고동치고있는것은 우선 위대한 향도성을 모신 우리 인민의 환희와 긍지, 흠모의 감정이다.

작품에 세차게 일렁이는 이 환희와 긍지, 흠모의 정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였기에 주체위업의 휘황한 앞날을 가지게 되었을뿐아니라 그 승리의 날을 확신성있게 앞당기고있는 인민만이 가질수 있는 환희와 긍지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서 전당과 온 사회를 하나의 숨결로 높뛰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일심단결의 불패의 위력을 이룩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힘, 독창적인 사상, 리론, 방침에 담겨진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샘과도 같은 예지,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을 한손에 틀어쥐고 어느 한분야도 빠짐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비상한 속도로 혁신과 비약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도록 이끄시는 탁월한 령도,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버이라 부르며 그 품 떠나 살수 없다고 목메여 노래하는 자애로운 인민의 지도자.

참으로 우리의 작품들에 맥맥히 흐르는것은 이 모든것을 심장으로 온 념으로 체득한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며 이러한 향도성을 받들게 된 크나큰 행복이며 자랑이다. 이것은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이다.

이 전인민적인 환희와 긍지, 흠모의 정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있는것이 시가문학이다.

시가는 시대의 축수이며 나팔수이다. 격동하는 시대일수록 시가는 더 높이 울리며 시대의 첨단에서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대변하여 세차게 메아리친다. 이것이 시대와 생활에 대한 문학의 반영에서 합법칙적인 형상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주체위업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지도자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전인민적감정을 노래하는데서 명가사들이 많이 창작된것은 특기할 사변이며 경사이다.

가사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김정일화》, 《그 품 떠나 못살아》, 《사랑의 미소》, 《남해가의 붉은 꽃》, 《빛나라 정일봉》 등 최근년

간에만 하여도 많은 명가사들이 창작되었다.

이 명가사들은 한결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신념과 의지, 념원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주도적 감정을 풍부한 서정속에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고요한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
내 마음 가는 그곳 너는야 알고있지
저기 저 불밝은 당중앙 창가에
긴긴밤이 지낸다고 한마디만 전하여주렴

가사 《밤하늘에 내리는 눈송이야》에서 서정적 주인공은 이처럼 송이송이 내리는 눈송이에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실어 뜨겁게 노래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이밤도 지새우시며 원대한 구상과 작전을 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께서 계시는 당중앙의 불밝은 창가를 우러르며 내리는 눈송이라든가 절절한 소원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서정적 주인공의 뜨거운 심정은 그대로 전인민적인 감정이며 시대의 념원이다.

가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끝없이 흠모하며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심정을 깊은 서정에 담아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끝없이 흠모하며 존경하는 시대의 감정을 깊은 정서로 노래하고 있는 가사 《**김정일화**》는 가사를 시로 되게 할데 대한 주체적문예사상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한 명가사이다. 가사는 **김정일화**라는 시적대상을 소개하거나 설명하는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환기된 감정정서를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을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그리워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처럼
이 강산에 붉게붉게 피어난 꽃송이
아 붉고붉은 충성의 **김정일화**
송이송이 어려있네 따르는 한마음

보는바와 같이 가사는 첫절에서부터 위대한 령도자를 우러르는 인민의 마음을 시적대상에 대한 정서적과악에서 흘러나온 서정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다. 충성의 **김정일화**를 위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모습으로 뜨겁게 감수하며 가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열렬히 흠모하며 존경하는 온 세상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대변하여 더욱 정서적으로 승화된다.

꽃잎을 바라보면 그 열정 안겨오고
푸른 잎새 바라보면 그 정기 어려오네
아 붉고붉은 충성의 **김정일화**
송이송이 그 모습을 가슴에 안고살리

온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축원담아
천만송이 곱게 피는 향기론 꽃송이
아 붉고붉은 충성의 **김정일화**
무궁토록 만발하라 내 나라 강산에

가사는 이와 같이 시적대상에 대한 시인의 정서적과악과 거기에서 받은 감정을 시인자신의것으로만 윤택시키지 않고 전인민적 시대적 감정으로 정서적으로 일반화하는데서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뜨거운 존경과 흠모의 정을 노래한 명가사들에는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서정적주인공들의 매혹된 심정이 진실하게 체현되어있으며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이 정서를 통하여 구현된것으로서 우리 가사문학의 혁신적 면모를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들이다.

우리 시가문학은 또한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령도하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그리고 인민에 대한 지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사랑을 서정시, 서정서사시, 서사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지니시고 무비의 담력과 통이 큰 작전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을 격동적인 화폭에 담아 형상한 서사시 《불타는 해》를 비롯하여 련속시집 《향도의 해발을 우러러》에 수록된 수많은 시 작품들과 주체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되려는 우리 시대 아이들의 감정세계를 노래한 련속아동시집 《온 나라 꽃봉오리 영광드려요》에 수록된 동요, 동시 등 주체위업계승의 빛나는 향도성을 노래한 수많은 시가작품들이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이리하여 우리 시가문학은 시대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작품창작은 소설문학을 비롯한 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크고작은 형식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풍모를 장편소설에 담아 서사시적화폭속에 깊이있게 보여주는 작품들이 훌륭하게 창작되어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하여주고있는 때에 최근에 장편소설 《불구름》을 비롯한 여러편의 장편소설들이 창작되어 세상에 나오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환희롭게 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지니시고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린 시절의 영특하신 모습을 형상한 장편소설 《불구름》은 제명에서 보는것과 같이 불구름속에

서 다져진 충성과 효성의 철리를 감동깊게 보여 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대한 충실성교양에 매우 의의있는 작품이다.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그린 수많은 단편소설들과 아동문학작품들, 희곡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당의 위대성 형상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한 작품을 더 활발히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3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우리 문학은 이제야 첫걸음을 땀대 불과하다.

시대와 생활의 위대성이 그대로 문학의 위대성으로 옮겨지는것이 아니며 사실의 감동성이 곧 문학의 감동성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작품의 소재가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때 그것을 체현한 예술이 오히려 사실의 감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에 부딪치는 때가 있다.

그것은 현실을 형상적으로 재현함에 있어서 사실에 대한 감동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는 깊이있는 미학적분석과 탐구가 없는에서 오는 결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은 로동계급의 수령의 후계자로서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높은 경지에 이르고있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벌리신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력사의 전로정이 힘있게 실증해 주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자로, 조선의 향도성,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탁월한 령도자의 품모를 다 겸비하시고 실로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의 위대한 자욱을 시대와 력사 앞에 력력히 새겨놓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력사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효성으로 일관된 력사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의 력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력사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의 력사이며 현명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 혁명대오의 위대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시며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고 빛내어나가시는 영명한 령도자의 력사이다. 또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수놓아진 자애로운 인민의 지도자의 력사이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위업의 후계자의 빛나는 귀감이시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령도자의 빛나는 형상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는 력사적위업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러자면 위대성형상전반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뜨겁게 체현시킴으로써 충신과 효자의 참다운 귀감, 수령의 후계자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참다운 후계자, 충신과 효자의 귀감을 형상적으로 보여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작품의 문제를 옳게 설정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도록 작품의 과녁이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의 숭고한 의무라는것을 수령과 인민, 수령과 전사간의 혁명적의리의 관계에서 작품의 기본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것이다.

이러한 기초우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데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신 충신과 효자의 귀감이시라는것을 생활적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생활적으로뿐아니라 원리적으로 체득할수 있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살고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위하여서는 자신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과 업적에 대한 태도는 충신과 간신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사람만이 수령에게 진실로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충신이고 효자이라고 말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바치시는 충신과 효자의 귀감이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 나가시는것을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세련된 령도로 그것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어가시는 탁월한 령도의 자욱마다에 뜨겁게 깃들여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게 문체성이 옹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형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지닌 후계자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령도풍모를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로, 흥정할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로 무조건 접수하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에서 기본핵을 이룬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풍모를 보여주는 작품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기본문제가 설정되고 형상의 모든 요소들이 이것을 예술적으로 해명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영예로운 일로, 삶의 요구로,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당과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지도자동지께서 베푸시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를 예술적으로 훌륭

히 재현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정치는 인류의 정치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인민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숭고한 정치의 본보기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치는 인민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데로부터 그들의 요구와 리익을 가장 견결히 옹호하며 철저히 실현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벌리고계시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민적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를 펴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보여주는것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주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시는 끝없는 사랑에 충성과 효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바쳐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는데서 비할바 없는 감화력을 가진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후계자의 형상을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형상적대를 바로세우고 창작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를 담보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근본문제이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작품창작에서는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주체적문제사상이 밝혀준바와 같이 수령형상문학은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창작되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후계자의 위대성을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형상하는 개척자의 영예를 지닌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성을 최상의 높이로 보장하는것은 수령형상문학의 위력을 보여주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는데 모든 창작적 탐구와 사색,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최상의 사상예술적높이에서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깨끗한 량심과 불타는 열정을 지니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깨끗한 량심과 불타는 열정은 참다운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의 기본품성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형상으로 받들고 관철해나가는 당의 문학, 당의

영원한 동행자의 문학이다.

우리 문학이 당의 문학, 당의 영원한 동행자의 문학으로 되자면 창작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인 작가들이 철저한 당의 작가,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로 되기 위한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순결한 량심을 가지는것이다.

당에 대한 작가들의 순결한 량심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을 가지고 당과 수령이 바라는 작품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훌륭하게 창작하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높은 사상에 술적수준에서 창작하기 위한 작가의 사상미학적 준비에서 기본은 지도자동지에 대한 깨끗한 량심을 가지는것이다. 그것은 주체위업의 향도성이시며 우리의 자애로운 스승이시고 어버이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 매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결한 마음이다.

작가들이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민족도 맞이하여보지 못한 참다운 로동계급의 수령의 후계자를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더우기는 문학예술의 비범하고 탁월한 영재를 스승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인류문예사상 가장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는 주체의 인간학을 창조하는 특전을 지닌 최상의 영예를 심장에 간직할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효성으로 불타는 순결한 량심을 지닐수 있다.

이러한 량심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하여야 작품에 작가의 매혹된 념이 뜨겁고 진실하게 체현될수 있으며 위대한 령도자의 풍모를 감동깊게 보여줄수 있다.

작가의 순결한 량심은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창작적열정을 동반하게 된다.

작품은 작가의 사색과 열정의 산물이다. 작가의 불타는 열정에 의하여 창작되지 않은 작품은 참다운 형상으로 될수 없다.

깨끗한 량심은 뜨거운 심장에서 연소되는 불타는 열정을 낳고 여기에서 나온 작품은 높은 형상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창작의 진리이며 법칙이다.

작가들의 불타는 창작적열정은 또한 왕성한 창작적욕을 힘있게 추동한다. 그러므로 당의 작가, 혁명의 작가는 당에 대한 깨끗한 량심과 함께 불타는 창작적열정을 지녀야 한다.

당에서 지금 모든 작가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수행하던 그 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창작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현시기 당의 요구를 창작과 생활에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바로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혁명적작가의 참다운 면모가 있다.

우리 작가들은 당에 대한 순결한 량심과 불타는 열정, 왕성한 창작적욕을 가지고 수령의 후계자의 빛나는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수령의 혁명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서의 주체문학의 위력을 더욱 파시하여야할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형상의 화폭으로 높이 구가하는 최대의 영예와 특전을 지닌 주체적인 우리 문학의 자량은 끝이 없다. 위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문학은 계속 승승장구할것이다.

가사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의 운명

안창만

천만전사 하나같이 붉은맹세 다지며

크낙한 그 품에 운명을 맡기었네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의 운명

우리 한생 지켜가는 조국의 운명

우리의 행복은 그 사랑이 꽃피주고

우리의 영광은 그 믿음이 지켜주네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의 운명

우리 한생 지켜가는 내 조국의 운명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우리의 심장은 하나로 고동치리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의 운명

우리 한생 지켜가는 내 조국의 운명

시조

내 그림던 정일봉 기슭에서

정동찬

내 그림던 정일봉 기슭에서

어느 봉일가
그리움을 안고 한굽이
사자봉 기슭을 에도는데
저기 물촉새 한마리 내려앉는곳
저 봉일가

소백수골 잔잔한 굽이에 돌아앉은
봉이하나...
물넋에선 봄날같이 흰김이 서려
꿈같은 마을이 나설듯

저 봉이에 가지 드리운
그 어느 나무 등걸에 안겨도
부드러운 숲새에 잠겨
어느새 고요히 잠들듯
자애로움이 어려오는
봉우리

나를 굽어보는 봉우리
창공에 엄엄히 솟은
정일봉이여
너의 품속에 안겨있구나
엇갈린 가지새로 열려보이는
귀틀집 작은 땀창...
동기와지붕에는
항일전쟁의 포연속에 날리던 붉은기발...

홀려 반세기
만고풍상 다 겪으며
밀영의 소중한 저 모습을 간직해온
봉이여

어느해 여름날 태풍이 불어

너의 산줄기에서 강대들이 쓰러지고
천고의 원시림 그루채 뽑히우며
천만산악이 아우성일 때

봉이여
너만은 곳곳이
그 절개높이
백두의 고향집을 안아지켜냈구나

네 그리도 억세게
귀틀집 터전을 그러안고
네 그리도 정답게
고향집 향기를 고이 품고

이제나
저제나
간절히
소백수 깊은골에서
오늘을 기다려왔으니

봉이여
너에게 그 어떤 감사의 표시를 안기랴
그 어떤 송가의 구절로
너의 위훈에
값높은 노래를 지어줄수 있으랴

그 이름
온 세상 사람들 따르며 우러르는
그 이름
봉이여
너에게 주고싶더니

그 이름

정일봉이라고
 너의 산정에 이름이 없어질적에
 봉이여, 너의 환희에 겨운 터뜨림
 저 소백수물결에 내려
 백두고목들의 뿌리를 흔들었으리

너의 그 환희
 저 수림의 파도에 실려
 행복의 이슬을 머금은 새무리를
 구만리 창공에 날렸으리

봉으로
 오를적에는
 그 누가 보련듯

조용히 돌아앉아 요람을 지키는
 어머니 모습

다시 돌아보면
 창검을 세워친 령장인듯
 태양의 역사를 수호하는
 정일봉

너는 조국과 민족 앞에
 가장 겸허하시고
 가장 강의하신
 위대한 지도자의 친근한 모습으로
 이 아들을 따듯이 품어주며
 한없이 그림던곳에 솟아있구나

만년초석우에

집이여
 너로부터 흘러간 저 무수한 골짜기들
 너로부터 이어진 저 수만갈래 길들
 력사의 갈피갈피로
 저 멀리 펼쳐져있구나

뜨락가에 앉은
 저 푸른바위우에 널려있었으리
 압록의 물에
 이슬길에 젖은
 군복과 행진들...

고향집 정원수처럼
 송라를 드리운 저 분비나무에는
 소백수에 먹물을 풀어쓴
 어렴풋한 글자들...

집이여
 너를 병풍처럼 둘러싸기도 하고

층층 고임돌처럼 누운
 저 봉우리들에는
 흰눈을 붉게 물들인
 선렬들의 자취뿐이리

집이여
 너의 정원수와 두른 바위들
 너의 뜨락과 오솔길들
 조국광복의 뜻으로 엮어진
 집이여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어낼수 없는
 간고성의 탑우에
 너의 지붕 없혀있고
 백두성지를 만년초석으로 덮고있어
 집이여
 너로부터 받아안은 인민의 넋은
 영원히 흔들림 없으리

옛 주인의 발자욱소리

유구한 세월
 기다린 세월
 구름이 떠가고 흘러오고
 흰안개 오르고 내렸네

구름도
 안개도
 어디론지 가버린

그 어느 여름날

소백수 물소리도

류달리 맑은 그날

사자봉 어귀에서 발자욱소리

정일봉에 오르는 발자욱소리

오시는가

정녕 오시는가

내리닫던 소백수도

막아선 바위에 무릎을 꿇듯

어푸러지고

뛰어내리고

룽마바위 너도

푸른 날개 뿔었으리

산정에서

기슭으로

밀림도 달리다 멈춰버린듯

눈시울 습벅이는 경위대원들처럼 서있었으리

어리실적

프락의 눈우에

또렷하니

작은 발자욱 남기신 그이

오늘은 령장의 자욱 찍으시며

그이 오시네

조국땅 끝에서 끝까지 다 돌고

늦게야 그이 오시세

백두의 뜻대로

인민이 받드는

나라의 향도성 되여

고향집에 오시니

온 천하를 진동하는

옛주인 발자욱소리

크나큰 발자욱소리에

백두고향 산천이 한껏 들먹이었네

고향집 귀틀목에 한손을 얹고

모진세월의 그 자취런가

이끼를 남긴

고향집 귀틀목에

한손을 얹으니

가슴뜨거워

키낮은 추녀

저 한끝에 생각은 머물고

맘속엔 문득

문풍지 우는 소리

저 문턱넘어로

강냉이미음 한그릇 교여들고

겨우나 넘어섰을 녀전사들

그날의 피로움

나에게 닿고

쪽무이 포단 한장

포개여 농을적에

구름노전 쓸어만지던 그 마음

내 손길에 닿아

한손을 얹은

귀틀목 마디마디에 어려있는

구김살없이 모시는 마음의 그 진정

더운 피가 되여 흘러들어라

명제해설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된다는것은 당의 의도와 구상,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당의 위업을 실천적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협력군으로 된다는것을 말합니다.》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과 인테리들이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작가들이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된다는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와 구상,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창작적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협력군으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작가는 문학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혁명에 복무하는 혁명가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당의 위업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충실한 방조자로 되려면 당의 사상과 의도가 철저히 구현된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에 우리 당의 의도와 구상이 형상적으로 구현될 때 그 작품은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으로 적극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기치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작가의 본분을 수행하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선문학창작사의 한 시인을 접견하신 자리에서 가요 《남해가의 붉은 꽃》은 당의 위업을 수행하는데서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작품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작가들이 우리 당과 뗄수 없는 진정한 협력군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문학작품에 투철하게 구현한 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함으로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사업을 조금이나마 보좌해드리는데 이바지하는 작가만이 우리 당과 뗄수 없는 진정한 협력군, 충실한 방조자의 고귀한 영예를 누릴수 있다.

당의 충실한 방조자, 진정한 협력군은 즐거운 때도 어려운 때도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다운 동행자,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동행자만이 될수 있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지 못하는 충실한 방조자가 있을수 없으며 충실한 방조자가 되지 못하는 영원한 동행자란 있을수 없다.

우리 작가들이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당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것을 변함없는 자세로 관철해나가는 당정책의 열렬한 지지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 사상과 방침을 보아도 거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있고 창작방향과 실천적방도가 지 다 밝혀져있다.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문예 로선과 방침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당의 문예 로선과 방침을 견결히 옹호하고 문학작품창작에 철저히 관철해나가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 무한한 헌신성을 다 발휘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또한 오직 당을 위한 하나의 심장만을 가져야 하며 작품을 하나 써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남먼저 받들고 꽃피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와 요구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당이 안타까와 하고 힘을 넣어 해결하자고 하는 문제를 제때에 민감하게 포착하여 창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당에서 의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내면 그것이 당을 지지해주고 당에 도움을 주는것이다.

당에 대한 순결한 량심으로 세차게 고동치는 심장을 지닌 작가는 언제나 창작적열정에 불타있게된다. 뜨거운 심장의 연소가 없는 열정이란 있을수 없다. 작가들은 언제나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청춘의 기백으로 창작적열정에 불타 작품을 써야한다. 그래야만이 당의 사상과 의도, 구상을 실현하려는 뜨거운 열정과 궁정의 기백이 작품에 차넘칠수 있으며 그러한 작품만이 우리 당의 위업수행에 참다운 방조자가 될수 있다.

현시기 우리 작가들이 당에 대한 깨끗한 량심,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창작에 집중해야 할 문제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작품을 창작하는것이다.

작가들은 언제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의도하시고 구상하시는 문제를 남먼저 푸는 충실한 방조자의 영예를 지니고 당의 사상과 의도가 철저히 구현된 훌륭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할것이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반 세기가 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더 잘 형상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

4. 1 5 문학창작단 창립

문학은 력사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내용과 그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요구한다.

우리 시대는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 이 땅위에 영광스러운 주체시대를 펼쳐 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폭넓게 형상할수 있는 새로운 문학작품형식을 요구하였다.

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4. 15문학창작단이 조직되고 총서 《불멸의 력사》의 새로운 형식이 창조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7년 6월하순에 이르러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4. 15문학창작단을 조직할것을 친히 받기하시고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이 시기로 말하면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힘있게 벌어지던 위대한 혁명적전환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작가들은 물론 창작지도일군들도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이 절박한 문제, 문학작품창작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 1967년 6월 20일이였다.

한 일군은 문예총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데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보고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이런 회의는 혁명적인 작품창조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힘있게 강조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받으며 일군은 사상정신활동으로 사회적부를 창조하는 작가들이 혁명적작품창작과정을 통하여 사상의식을 개변하며 그것이 그들의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나타나게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가슴뜨겁게 새기게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주제로 한 소설창작을 위한 창작조를 따로 내와야 하겠다고 친히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확고한 결심과 열정이 어린 친애하는 지도자동

지의 말씀을 들으며 일군은 흥분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미 여러차례의 강령적인 말씀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주체적인 혁명문학건설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시하신 그이께서 드디어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주제로 한 소설창작을 하는 창작집단을 따로 꾸리고 이 사업을 보다 힘있게 밀고나갈 혁명적조치를 취해주시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의 흥분된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자애깊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다가 사색깊은 음성으로 수령님께서는 이미 작년초에 온천에서 작가들과 력사가들에게 해방전에 혁명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자신께서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10여일간에 걸쳐 들려주시였는데 그때 수령님께서 왜 작가들에게 그런 교시를 하시였겠는가 하는 그 의도를 똑똑히 알아야 하겠다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였다.

마디마디에 충성의 열정이 넘쳐나는 간곡한 말씀이였다.

일군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새기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주제로 한 소설창작을 하는 창작집단을 꾸리는것이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로 볼 때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것을 심장으로 뜨겁게 느끼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소설문학에 보다 빛나게 모시는것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면 인류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생동한 사실로 보고싶어하는 우리인민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숙망으로보나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현실태와 세계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문제였다.

지금까지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은 수령형상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상과 리론이 제기된것도 없었다.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문제는 공산주의운동이 시작되어 한세기가 지나고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이 발생하여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의연히 원만한 해명을 볼수 없었고 더우기 당의 중요한 정책적요구로 제기되지 못하였

다.

오직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게 의하여 수령형상창조문제가 리론실천적으로 완벽한 해명을 보게 된것이다.

일군은 후더워나는 가슴을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들 우러러보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씀을 계속 하시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고,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포괄하는 혁명소설들을 창작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다시말하여 수령님께서 만경대고향집을 떠나신 때로부터 백두산을 넘나드시며 전개한 혁명활동전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세세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하는 혁명소설을 창작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에는 우리의 주체적인 소설문학, 혁명문학의 창작방향이 뚜렷이 제시되어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내용으로 하는 혁명소설창작사업은 매우 방대한 사업인 동시에 가장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작가들에게 일반적으로 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가장 능력있고 준비된 작가들로 창작단을 꾸리고 지도를 잘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이 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해나가야 하겠다고 하시며 우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시작하여야 한다고 따듯이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중요한것은 형식이 아니라 사업내용인것만큼 먼저 작가들을 잘 선발하여 몇개의 작품들을 창작해보며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였다가 새해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창작에 착수하는것이 좋겠다고 세심히 가르치시였다.

작가들은 설레이는 흥분을 안고 수령형상창조의 보람찬 나날을 수놓아가고있었다.

어느덧 해가 바뀌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으로부터 사업

실태를 또다시 료해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것 같다고 하시면서 우선 올해는 자료취재기간으로 설정하고 작가들이 마음놓고 자료취재와 자료연구를 실속있게 할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작가들이 앞으로 창작할 소설의 형식과 규모, 력사적사실과 허구, 작품의 양상에 대하여 론의하고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우선 당력사연구소의 자료들을 연구하는것을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쟁참가자들도 직접 만나보고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도 하면서 창작적구상을 무르익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자료가 방대하기때문에 지금 창작조에 망라된 작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정한 력사적시기를 분담시켜 작품을 구상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친히 시기구분과 작가별 분담까지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 4. 15문학창작단에서 제기되는 자료취재와 창작문제, 생활보장 문제들을 잘 풀어줄데 대한 은정넘친 조치까지 취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친히 창작조의 명칭을 《4. 15문학창작단》이라고 이름지어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세심한 지도, 은정넘친 사랑속에 드디어 4. 15문학창작단이 세상에 그 창립을 당당히 선포하게 되었다.

새로 창립한 4. 15문학창작단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1973년 6월 25일, 4. 15문학창작단의 사업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면서 4. 15문학창작단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혁명적가정을 소설로 형상하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로 옮기는 영광스러운 사업을 맡아 수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진정 4. 15문학창작단이 창립된것은 주체적인 혁명문학건설과 세계 진보적문학발전에서 하나의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일대 사변으로, 크나큰 경사였다.

고향길

정렬

못잊을 고향
그 이름 부르면
누구에게나
애틀한 정서를 불러내며
못견디게 가슴설레게 하더라

어린 몸 안아키워준
사랑의 요람이 있고
삶의 첫걸음 떼여준
작은 프락이 있어
그리도 정깊은곳인가

어린날의 첫눈동자에 담아본
그 하늘이어서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고향의 하늘처럼
깨끗한 하늘은 없고

잔뼈를 굶혀준
어머니의 달디단 젖과 함께
고향의 웅달샘물, 그 물맛은
세월이 가도 잊지 못해

꿈결에도 안겨와라
백양나무 잎새 살랑이는 고향의 동구길
아이들이 물장구치는 맑은 시내가
벼이삭 흥치는 벌 한끝에서
가담가담 풀 뜯는 살찐 누렁소

눈앞에 삼삼해라
정깊은 어머니의 얼굴
다감한 동창들과 이웃들
머리수건 하늘거리며 돌아오는
방목공 처녀의 어진 눈동자...

아 고향의 이 순진한 눈길앞에
부끄러움없이
대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그 무슨 고향의 아들이라 하라

세상에 단 하나
소중한 품인
고향을 욕되게 한다면
그 인생은 살아도 버림받아
하늘에 머리들고는 못살아

계절조처럼 떠났다가
빈손으로 찾아온다면
어찌 다정한 이웃들 대할수 있고
어머니의 밝은 얼굴을 마주할수 있으랴

구겨진 인생으로는
고향의 품에 안길수 없고
누구든 뒹어진 자옥으로는
고향땅을 밟을수 없나니

너에게 기울이는 뜨거운 사랑이 없고
너에게 바치는 진정이 없다면
네가 낳은 수많은 아들딸들이
어찌 한목숨 바쳐
조국의 산야에 꽃잎처럼 흩날릴수 있었으랴

그들은 비록 몸은 오지 못했어도
조국에 바친 값높은 삶으로
세월을 이어
고향의 추억속에 영생하고있거니

평범한 날에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람들은 기쁨의 꽃을 피우고
인생의 향기를 풍기며
고향을 빛내고있어라

어릴적 장난꾸러기
응석받이들도
철들어서는 위훈을 앞세우고
고향땅을 찾고있어라

오, 사람들이여
역적이 아니고서는
누구나 견게 되는
고향길에 깃든
위대한 사랑과 은정의 이야기
우리 함께 들어보자

1

배낭을 추슬러멘 병사
꽃향기 흐르는 산촌길을 걷는다
풀대 하나 꺾어들고
불에도 소중히 비벼보며...

아이들의 은방울 목소리 들려오는
유치원 미끄럼대에
그윽한 미소를 보내더니
맑은 시내가에
돌팔매질도 해본다

앞가슴에 금빛 훈장을 걸렁이는
얼굴이 통통한 병사 철진이
성큼성큼 군화자욱 옮기며
고향길을 걸어간다

아, 몇 해만에 밟아보는
그리운 고향길인가
산기슭의 즐비한 문화주택들
키높이 자란 푸른 백양나무
저기 남천강다리도 보이는구나

이제 산비탈만 돌아서면
남천강다리위로 달려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리라

무슨 말부터 여쭙어드릴까
아마 하나도 달라진것 없는
내 얼굴모색을 뜯어보며
어머니는 목이 메여 우시겠지

아들이 빈걸음으로가 아니라
위훈을 세우고 왔다고
어머니는 동네방네 다니며
자랑하시겠지

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음이기에
그의 발걸음 이리도 날개 돋히고
고향사람들앞에
떳떳이 머리들고 들어설수 있는것인가

2

이길로 나왔더라 어머니는
3년전 아들을 떠나보내던 이길로
휴가를 온다는
아들의 전보를 받아쥐고

다음날
그 다음날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두고
상심하며 걱정하며
어머니는 이 길을 맥없이 걸었더라

그런데 이때
무거운 발걸음 옮기는
어머니의 등뒤에
문득 차가 멎는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다정한 부르심
《아주머니!》

정신을 차리며
뒤를 돌아다보던 너인
너무도 뜻밖이었어라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다가오시는분은
언제나 우러러뵈모하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니신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수 없어
너인은 인사도 미처 올리지 못하고있는데

그이께서는 유연하신 음성으로
따뜻이 물으신다
무슨 일로
어디에 갔다오는가
어째서 얼굴에
근심이 서렸는가

아 지방현지지도의 길
쉽없이 이어가시던 그이
달리던 차를 세우시고
알수 없는 근심과 걱정이 실린
너인의 정상을 헤아려보셨구나

기빠도
인민때문에 기쁨을 즐기시고
피로워도
그 인민때문에 시름을 놓지 못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인민의 기쁨에
작은 실금이라도 생길세라
만발한 천만의 꽃들이
단 한송이라도 스러질세라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한품에 안아 보살피시는 그 사람

너인은 어려움도 잊고
친아버이앞에서처럼
그이께 허물없이 말씀올렸다

군대에 나간 아들이
휴가 온다는
전보까지 쳐놓고 오지 않아
어제도 그제도 나왔다는
애타는 심정

근심어린 그 마음을

외람된 말씀을 올렸다고
생각했는지
너인은 다시 뒤말을 잇는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군대가 아닙니까.》

위안을 가져보려 하나
근심과 불안
자식에 대한 야속함을
감추지 못하는 너인의 그 마음
안아보시는 그이

생각 깊으신 음성으로
《음...
휴가를 받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지요

부관동무
우리가 차를 세우기를 잘했소
아주머니의 발걸음이
별스레 무겁다 했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아주머니
성실한 병사는 고향길을
의의없이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알아보겠습니다.》

아 누구도 느끼지 못한
산촌 아낙네의 얼굴에 서린
한가닥 작은 그늘때문에
그 바쁘신 길 미루시고
귀중한 시간을 보내시니
산천도 감격에 겨워 흐느끼는가

쏟아지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는 너인
감사의 정에 목이 베여
한마디 다만 한마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3

휴가병사 철진이
기분이 붕 떠서
지나온 초소길 몇십리
산촌빠스로 넘어온
높낮은 고개고개 몇백리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
코노래도 흥얼흥얼
북행렬차를 타려고
산간역 개찰구를 나선다

이제 렬차로
몇시간만 달리면
눈에도 삼삼한
그리운 고향에 가닿으리라

별무리 흐르는 초소의 밤이나
안개낀 야영지의 새벽이나
꿈결에도 안아보던
아 못잊을 고향

복숭아꽃 핀 트락에
번뜻하게 추너를 높이 든 집
불웃음 귀여운 어린 동생의 얼굴
머리에 흰서리 내렸을
정깊은 어머니의 모습

어릴 때
물장구치던
남천강의 유정한 물소리
귀에 젖어들고

입대의 기념으로
학급동무들과 함께
동구길에 심은
백양나무 푸른 잎새들이
어서 오라 손저어부르는듯

못잊을 이웃들
선생들과 다감한 동창들
눈앞에 그려보는 병사
그 얼굴에 기쁨의 미소 떠날줄 몰라라

어느새 승강대를 잡는 철진이
어서 떠나자고
가슴을 울려주는
렬차의 기적소리 기적소리...

그런데 그 순간
철길너머 맞붙은듯한
좁은 협곡의 산턱에
문득 시선을 준 철진이
흠칫 놀라며 온몸이 굳어져라

레년에 없이 쏟아붓던
간밤의 소낙비에 패여선지
산중턱에서 흠이 떨어지며

큰 바위가 잔돌을 뿌리며 굴러내리고있었거니

그아래 건너질러간 소로길로
학교에서 돌아오는듯
책가방 달랑 멘 아이들
장난에 한창 정신을 팔고있지 않는가

《와지끈
팡!》
나무며
돌맹이들을 사정없이 짓조으며
바위돌이 굴러내리는 소리...

《아니?!...
저 애들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철진이는 손에 땀을 쥐었다

즐거운 고향길과
위험속의 아이들...
이 두갈래 갈림길에서
가슴은 세차게 두방망이쳤더라

어떻게 할것인가?!
고향의 댁이 귀여운
내 동생과 같은 저 아이들
저속에 만약 내 동생이 있다면...

허나 임무를 받은 일도 없고
위험속의 아이들
그냥 지나쳐도
누구 하나 탓할 사람 없으리라

나는 총을 쏜 병사
인민의 행복의 수호자
닥쳐온 위험을 외면한다면
고향길에는 들어설수 있어도

병사의 량심엔 검은 그늘이 지리
량심에 생긴 허물을 안고
고향길에 들어선다면 즐거울수 없고
지울수 없는 치욕으로 남아
한평생 고통속에 후회하게 되리

그렇다
고향길은 미룰수 있어도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각일각 닥쳐온 위험은
미룰수 없다, 한걸음, 단 한초도

병사의 의무를 자각한 철진이

잡았던 승강대를 놓는다
이미 마음속에 량심의 구렁이 내려지고
심장의 명령을 받았다

바퀴소리 고르로이 울리며
렬차는 떠나가도
병사는 위험을 향해
철길너머 절벽가 산락에 뛰어올랐다
총알같이-

삶의 다른 부지를 모르는 병사에겐
그 길은 길지 않아도
생사의 외통길
잘못하면 만사는 끝장

전사는 한치도 빛나감이 없이
헛디딤도 없이
곧바로 달려갔다
번개같이-

아이들의 머리우에 드리운
불행을 막아선
철의 방패인듯
어느새 굴러내리는 바위돌을
한가슴에 덮쳐안은 철진이

바위모서리에 사정없이 찍히고
절벽에 부딪치면서도
끝내 바위돌을 놓지 아니한 전사
만신의 힘을 다하여
위험을 멈춰세웠거니

불행이 가져진 좁은 협곡에는
방금전의 그런 일 없은듯
맑은 하늘을 담고
지절대며 흐르는 물소리, 물소리...

그 아이들의 머리우엔
돌쪼각 하나 날아들지 않았어도
자신의 얼굴과 가슴엔
하많은 상처를 낸 전사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가
사람들 다투어 달려갔을제
피에 젖어 쓰러진 전사
누군가의 등에 업혀
산촌의 병원으로 옮겨갔더라

4

불빛이 명멸하는
수도의 밤

인민이 모아오는 숨결인양
정원의 향나무 고즈넉이 설레는 소리

친애하는 그이께서 계시는
당중앙청사의 지붕우엔
그 무슨 풀지 못한 소원 있어
다투어 찾아왔는가
못별이 내려 반짝이는 밤

그이의 집무실 창가엔
하많은 사연 이야기하는듯
밝은 불빛
사색 깊은 불빛 밝아라

끝없이 바쳐가시는 심혈과
그이의 심원한 사색이
창가의 불빛으로 타오르는것인가
간절한 소원 안고
반마다 바라보던 젖은 눈들이
지붕우의 별무리로 흐르는것인가

거리엔 궤도전차도 뜸해진
깊어가는 밤
실무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그 걸음으로
그이께서는 빛나는 안광에 예지를 담으시고
탐구와 사색으로 심혈을 바치시여라

두툼히 쌓인 문건들을 하나하나 보시며
바쁘신 일들을 처리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스쳐버리지 않으셨다
먼 산촌길에서 만나셨던
한 너인의 가슴속 걱정을

일군들에게
너인의 아들의 행처를 알아보았는가
거듭 물으시던 그이

전사가 속한 부대를 찾았다는
보고를 들으시고는
보시던 문건을 밀어놓으시고
서둘러 드시여라, 송수화기를

최전연초소의 한 책임일군으로부터
지방당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았다는
뜻밖의 사연을 보고받으신 그이
한동안 안색이 흐려지시여
무거운 생각에 잠기시여라

굴러내리는 바위돌을 몸으로 막고
얼굴에 당한 심한 상처로
교통속에 헤매이는

전사의 아픔을 느끼시는가

자식의 험상궂은 얼굴에
속절없이 떨어질
어머니의 피로운 눈물을
헤아려보시는가

이윽고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드신채
갈리신 음성으로 물으시여라
《그래 지금
환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두줄기 전화선을 타고 울려오는
일군의 목소리
《의식은 회복되었습니다.
저... 그런데...》

뭔가고
숨기지 말고
어서 말하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동문 의식을 차리기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헛소리를 친다고
그 동무네 중대가
3대혁명붉은기중대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때문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는지
걱정하고있다고
일군은 사실대로 말씀드렸어라

그이의 진중한 음성
송수화기를 올린다
《걱정하고있단말이지
그 얼마나 기특한 전사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고향으로 가는 렬차를 타지 않고
굴러내리는 바위돌을 막아
아이들을 구원한다는것이
어디 보통일입니까

헌신적복무정신
자기 희생성으로 준비된
우리 병사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를 못낼 일입니다.》

그이께서는 사랑하는 전사를
눈앞에 그려보시는듯
금시 품에 안아주실듯

창문너머 시선을 주신채
말씀을 이으시여라

그 동무는 비록 고향에는
안가지 못했어도
고향길을 걸을줄 아는 병사라고
자기 고향을 빛내일줄 아는
진짜배기 병사라고...

고향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인민을 위해 바친
병사의 뜨거운 심장으로
피와 땀의 값으로
조국은 해아린다고
거듭 말씀하시는 그이

마디마디 뜻깊은 음성으로
일군을 깨우쳐주시여라
《그 동무는 인민앞에
100% 합격된 병사입니다

아무리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군대라 하더라도
인민에게 항거하지 못한 군대는
자기 사명을 다할수 없습니다

한 전사의 소행을 통해
그가 속한 중대를 보게 됩니다
그 동무네 중대는
3대혁명붉은기중대로
큰소리치며
합격받을만 합니다.》

아 총을 잡은 병사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응당한 일이건만
인민에게 합격된 병사라고
그토록 값높이 치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는 그이

병사는 고향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고
그 고향을 어떻게 빛내야 하는가를
깊은 철리를 담아 밝혀주시는
그이를 우러러
일군은 정중히 차렷자세를 취해라

5

군병원의 수술대는
크지 않아도
그이께서는 불러주시었어라

넓고넓은 온 나라를

진귀한 의약품을 실은
사랑의 직승기가 날고
유능한 의료집단이
군병원에 닿았어라

그이의 사랑이 흘러들어
심장은 뛰고
그이의 보살핌이 낮과 밤에 이어져
전사의 얼굴이 피어나던 어느날

환자의 맥박도 짚어보고
붕대도 다시 감아주며
침대결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백발의 로박사

병사의 베개잇을 흔들며
호실을 울리는 뜨거운 목소리여
《병사동무
알기나 하고있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동무의 원래 모습을 꼭 되찾아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하자고
우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소

동무가 완치되면
부상당하기전의 사진과
퇴원할 때 찍은 사진을
함께 보내달라고
자신께서 먼저 보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셨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가 뭐라고...
제가 한 일이
무슨 큰 일이라고...》

철진이는 말끝을 흐리우며
어깨를 들먹이고
의사, 간호원들도
눈굽을 적시었어라

아, 어느 시대, 어느 력사에
사람의 생명을
이처럼 귀중히 여긴적 있었고
위대한 령도자의 음성이
한 전사, 한 인간을 위해
머나먼 산촌병원에 울려온적 있었던가

그 사랑, 그 은정

현대의학으로도 측정할수 없는
불사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사랑, 그 은정
낮이면 해빛이 되고
밤이면 별빛이 되어
군병원의 창문가에 비껴 흘렀어라
또하나의 전설을 뜨겁게 새기며...

6

질은 봄빛아래
꽃향기 싱그럽고
마시는 공기조차
청신한 산촌

물소리 유정한
남천강다리위로
흰옷 입은 어머니
헐헐 날듯이 걸어간다
불웃음 귀여운 막내아들을 앞세우고

불면 날아갈까
다치면 깨어질까
옥같이 애지중지
자식을 낳아 키운
어머니의 보람은 그 무엇

자식의 덕으로 누리는
저혼자의 안락인가
아니면 여생을 편히 보낼
안식의 보금자리인가

아니여라
아니여라
고향에는 효자동
나라에는 충성동이 되어
우리 당이 기억하는 아들이 되는것이
어머니 바란 소원중의 소원
행복중의 행복이었나니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
고향의 자랑이 되어
오늘은 아들이 돌아온다
천만 고생을 락으로 여기며
자식을 키운 보람이 비껴
어머니의 얼굴에 흐르는 미소여

상봉의 기쁨을 그리며
날듯이 걸어가노라니
아들을 축복받은 고향땅에 세워주신
친애하는 그이의 그 사랑
눈앞에 뜨겁게 안겨와라

며칠전

그 병사가 퇴원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을 받아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병사의 사진을
이윽도록 살펴보시더니
만족하시여
매우 만족하시여 하시는 그이의 말씀

《이 두 사진이 꼭 같구만
신통하오
장한 일을 한 병사인데
이제는 어머니앞에 세워줍시다

그 아주머니가
이제 아들을 만나면
혹시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지 모르겠지만
내 보기엔 합격이요

이것은 군민일치가 피운
또 한송이 아름다운 꽃이요.》

아 한없이 자애로운
친애하는 그이께서
전사의 모습을 되찾아주시고
영광의 고향길에 세워주셨거니

저기 산비탈을 돌아
얼굴이 통통한 아들이
어깨에 배낭을 메고
성큼성큼 마주온다

《어머니!》
《어디 보자
내 아들 철진아!》
남천강다리우에
오래도록 잊갈리며 감도는
뜨거운 메아리여!

철진이는 엎어지듯 달려가고
어머니는 어릴 때처럼
다 자란 아들을 안으려고
두팔 벌려 다가간다

아 어머니의 저 품
고향의 품에 안기려고
전사는 복무의 자욱자욱
얼마나 깨끗한 량심으로 수놓았던가

구름 걷힌 하늘에서
해빛이 쏟아지듯
천신만고끝에
위훈은 빛나기에

아들은 쉬운 길을 골라 걷지 않았다
먼길도 한달음으로

위험한 생사의 길도
 꽃길처럼 걸어왔어라
 덧없이 흘러보낸 인생
 아무 쓸모없는 띄었같은 삶은
 티없이 깨끗하고 거짓을 모르는
 저 품에 안길수 없거니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름없는 병사를
 위훈의 모습으로 빛내시여
 땀땀이 자랑 높이
 고향의 품에 안겨주시었어라

한목숨 바쳐
 고향과 조국을 빛내인 병사를
 제일 강하게 여기시며
 그의 운명을 끝까지 말아주시는
 위대한 은인

그 사랑 그 품에 안겨있기에
 병사는 병사마다 용맹 떨치고
 고향의 아들답게 나라의 영웅답게

위훈 세워 조국을 빛내여라
 고향길을 걸을줄 아는 병사
 고향을 빛내인 아들이기에
 산촌이 자랑하고
 우리 당이 다 알아

해빛 밝은
 저기 모교의 창문들이 반기고
 동구길의 키 높은 나무숲들이
 기쁨에 설레며 손짓한다

통통... 프락포르의 동음소리
 흐르는 양떼의 울음소리
 남천강도 맑은 목청으로
 환영곡을 읊조리는
 고향의 경사여

아 위대한 령도자의 축복속에
 병사를 맞이한 고향산촌엔
 환희의 보라매 날고
 해빛도 찬란히 쏟아져 내려라

소백수의 물소리

림공식

불러서
 가까이 다가서는가
 이끌리어
 또 한걸음 내짚는가

물소리
 물소리
 유정한 소백수의 물소리
 어이하여
 이 가슴 그토록 설레여주는가

걸힐줄 모르는
 모진 세월의 락엽에 덮이어도
 이 프락을 감돌며 감돌며
 유정한 물소리로 밀림을 흔들더니

오, 그날부터 기쁨에 겨워
 감격에 사무쳐
 온 강산에
 너는 환희의 노래처럼 오늘도 울리는구나

우러러
 높이 모신
 백두광명성!

찬란한 그 빛발
 물결우에 어리고

이 땅의 밝은 미래를
 산악처럼 지켜주는
 정일봉의 숭엄한 모습이
 소중히 비끼여

그날부터
 네 흐름소리
 천지를 진동하고
 뜨거운 가슴마다
 걱정의 폭포수로 흘러들지 않았더나

아,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이 심장 세차게 뿔뿔여주는
 너는 행복의 노래!
 다함을 모르는
 환희의 노래!

물소리
 물소리
 소백수의 물소리

작가적성장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백인준

요사이는 가끔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게 된다.

지금은 내가 작가들중에서 나이많은측에 속하고있지마는 해방당시는 아직 25살의 무명신인이었다.

해방전부터 문학을 한답시고 부지런히 습작도 하고 책도 읽고 제노라 하는 대학교수들에게서 강의도 받았다. 그러나 해방이 될 때까지 시 한 편지상에 발표해보지 못했다.

제판에는 문학에 일생을 바치자 굳게 결심하였고 내가 일생을 바칠 일은 문학밖에 없으며 문학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보람찬 일이라고 열에 떠 생각하고있었으나 문학이 무엇인지, 왜 문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것들은 알지도 못했으며 또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자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련달아 시들을 써나갔고 희곡도 쓰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나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비로소 작가로 성장하기 시작한 해방동이작가의 첫세대라고도 할수 있다.

민주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의 첫시기까지 전문적작가로서가 아니라 당, 국가 기관과 인민군대에 복무하면서 창작은 부차적으로 하여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 문학이 단순한 개인사업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 혁명에 굳게 련결되어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었고 후배들과 동료들 앞에서 문학의 임무와 작가의 사명에 대하여 제법 내판의 열변도 토하곤하였다.

이미 개인시집도 서너권 가지게 되었고 창작목록에는 몇편의 극작품들도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때까지 나는 작가의 진정한 자세, 혁명과 력사 앞에서의 작가의 사명과 위치 등에 대하여 알고있지 못하였다.

그저 환상이 뜨고 흥분이 생기니 작품을 썼다고 해야 할것이다.

작품을 거듭 쓰는 과정에 기교도 늘어나고 자기판의 견해도 생겨났으나 작가로서의 의식, 달리말하여 작가정신, 작가의 념은 똑똑히 가지고 있지못하였다.

좀 추상적인 말갈고 관념적인 표현같으나 작가에게 작가정신, 작가의 념이 없다면 그를 진정한 작가라고 할수 있을가?

물론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희곡을 쓰면 작가

라고 할것이다.

로리를 만들면 로리사이고 리발을 하면 리발사인것과 같이 작품을 쓸줄 알고 작품을 쓰면 사회적으로 작가라고 부를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하나의 사회적직업으로서는 웅당 작가이다.

그러나 작가라는 칭호가 다만 이러한 사회적직업의 표현에 그치겠는가?

작가를 인간정신의 기사라고 하지 않는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다운 인간을 그리자면 작가자신이 참다운 인간의 기사가 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작가라는 칭호 그자체가 영예로운것이기때문에 다른 모든 직업에는 《공훈》과 《인민》의 칭호를 수여하지만 작가에게는 《공훈작가》, 《인민작가》의 칭호를 붙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렇다면 정신적산물을 창조하는 작가에게 있어서 다른 직업의 소유자들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다만 작품을 구성하고 어휘를 고르고 표현하고 감정을 조직하는 크게 말하여 작가적기술만이겠는가?

다만 그것만이라면 하나의 《재간군》, 《언어기술자》밖에 더 되겠는가?

작품-정신적재부를 낳는 작가에게는 그것을 낳는 작가의 정신세계, 작가의 념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바다물이 있어 소금이 생겨나고 광맥이 있어 금과 철이 생겨나듯 작품-정신적재부를 낳는 작가자신의 정신세계, 작품의 토양이라고 할수 있는 작가의 념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작가의 세계관과 작품의 호상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리해만을 가진 상태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를 받기 시작하게 되었다.

이때 나는 이미 40대를 넘어섰고 작가대렬에서도 중견층에 속했다고 볼수 있었으니 나는 이때로부터 비로소 작가에게는 작가의 정신세계, 작가의 념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을 새롭게 키워나가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부문을 지도하시기 시작하면서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영화부문에서 열어나가시였는데

나는 영예롭고 행복하게도 그 첫대오에 참가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처음으로 지도하여주신 예술영화가 《성장의 길에서》였는데 나는 그 영화문학의 작가로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첫 지도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작가적발전에 특히 작가의 넋을 키우는데 있어서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으로 되었다.

영화혁명에 뒤이어 가극혁명, 연극혁명의 나날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를 그 성스러운 대오의 한성원으로 참가시켜주셨는데 이 영예로운 나날에 나는 그이로부터 문예리론적으로나 실천적기술면에서나 종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받아안게 되었으며 특히는 그이로부터 작가의 넋을 받아안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에게 안겨주고 키워주신 작가정신의 세계는 어떤 것이며 무엇인가.

그것을 이 짧은 글에서 어찌 다 말할수 있으랴.

더우기 작가정신 다시말하여 작가의 넋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면을 가지고있어서 그것을 문자로 다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나는 여기서 한두가지 추억을 더듬으며 내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어떻게 작가의 넋을 받아안고 키워왔는가 하는, 말하자면 나의 작가적성장로정에 대하여 그의 일단이나마 말해보고자한다.

1970년, 봄도 이미 저물어 초여름에 들어서려 5월 하순이었다.

이때 영화부문에서는 우산장에서 집중창작전투를 하고있었다.

나는 이때 내가 직접 창작해야 할 창작작제는 말은것 이 없고 백두산창작단 작가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집체적으로 방조하는 성원으로 이 작품, 저 작품에 관계하고있었다.

이때까지 영화부문에서는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영화들을 적게 만들고있었다. 그것은 많은 작가들이 낡은 극작술에 매달려 사회주의현실물에서는 《심각》한 극적갈등을 설정하기 힘들어하면서 잘 쓰려 하지 않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시고 아담한 사회주의현실물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시였으니 그 결과 판매원의 생활을 취급한 《안해의 일터》를 비롯한 많은 영화가 제작되었고 《처녀리발사》같은 영화도 제작이 진행되고있었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로운 사회주의현실물영화 《안해의 일터》를 가지고 멀리 창성에 나가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가서 영화에 대한 교시를 받으시고 피곤도 풀으실 사이 없이 우산장까지 찾아오시였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술영화 《안해의 일터》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신 교시를 전달해주시고 당면하게 영화창작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밤이 깊도록 여러가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느덧 밤이 자정을 넘었다.

다른 동무들은 다 돌아가고 백두산창작단 창작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만 남은 자리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현재 진행되고있는 예술영화 《처녀리발사》가 잘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이 영화를 백두산창작단 창작가들이 도와주게 하였는데 잘 도와주지 않았다고 지적하시였다. 백두산창작단 창작가들을 크게 믿고 도와주라고 하였는데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는데 대한 지적의 말씀이였다. 영화문학창작사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백두산창작단에 맡겼는데 말하자면 《애국로동》이고 《부업》이라고 하여 자기 작품처럼 도와주지 않았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매우 노여워하시였고 어조는 날카로웠다.

사실 이때 나는 다른 작품들에는 관계하고있었지만 문제로 제기된 《처녀리발사》에 대하여서는 이때까지 별로 관계하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내 이름까지 찍어가시며 비판을 하시였다.

백인준동무도 같지!... 총체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할것이 아닌가!

당적책임을 가지고 량심적으로 해야지 《내야 네야》기 있는가 하시는것이였다.

이것은 내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처음 받은 비판이였다.

이때 나는 왜 그런지 얼굴을 들수 없었다. 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실 때 나는 그 말씀속에서 나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느꼈기때문이었다.

당의 작품앞에서 《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가슴에 확 안겨왔다.

이때까지 나도 내판에는 창작은 개인사업이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하고 생각은 하였지만 그이께서 매개 영화를 대하시는 그와 같은 립장에는 서있지 못하였던것이다.

남이 쓴 사품이라도 내가 도와주고 관계하는것이나 나와 결부해 생각했지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그것도 곧 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보지는 못하였다. 《처녀리발사》도 그랬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신다면 그 어느 작품이나 다 당의 작품이였다.

그런데 나는 그런 립장에서, 그런 정신에서 작품들을 대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앞에서의 작가들의 자세에 대하여 절절하게 가르쳐주시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평양으로 돌아가시었다.

아직도 어둠에 잠긴 새벽하늘밑으로 멀리 사라져가시는 그이의 자동차를 바라우고나서도 나는 오래동안 발길을 떼지 못하였다.

방안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아 밝아오는 새아침노을을 창문너머로 바라보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우리 당 문학예술앞에서 취해온 나의 정신세계를 돌이켜보며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가 환히 밝아오는것 같아 혼자 중얼거렸다.

(총체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네야 내야가 있는가?)

1972년 9월.

그이께서 영화혁명에 이어 가극혁명을 수행하시던 때이다. 그이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피바다식가극으로 옮기고계시었다.

이때도 나는 그이의 배려로 창조성원의 한사람으로 망라되어 그이의 가르치심들을 몸가까이서 받게 되었다.

하루저녁은 그이께서 대극장에 나오시여 가극에 들어갈 노래를 선정해주시었다.

이날 저녁 그이께서는 3곡가운데서 1곡은 재미없다고 제쳐놓으시고 나머지 2곡가운데 어느것을 선정하겠는가를 2곡을 번갈아가며 여러번 들어보시군하였다.

그이께서는 두 노래가 다 좋은데 어느것이 더 좋은가를 결정짓지 못해 그런다고 하시면서 좀처럼 결심을 내리시지 않았다.

이제는 밤도 꽤 깊었는데 둘러선 우리는 두 노래가 다 좋으니 그중 어느것이요 하나 정해주셨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종내 어느것이라고 선정해주시지 않고 관현악 편곡을 해서 반주를 붙여 다시 들어보시겠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노래를 백년후에 부를걸 생각해보라고 하시었다.

《백년후에!》

이 말씀에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지금까지 과연 단 한번이나마 내가 쓰는 시, 내가 쓰는 희곡들이 백년후 사람들이 어떻게 볼가 하는것을 생각하면서 써본 일이 있었는가?

백년후를 생각해보라!

그날밤 나는 가슴속깊이 그 무엇인가 숭엄한 감정이 안겨지는것을 느꼈다.

역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지도받을 때 일이다.

그이의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이제는 가극이 완성되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할 때였다.

가극대본도 인쇄하고 작품의 줄거리까지 인쇄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날도 자정이 가깝도록 무대련습을 지도하시고 의견을 주신후 인쇄한 대본과 줄거리를 가지고 돌아가시었다.

나는 한시를 놓았다. 이제는 작품상 제기될것은 없고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무대련습만 좀 하면 된다 하고 방심하는 상태에서 객석에 앉아 멍하니 무대련습을 보고있었다.

그런데 밤 2시가 넘어 대극장 서쪽 귀빈실로 전화가 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었다.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미 저택으로 돌아가셨으리라 생각했는데 이 시간에 전화를 걸으시다니 하는 생각을 하며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이께서는 가극 2장에 나오는 노래의 가사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고 줄거리 소개문에 있는 《의원》이라는 표현을 《약방주인》이라고 고칠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나도 줄거리소개문을 쓸 때 《의사》라고 하면 너무 규모가 큰 병원같아보이고 현대감이 날것같아 《의원》이라고 하였던것이다.

30년대 촌거리에서 고려약이나 파는 사람을 《의사》라고 하는것은 적당치 않고 《의원》이면 좋을것같이 생각하여 제판에는 적중한 표현을 골랐다고 생각하고 인쇄가 된후에도 별로 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의원》이라기보다는 《약방주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하시었다.

전화를 받고나서도 한참 송수화기를 놓지 못하였다.

돌아가서서 밤 2시가 넘도록 아직 주무시지 않고 지금까지 대본과 줄거리 소개문마저 하나하나 다 읽고계셨단 말인가?

전화말씀을 듣고보니 《약방주인》이란 말이 참말 적절하였다.

나는 객석에 돌아와 련습을 보기보다 혼자 새록새록 생각에 잠기었다.

(밤 2시가 넘어 줄거리소개문의 《의원》이라는 단 두글자의 표현에까지...)

이런 생각을 할수록 창작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진지하고 세심하고 예지로운 세계가 엄숙하게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작가를 전업으로 해온다는게...)

대극장 동쪽 하늘가에 새 아침이 흰히 밝아오는것을 보면서 나의 정신세계에도 무엇인가 또

하나 새로운 빛이 비쳐드는것을 느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나에게는 영화혁명으로부터 가극혁명, 연극혁명에 이르는 전기간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적은 부피 두터운 노트가 10여권이나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창작실천을 통한 문학수업과 인간수양의 교과서이며 무엇보다도 나의 작가정신을 배양하는 영양소였다.

나는 대학공부를 하고 40~50대 나이에 이르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문학과 예술에 대하여 그 첫걸음마부터 다시 새롭게 하나하나 배우며 70대를 넘기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90년 12월 27일 조선문학창작사에 보내주신 친필서한을 받아안게 되었다.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나는 감격에 앞서 화뜰 놀라는 심정이였다.

《방조자》라니? 더우기나 《조언자》라니? ...

나는 지금까지 자신을 그런 위치에 세워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물론 영원히 당을 따라나가며 끝까지 당과 운명을 같이 하리라는 결심은 하여왔다.

그러나 나의 창작활동이 우리 당활동에서 방조로 된다고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당에 조언을 준다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하였다.

그저 좋은 작품을 쓰면 된다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방조자, 조언자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안겨주시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자세에서 어떤 립장에서 창작을 하여 왔는가를 엄숙히 돌이켜보았다.

다시 말하여 나의 작가정신의 빈약에 대하여 작가로서 자기자신이 취해온 자세와 위치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데 비하여 얼마나 낮았는가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작가로서 취한 자세가 그랬으니 자신에 대한 요구성, 책임감, 사명감 역시 그만큼 낮지 않았는가!

만일 내가 벌써부터 자신의 사명감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 그런 자세에서 깨닫고있었다면 자기 창작에 대한 요구성과 책임감도 그만큼 달랐을것이며 창작뿐만아니라 나의 생활도 달랐을것이 아닌가!

나는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나의 작가적정신세계가 새롭게 풍만해지며 한단계 더 높은곳으로 상승하는것을 느끼었다.

왜 진작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며 창작해오지 못했는가?

이제는 나의 인생에 해가 지고 날이 저문 감이 있지만 남은 여생을 그런 작가정신을 가지고 창작을 하며 문학을 대하자!

죽는 순간까지 배운다더니 참말 그렇다.

70나이를 넘은 오늘에 있어서도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문학에 대하여 특히 작가의 념에 대하여 배우고 깨달으며 성장하고있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럴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나에게 있어서 다만 위대한 정치적령도자이실뿐아니라 나에게 문학과 삶에 대하여 요람에서부터 배워주시고 키워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가장 영명한 스승이시다.

내 이 세상에 작가로 태어나 그이의 제자로 자라온것을 무한한 긍지와 영예와 행복으로 생각한다.

수기

위대한 사랑의 해발

최익규

우리 작가들의 혁명적성장과 오늘 그들이 누리는 끝없는 행복과 보람찬 삶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작가들의 정치적생명이 그리도 빛나고 그들 모두가 혁명문학창조자의 영예를 지니고있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다.

어느해 정초에 나는 여러 지방을 현지도하시

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수행하는 영광을 지였었다.

그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낮에는 건설장과 협동농장을 현지도하시고 밤에는 당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였다.

우리 문학예술부문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예술창조사업에

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문학예술이 최근년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당창건 30돐을 앞두고 문학에 들의 모든 부문에서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겨울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창밖을 내다보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날 우리 문학예술인 대오에는 력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한 작가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시인 조기천이 쓴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아주 잘 쓴 작품입니다. 해방직후에 쓴 작품이지만 오늘 읽어보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시에는 당의 유일사상이 잘 구현되어있습니다.

일제침략자들에게 짓눌려 암흑천지로 변한 조국땅우에 혁명의 봉화를 높이 추켜올리신 수령님을 작품의 중심에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고매한 품모를 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이 시는 오늘도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들의 혁명교양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시인 리찬이 쓴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사도 기념비적인 명작입니다.

그들은 다 수령님께 충직한 재능있는 시인들이였습니다.

일찌기 떠나간 전사들을 그리시는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시인 조기천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난지 수십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함께 창작작업을 해오던 작가들의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지고있었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그를 못잊어하시며 자주 회상하시였고 세상을 떠난 시인 리찬에 대해서도 재능있는 시인을 잃었다고 못내 애석해하시며 그가 남긴 작품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한없이 은혜로운 품속에서 영생하는 시인들이였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들이 우리 문예사의 년대기우에 기념비적인 명작을 남긴 공로있는 시인들이라고 하시면서 조기천과 리찬 두 시인에게 혁명시인이라는 높은 칭호까지 안겨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그들의 묘를 경치 좋고 아늑한곳에 옮기게 하시고 묘비에 《혁명시인》이라는 불멸의 글발을 새겨넣도록 하시었다.

혁명시인! 참으로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고귀한 칭호였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혈전만리 피어린 싸움의 길을 걸으며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지어 절망에

울고 갈길몰라 몸부림치던 2천만 동포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길, 항일대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킨 혁명투사 김혁동지가 받아안았던 그 고귀한 칭호.

이 세상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고많아도 누구에게나 차례질수 없는 그 값높은 칭호를 시인 조기천과 리찬에게 안겨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데 있으랴.

천만년 대를 이어 갚아도 다 갚을수 없는 이런 은정어린 사랑을 받아안은것은 이미 떠나간 작가들만이 아니였다.

해방직후의 그 어렵고 복잡다단하던 시기에도 온 강산이 불타던 전쟁의 포연속에서도 벽돌 한 장 성한것이 없던 전후의 그 폐허속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못산다 하여도 나라의 보배들인 작가들이야 잘먹이고 잘입히지 못하겠는가 하시며 작가들에게 최상의 생활조건과 창작조건을 보장해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이어 오늘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가들 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삶을 빛내여주시며 무상의 행복을 안겨주고계신다.

어느 작가가 조금이라도 허약해보이면 부모의 심정그대로 심려의 마음을 못놓으시며 갖가지 보약재를 보내주시고 살림을 갖 시작한 작가가 있으면 친히 입사증까지 마련하시여 새집을 안겨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여름철이면 서늘하고 겨울철이면 해빛 따스한 휴양지에 창작실을 마련 해주시고 명절이면 명절마다 아들이 넘치게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은 작가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뜨겁게 미치고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작가들속에는 불우한 처지에서 글을 썼거나 육체적인 악조건을 이겨가며 글을 쓴 작가들이 적지 않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글을 쓴 작가도 있었고 손을 놀리지 못하여 불려주어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작품을 쓴 작가들도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 작가들속에도 불편한 육체적조건하에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있다.

하지만 어느 시기, 어느 시대 문예사의 갈피에도 우리 작가들처럼 그렇게 불리한 육체적조건에서 그토록 오랜 기간 신념과 의지에 추호의 동요나 굽힘도 없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왕성한 정력과 기백을 안고 수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써냈다는 그런 기록은 없다.

과연 무엇이 그들에게 그토록 철석같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심어주며 침체와 로쇠를 모르는 창작적열정을 북돋아주고 환희와 랑만에 넘친 삶을 안겨주고있는것인가.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베풀어주시는 높은 신임과 은정깊은 사랑이다.

침상에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은 한 시인에 대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웅변으로 말하여주고 있다.

1973년 2월 어느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 시인을 우리 당에 받아들일데 대한 은정 어린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 시인은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가슴과 격추를 상하여 젊은 시절부터 20여년을 침대에서 일어나보지 못하고 글을 써오는 불구의 몸이었다.

그래서 자주 병문안을 다니는 문단의 동료들도 그의 입당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인자신도 침대결에서 그의 손발이 되어 주는 어머니나 안해도 언제 한번 그런소원을 사람들에게 바친적이 없었다.

물론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싶은 소망이야 그 시인에겐들 어찌 간절하지 않았으랴. 자나깨나 잊어본적이 없었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 기어 이 지니고싶던 최대의 소망이었다. 하지만 붓을 든후 아직 해놓은 일이 적었고 운신조차 못하여 그 어떤 회의나 조직생활에도 참가할수 없는 몸이었으니 누구에게도 가슴속에 묻어둔 그 소망을 비쳐보일수 없었다.

그런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이름 없는 한 시인의 창작생활과 마음속의 간절한 소원까지 헤아려보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대오에 자랑높이 세워주셨던것이 다.

그리하여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시인의 집에서 일찌기 우리 당 력사에 있어본 일이 없는 세포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한 당일군이 목메여오르는 걱정을 억제하지 못해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의 창작적성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를 후보당원기간을 거치지 말고 정당원으로 받아들일데 대하여 하신 말씀을 전달하였다.

소원은 간절하였으나 그것이 실현될수 있다고는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시인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넘친 말씀을 전달받자 평시에는 가늠하지도 못하던 상반신을 벌떡 일으켜세웠다.

그리고는 방에 정중히 모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하고 목메여 외우고는 더 말을 잊지 못한채 이불깃에 얼굴을 묻고 오래도록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그 시각 시인은 받아안은 그 크나큰 사랑속에 자기를 대오에서 떨어져있는 환자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총창을 펜으로 바꾸어 들고 투쟁을 계속해나가는 혁명전사로 여겨주시며 영광스러운 혁명의 전위대오에 내세워주시는 친

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량없는 믿음을 벅차게 느끼고있었던것이다.

작가는 그때의 자기 심정을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만약 병상에서 일어나 걸어다니게 된들 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쁠수는 없으며 저의 생이 이보다 더 빛나고 영광스러울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아니, 백번천번을 다시 태어난대도 이 행복, 이 영광에는 견줄수 없는것입니다.》

꽃은 계속 피어야 한다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드시여 한 영예군인에게 혁명의 무기-필봉을 쥐여주시였으며 문화투쟁에 해빛밝은 서재를 갖추어주시고 문밖을 나서지 못하는 몸이라고 라지오와 텔레비존도 선참으로 보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번영하는 조국의 모습을 직접 목격할수 있도록 승용차로 자주 견학도 하게 하여주시고 건강이 더 나빠질까 염려되시여 특별치료권까지 보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매일매시각 받아안은 그 사랑에 너무도 보답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시인은 밤마다 잠 못이루며 시상을 다듬는데 거기에 또 혁명전사의 가장 고귀한 징표인 당원의 영예까지 안겨주시니 그 은정, 그 믿음을 무슨 말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이 무한대의 힘이 되고 샘솟는 지혜가 되어 시인은 침상에서 30여년을 일어나보지 못했고 어느덧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앉았어도 더욱더 왕성한 정열을 안고 인민들을 투쟁과 혁신으로 부르는 전투적시편들을 즐기치게 써내고있는것이 다.

여기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또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아마 세상사람들은 눈을 못보고 팔과 다리는 물론 온몸을 운신하지 못하는 70고령의 작가가 《갑오농민전쟁》과 같은 다부작장편소설을 썼다고 하면 잘 믿지 않을것이다.

방대한 옛자료들을 고증하면서 써야 하는 력사소설을 실명하고 전신불수가 된 사람이 써낸다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위대한 사량의 품속에서 태어나는 조선의 수많은 기적들중의 하나이다.

그 작가가 마지막으로 볼수 있었던 바늘구멍만한 시야마저 완전히 잃은것은 1960년대말이었다.

그때 작가의 나이는 이미 환갑을 넘어서고있었다.

인생말년에 완전실명을 당한 작가는 이제 더는 창작을 할수 없게 된 자신을 두고 가슴을 치며 어둠속에서 안타까이 모태졌다.

창작을 계속하는가 단념하는가 하는것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히 글을 쓰는가 못쓰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계

급투쟁을 반영한 작품을 써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끝없는 번민속에 모태기던 작가는 심한 뇌출혈을 당해 전신불구의 장애까지 받게 되었다.

이런 몸으로 창작사업을 계속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앞을 보고 오룩이 성한 사람들도 그나이가 되면 기력이 쇠진하고 기억이 삭막해져서 뜻대로 창작사업을 해내지 못하는데 하물며 앞을 못보고 전신을 움직일수 없는 로년의 작가가 어떻게 고도의 정신적집중력과 나래치는 환상과 불타는 열정을 요구하는 창작사업을 해낼수 있겠는가.

그러나 작가는 절망속에 오래 머물러있지 않았다.

작가는 력사소설 《갑오농민전쟁》을 3부작으로 완성할것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앞에서 맹세다졌던것이다. 심장이 뛰고있는 한 그 맹세를 어길수없었다. 바로 그 맹세를 실현하는 거기에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은덕에 적으나마 보답하는 길이 있었다.

작가는 안해에게 불러주어 받아쓰게 하는 방법으로 창작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신심은 확고하지 못하였다.

눈으로 보면서 제손으로 써도 제대로 되지 않는것이 작품창작인데 불러주어서 남의 손을 빌어 써우는 방법으로 과연 작품을 완성해낼수 있겠는지, 또한 장편소설 3부작을 다 쓰자면 어려해가 걸리겠는데 그때까지 과연 생을 유지해낼수 있겠는지 하는것도 장담할수 없는 일이었다.

작가는 이런 위구를 애써 누르며 새로운 력사소설 창작에 착수하였다.

고충은 많았고 어려운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였으나 날이 감에 따라 원고지 부피는 점점 두터워갔다.

그러던 어느날 그 작가의 창작정형과 생활조건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의 안해가 인민반에서 조직하는 사업에 참가하느라고 가끔 남편의 창작사업을 돕는데서 지장받는다는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그가 전적으로 남편의 글쓰는 일을 도와주고 시중을 들어주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작가도 그의 안해도 자기들의 심정과 생활상권의를 그렇게 세심히 헤아려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에 목이 메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따사로이 비쳐드는 그 사랑에 작가는 재생의 기쁨, 창조의 열정으로 가슴을 들먹이며 창작을 다그쳐나갔다.

드디어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 제1부가 완성되어나왔다.

이 책을 받아드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고심어린 작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주시였고 그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할데 대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또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앞을 못보는 작가의 고독감마저 깊이 헤아리시고 라지오가 달린 최신형전축까지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그뿐만이 아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의 창작을 도와주고있는 안해의 당연한 수고도 깊이 헤아리시며 그에게 고급시계와 고급양복천 등 귀중한 선물을 보내주시였고 늙은이가 남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거라고 하시며 보청기까지 보내주시였다.

작가의 신상에 닥친 불행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하나의 고충이라도 덜어주시려 깊이 마음쓰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사랑은 작가에게 소생의 환희를 안겨주고 창작의 역센 날개를 달아주었다.

작가는 신심도 드높이 《갑오농민전쟁》 제2부 창작에 들어섰다.

그러던 작가에게 그만 치명적인 불행이 겹쳤다. 두번째 뇌출혈이 작가를 생사의 기로에 떠밀어넣었던것이다.

사흘만에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온몸은 물론 성하던 한팔까지 움직일수 없게 되었고 허가 굳어져 창작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던 말마저 할수 없게되였다. 게다가 청각과 기억력도 마비되어버렸다.

작가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사람들의 물음에 의사는 불러주는 방법으로도 더는 창작할수 없을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것은 의사의 말이기전에 현대의학이 내리는 어쩔수 없는 진단이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은덕에 다소나마 보답하고자 일심정력을 다하여 써오던 소설을 완성하지 못한채 눈을 감아야 하는 작가의 심정은 미여지는듯 아팠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나락에 깊이 빠진 작가에게 소생의 빛발이 비쳐왔으니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의 해발이였다.

이무렵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전반사업을 돌보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 작가가 중태에 빠진 상태에서 생일 70돛을 맞게 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시고 나를 찾으시였다.

내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는 집무실로갔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보시던 문건들을 조용히 책상옆에 밀어놓으시며 근심어린 안광으로 나를 보시더니 지금 작가의 건강상태가 어떠한가, 작품은 어느 정도 썼는가를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나 작가의 생명을 구원해내야 한다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가 며칠후에 70돛생일을 맞이한

다는데 건강한 몸으로 진감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비록 중태에 빠져있지만 우리는 그에게 생일상을 잘 차려주자고, 혹시 그것이 불사약이 될는지 알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승엄한 격정에 잠긴 나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작가를 찾아가 생일 70돛을 축하해주고 생일상을 전달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꼭 구원해내야 한다고, 혈압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약도 함께 보내주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 시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안팎에는 병고에 신음하는 작가에 대한 깊은 심려의 빛이 어려있었다.

안색을 흐리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모습을 우려했던 나는 가슴속에 북받쳐오르는 걱정때문에 발걸음을 뒀을 수 없었다.

나는 숫구쳐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가까스로 참으며 방에서 나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생일상이며 귀한 약들을 가지고 내가 환자를 찾아갔을때 그의 병세는 예상했던것보다 더 심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며 전신마비로 운신조차 할수 없었던 작가는 내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의 생일 70돛을 축하하여 친히 생일상을 보내주시고 뇌출혈에 좋다는 귀한 약까지 보내주셨다고 말하자 마치도 그 모든것을 듣고보는듯 일어나앉으며 옷깃을 여미고 생일상과 보약을 끌어만지는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 하나의 기적이였다.

그는 무엇인가 말하려 하였으나 입이 움직여지지 않아 안타까와하였다.

그가 말하지 않은들 어찌 그의 심장의 웨침을 모를수 있으랴.

그는 분명 마음속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고 그 정다운 존함을 부르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있는것이였다.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마비되었던 작가의 기억력과 청각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였고 또 그 얼마후에는 말까지 할수 있게 되였다.

고령에는 좀처럼 바랄수 없는 이 기적적인 소생을 어찌 진귀한 약재의 효능에만 있다 하랴.

작가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친부모의 심정으로 극진히 아끼고 보살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위대한 사랑이 바로 다시는 소생할 가망이 없던 그에게 새로운 육체적생명력과 의지와 정력을 소생시켜준 세상에 더없이 귀중한 불사약으로 되었던것이다.

이런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작가는 어둠속에서도 100년전의 시대와 인간들, 생활세부까지 꿰뚫어볼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게 되였고 주체시대의 우람찬 진군길에 발걸음을 맞추며 방대한 장편력사소설 《갑오농민전쟁》 제2부를 계속 써나갈수있게 되였다.

우리 작가들에게 불사의 정신적힘을 부여주시고 인간의 가장 값높은 징표인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며 죽어서도 빛을 뿌리도록 높이 내세워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정녕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은인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살며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처럼 행복하고 긍지높은 문필가들은 이 세상에 없다.

가사

내 나라의 2월은 축원의 꽃계절

한관호

창문가에 피었네 김정일화
거리에도 피었네 봄맞이 꽃이
향도의 밝은 태양 찬란히, 솟은
내 나라의 2월은 축원의 꽃계절
송이송이 홍매꽃 향기 풍기고
아름다운 만수국 금빛 뿌리네

향도의 밝은 태양 찬란히 솟은
내 나라의 2월은 축원의 꽃계절
봄, 여름에 피는 꽃 2월에 피고
가을 한철 피는 꽃 2월에 났네
향도의 밝은 태양 찬란히 솟은
내 나라의 2월은 축원의 꽃계절

운명의 품

김일규

반나마 희어진 머리를 곧추 들고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선생앞에 앉아있는 학생같았다. 원고지를 펼치고 마주했을 때면 여느때같이 않게 바로잡는 승엄한 자세였다.

벌써 몇시간째 뚫고들어가는 사색의 막장에서는 버럭만이 자꾸 떨어지건만 그 자세만은 흠여 질상실지 않다. 이마에 뚜렷해지는 주름살 하나 하나에도 시창작의 고심어린 낮과 밤이 그대로 엮보이는 그의 인생행로에서 요새처럼 감격과 흥분, 기쁨 속에 흘러가는 때는 없었다.

그러나 왜서인지 하많은 시어들이 머리속에서 뿔뿔히 쏘아져서 쏟아지지 않는다.

수북이 부른 재떨이를 가까이로 끌어당기는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신심과 기대속에 영채돌던 눈가에는 물기같은것이 번뜩이였다.

지긋게 갈마드는 고민의 회오리가 머리속을 휘젓는다.

《정녕 그 뜨거운 사랑의 열도를 표현할 시어들은 나의 시능이 가닿지 못하는 아득한곳에 있단 말인가?...》

안타깝고 모태김속에 깊어가는 밤이였다.

날마다 자신에게 안겨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에 감사의 눈물을 머금으며 송시를 쓰고저 붓을 들었건만 만족한 시어들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건딜수 없는 심장이며 잠들수도 죽을수도 없는 몸이였다.

얼마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 80년대초에 친히 지도하여 완성시켜주신 서정시 《어머니》를 다시 추억하시면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작품이라고, 시인을 잘 안다고, 인생체험을 많이 한 시인만이 이런 작품을 쓸수 있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나가 창작생활을 하고있는 시인에게 새로 완공한 광복거리의 살림집을 주며 평양에서 창작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던것이다.

사랑과 사랑이 거듭될수록 더 좋은 글을 써서 기쁨을 드리고싶은것이 시인의 간절한 소원이였다. 허나 요 며칠동안은 원고지를 펼치면 심장의 박동만이 귀전에 멍멍하게 울릴뿐 피딱피딱 가슴 언저리를 누르던 생각들도 어디에 집중시키고 통일시킬지 그 계기점은 좀처럼 머리를 내밀지 않았다. 겹치고 뒤엉키는 감정의 파도만이 심장벽을 들때릴뿐이였다.

아직은 채 숙성되지 못한 시의 태아가 꿈틀대

고있었다.

서둘러 담배를 비벼끄며 자료수첩을 번지는데 누가 곁에서 옮기라도 하듯이 쟁쟁한 시구절이 사색의 바다속으로 헤엄쳐 들어왔다.

...

아, 나의 심혼이 불붙어 퍼덕이는 조각들이여
네가 무엇이기에 무엇이기에
내 이토록 너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는것이냐
...

언제인가 일기장의 한구석에 남겼던 시구절이 새삼스럽게 대답을 청한다.

《정녕 나에게 시는 무엇인가?...》

얼마전 광복거리의 화려한 새집에 이사하는 날 서재를 정리하다 말고 짐짝우에 걸터앉아 시를 쓰고있는 그를 찾는 딸에게 안해는 이렇게 말했다.

《시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아버지다. 아마 오늘은 너도나도 이 집도 온통 시의 고간처럼 보일게다.》

그렇다. 그에게 있어서 시는 호흡과도 같고 생존과도 같은것이였다.

30대의 그 시절 먼 북변의 광산에서 그 누군가가 그에게 시를 쓰지 않으면 밥을 못먹는가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다. 그때 그는 석수와 땀에 젖은 자그마한 수첩을 소중히 쓸어만지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점점이 새겨지는 이 피같은 흔적들과 헤여지면 나는 죽을거요.》

그처럼 자신의 인생과 시를 떼어놓고 생각해본적이 없는 그였다. 바로 그에게 시인이라는 긍지 높은 삶의 영예가 있어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값있게 한생을 걸어갈수 있는것이 아닌가!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1968년의 어느날, 허천청년광산의 크지 않은 회관앞에는 음악무용서사시극 《력사의 새벽길》을 공연한다는 광고가 나붙었다.

바로 이 작품의 창작가들속에는 이곳 광부로 일하고있던 김철동무도 들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시기로부터 항일 유격대가 창건된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거대한 력사적사실을 대담하고 통이 큰 예술작품으로 구현하기까지의 창조과정은 실로 그에게 있어서 자신을 더욱더 혁명적수령관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배

움의 나날이었다.

정녕 당은 과오를 범하고 위축되어있는 그의 심장에 갱생의 숨결을 넣어주고 열정의 피를 부어준 어머니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적생명문제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하며 자식의 생명을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들의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며 그들이 정치적생명에 자그마한 흠집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선한 자식, 흠있는 자식 차별하지 않는 어머니처럼 당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으며 그의 지적능을 귀중히 여겨주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와 그의 작품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계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학생들과 함께 수도 건설에 참가하고계시던 1958년 5월말의 어느날이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 밤에 진행할 청년학생들의 시랑송모임준비를 몸소 지도하여주시였다.

그때 학생들은 조기천의 서사시 《백두산》을 한대목씩 나누어 랑송하기로 하였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많은 학생들이 하나의 작품을 놓고만 랑송할수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몸소 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김철의 시 《송가》를 선택하여 일부련들에 수정가필까지 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친히 수정한 부분을 읽어주시면서 지금 시인이 먼 동해안에 있는 공장에 파견되어있기때문에 토론은 못했지만 선동사업을 위해 좀 고쳐서 랑송했다면 그도 이해할것이며 원작은 원작대로 남을 좋은 작품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그자신도 알지 못하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손길은 그의 걸음걸음을 어제오늘도 손잡아 이끌어주고있었다.

1979년 12월 그 사랑의 손길은 그때처럼 다정히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가 로동속에서 물어둘수 없는 충격들이 있을 때마다 썼던 시 《만수대》, 《금요로동》, 《다시 오리》를 친히 보아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부 표현들을 수정하여 《조선문학》을 비롯한 출판물들에 발표하도록하며 앞으로도 계속 창작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라는 배려를 돌려주시였던것이다. 것처럼시를 쓰고싶어하는 한 광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돌려주시는 그 사랑은 그의 가슴속에 망울졌던 시의 꽃망울을 활짝 터쳐주었으며 드디어 드넓은 대지에서 향기 풍기도록 해주신 뜨거운

태양의 빛발이었다.

갓 서른 젊은시절에 잘못을 저지르고 작가의 귀중한 자격을 잃었던 그였건만 것처럼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작품을 기다려주시신분이 바로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였다. 그 품을 떠나서는 참된 인간의 가치와 인생의 보람도 없다는것을 절감하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사무치게 그림던 그이께서 친히 미숙한 시를 다 읽어주시며 마음속 깊은곳에 자리잡은 그 소원까지 헤아려주시신것이였다.

반아안을수록 너무도 과분하고 외람된 자책감에 눈물만이 하염없이 솟구쳤다. 하기에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검덕광산과 룡양광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위대한 스승의 거룩한 자욱이 어린 현지지도의 로정을 걷고싶어 금골의 선광장과 4. 5갱길로 서둘러 달려가보았다. 그이께서 타시였던 인차와 20리 긴 갱구길, 막장전투지휘부, 그이의 따스한 체온이 그대로 어려있는 수수한 안전모, 손수 불심지를 돌구시며 들고다니시던 간대라, 친히 보아주시는 광산의 전망도, 평범한 나무의자와 책상 하나도 그토록 쓸어보며 눈물을 흘렸었다. 찬 석수량물이 떨어지고 발과연기 자욱한 갱깊은곳까지 들어오시여 광부들의 돌가루 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였다는 그곳 광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게는 그 모든것이 자신에게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믿음으로 생각되였다.

바로 이것이다. 그 사랑의 손길로 천길막장, 땅속 깊은곳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이 손도 따듯이 잡아 이끌어 위훈의 언덕으로 떠밀어주고 거인의 슬기와 용맹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머니...

그의 심장에서는 또다시 시의 격랑이 일어번졌다.

《그렇다. 나는 하늘가에 흠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그대 품에 다시 돌아올 그대의 아들이다...》

그는 또다시 붓을 달렸다. 스승이시며 은인이시며 향도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의 송가를 올리는것은 그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생의 목표였다.

허나 20년 가까이 전문창작가들의 대오에서 떨어져 생활한 그는 현시대가 요구하고있는 시문학의 요구를 다 알지 못하고있었다. 어쩐지 의도만 앞서고 능통하고 선언같은 시행들만이 자꾸만 딱딱하게 라렬되였다. 한 작품을 놓고 수백매의 원고지를 넘기여도 좀처럼 만족한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다.

욕망과 흥분도 아직은 시가 아니기때문이었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강령적인 문헌들을 펼쳐들었다. 자자구구 음미할수록 길을 잃고 수림속에서 헤매이며 피투성이가 되고 갈증으로 타고난 그의 가슴에 시원한 생명수처럼 흘러들고 등불처럼 비쳐왔다.

풍부한 서정성, 심오한 철학이 깃든 시, 자신이 체험한 감정이 곧 시대와 인민의 사상감정과 밀착되어 높은 일반화의 개성화의 경지에 올라야 한다는 강령적지침!

시인의 가슴에 다시 박동이 커지고 숨이 차올랐다. 그때에야 그는 낡은 도식의 울타리를 벗어 못나고 묵은 썩대밭에서 헤매이는 자신을 알게 되었다. 다시금 창작의 나래가 열정의 바람을 일으켜 퍼덕이기 시작하였다.

기쁨도 피로움도 함께 나누며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이, 깊은 밤에도 미숙한 시 원고들을 한 줄한줄 읽어주시면서 가슴속에 깊은 그늘을 안고 모태기는 자기의 얼굴을 지켜보고계셨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시인은 그때를 추억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낳은 어머니는 나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주지 못했고 끝내는 나를 키워주지 못했지만 그이께서는 준엄한 싸움길에서 뒤떨어진 전사마냥 체구실을 다하지 못한 저를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끌어주시었으니 어찌 그이의 자애로운 품을 어머니라는 말로만 부를수 있겠습니까.

나의 머리속에는 새롭고 뜻깊은 시의 씨앗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그에게 시적재간이 남달라서 그렇듯 절절한 시구절들이 서정시 《어머니》에 썩여진 것이 아니었다. 뜨거운 사랑과 믿음, 위대한 덕망을 지니고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한 시인의 체험된 진정 이 그대로 시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깨끗한 원고지를 펼쳐놓고 정중히 마주앉았다. 이렇게 원고지를 펼쳐놓을 때면 어머니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고 굽어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영상만이 눈앞에 가득찼다.

《난 못살아, 어머니 없이는... 이 어머니 없이는...》

온몸에 전류같은것이 쭉 흐르며 만년필을 왼손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 순간 내쉬는 숨결을 따라 무엇인가 시원하게 쏟아지는 감을 느꼈다. 그것은 자기자신도 미처 건잡을새 없이 줄기찬 물결의 흐름처럼 심장을 빠져나왔다.

...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

자기도 모르게 쏟아지는 눈물이 원고지를 적시었다.

...

응석과 어리광만으료야 어찌

그대 사려깊은 눈빛을 마주볼수 있으랴

당이며, 어머니시여

그대 현명한 스승의 시선

그대 로숙한 사령관의 안광이

저 멀리 내다보는 미래의 인덕으로

내 걸으리라-

그대 나를 위하여 마음 기울인

그 모든 낮과 밤을 다 안고 걸으리라

...

그처럼 가슴속에서 끓던 봉암이 드디어 화산으로 분출하였다.

그는 원고지에 얼굴을 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 따를 그 품에 진정을 터놓은 전사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81년 2월 서정시 《어머니》를 친히 보시고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었으며 《로동신문》과 중앙방송, 텔레비존에도 발표하도록 해주셨다.

한 전사의 성장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면서 몇몇이 위훈을 안고오는 그 순간을 누구보다도 기다려주시면서 영예도 행복도 고스란히 다 안겨주시는 그 손길을 잡고 시인은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큰걸음을 내짚게 되었다.

혁명전사 한사람한사람을 모두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를 작가동맹 맹원으로 다시 복맹시켜 그토록 꿈결에도 서보고싶던 작가대오에 다시 세워주시었다.

사랑과 믿음에 충성과 효성으로!

우리의 생존방식을 밝히는 이 생활의 신조는 시인의 순간순간을 그이께 기쁨을 드리는 순간순간으로 오늘도 이끌어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 서정시 《어머니》가 《로동신문》에 실린 날 밤 시인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시로 남겼다.

삼가

기다리노라

위대한 스승께서 잠간이라도

시선을 주실 때를 기다리노라

《시인도 왔구만!》

그이

시를 보아주실 때 나도 알아보신다면

나는 더는 바랄것없는 시인

그러나 그이

책장을 다 넘기시고도

《시인은 안보여...》 하신다면은

나는 벌써 세상에 없어도 좋을 시인

기다리노라
마치도 지금은 이 기다림만이
나의 생존인듯이
운명 인듯이...

이날의 일기는 한생의 맹세이기도 하였다. 언제나 좋은 작품을 보시며 그이께서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게, 다시는 뒤떨어지고 헛걸음도 안하는 자식을 보시며 더는 심려하시지 않게 하고싶은 동행자의 영원한 선서였다.

용서하시라

누구나 그러한것처럼 시인 김철동무도 해방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우리 글을 배웠고 당의 품속에서 시인으로 성장한 사람이었으며 1951년 18살때에 화선에서 당대렬에 들어온 사람이었다. 이미 그는 전선길을 걸으며 싸우는 고지에서 수많은 시들을 창작하였으며 1958년에는 시집 《갈매기》, 1961년에는 시집 《철의 도시에서》를 출판하였다.

그러나 때이르게 차례진 성공에 도취되어 사상 단편을 게을리한탓으로 1960년대초에 생활에서 심각한 과오를 범하고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잃게되었다.

이 소중한 삶의 영예를 내놓고 그의 존재는 이 땅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그렇다고 무의미한 한생을 마무리할수도 없었다.

그는 당대렬밖에서 당을 똑똑히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한목숨보다 더 귀중한것이 사회정치적생명이라는 운명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가 창작한 서정시 《어머니》에서 읽을수 있는것처럼 어머니당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이 심각한 사상정신적체험의 분출이었다.

어머니 슬하를 떠나 먼 객지에 나가 생활할 때에는 누구나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한다. 것처럼 당대렬밖에서 생활한 그의 20년세월은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으며 꿈결에도 어머니를 더듬어찾는 아기처럼 언제나 가슴속에 간절한 소원으로 자리잡고있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최지은 자신의 마음을 달래이며 지금까지 받아안은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벌써 외람되게 머리드는 그 소망의 머리를 누르곤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잃어버린 당원의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두고 마음쓰는 그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려보고 계시었다.

감격도 새로운 1982년 4월 9일 그는 뜻밖에도 당중앙위원회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영문도 모르고 달려온 그를 진정시키며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돌려주신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대한 참으로 뜻깊은 내용의 말씀을 전달하는것이였다.

그 동무는 오래동안 당밖에서 생활하였으나 변함없이 당에 충실하였다고, 그는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단련하면서도 높은 창작적열정으로 끊임 없는 문필활동을 벌려 좋은 시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하시며 비록 지난날에는 엄중한 과오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 동무처럼 오직 수령님과 당만 믿고 따르겠다는 신념을 안고 충실하게 일한다면 우리당은 그를 다시 대오에 받아주어야 하며 그 동무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는것이였다.

그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믿기조차 어려운 이 꿈같은 사실앞에서 그는 하염없이 랑볼을 적시는 눈물을 건잡을수 없었다.

포연서린 화선의 그 토굴에서 어린 가슴에 당원증을 받아안던 그날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안겨주시는 그 사랑, 그 믿음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으랴.

눈물, 얼굴을 싸친 손등으로 끝없이 젖어나오는 그 눈물은 검은머리 희여지는 오늘에 와서 목숨처럼 소중한것을 다시 찾게 된 한없이 행복한 시인의 마음속 고백이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꿈속처럼 이 한마디만 외우고 다시 외우면서 수도의 거리를 거니는 시인을 축복하듯 화창한 봄의 꽃향기는 대기에 가득차 넘치였다.

용서하시라 어머니시여

무명천으로 통바지 해주었다고

투정질하며 어머니의 속을 태우던

이 아들을 용서하시라

투정질도 하고 속을 태우던 한 아들이 어머니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허나 용서하지 마시라 조국이여

진격의 길에서 내 주저하며

순간이나마 생명의 귀중함을 생각한다면

하여 나의 가슴을 겨누는 적의 탄알이

전우의 가슴을 뚫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마시라

...

찬란한 향도의 품에서 인생의 첫걸음을 다시뎌 전사의 신념과 의지는 또다시 시구절속에 뜨겁게 담겨지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시 《용서하 시라》를 보시고 아주 좋은 시라고 또다시 치하의 말씀을 해주셨었다. 그 시를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그의 깊은 속죄를 받아들이시며 근심만 끼쳐드리고 제구실을 못하던 자식이었기에 더더욱 내 세워주고싶어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정과 믿음에는 끝이 없었다.

용서하시라! 벗들이여, 동창생들이여,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친근하게 그를 기다려준 독자들이여.

그리고 잊지 마시라! 그가 최후의 돌격전에서 기발하고 나아가다가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 ×

요사이 편집부에는 이런 편지들이 자주 오고있다. 《서정시 <어머니>와 같은 시를 많이 편집하여 주십시오》

《시<어머니>를 창작한 시인은 지금 어떤 글을 쓰고있습니까?...》 등등...

우리의 다정한 《조선문학》의 독자들은 누구보다도 시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성과를 기다려주고있다.

이 기다림과 기대 속에 사는 우리 시인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시인 김철은 이번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한 서사시 《끝나지 않은 담화》, 서정서사시 《해돋이》를 내놓고 지금 4월 15일 위대한 수령님께 올릴 송시 창작을 위하여 현지에 나가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는 패기와 정열에 넘쳐 시창작의 보람찬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있다.

나에게 어머니만 있으면

리종덕

내 지금
흰머리카락이 었히는 오늘까지도
어머니따라 들에 나갔던
어릴적 그날을 못잊어라

어머니는 이랑에서 김을 매시고
나는 길옆에서 들꽃을 따는데
어데선가 먹장구름 몰려오더니
온 들을 산산이 쪼개놓을듯
번개를 치고 우뢰를 터치였네
태질하듯 폭풍이 일기 시작했네

나는 금시야 울음을 터치며
엄마-하고 었어질듯 달려가
어머니 치마폭에 와락 안겼네
그러자 번개도 우뢰도 폭풍도
나에게는 도무지 무섭지 않았네
흠물오른 그 한겹의
어머니 치마폭이 무엇이었던지

이윽고
어머니에게 쫓긴듯
우뢰는 먼산너머에서 흠어지고있었네
엄마 치마폭을 빠끔히 열고보니

아, 놀랍게도
들꽃은 그대로 웃고있었네
쫓빳하늘은 그대로 푸르러있었네

아, 어머니 품에서는
두려움 몰랐구나
폭풍도 우뢰도
어머니만 있으면
이세상 그저그만이였구나

당이여
어머니라고밖에는 더 달리 부를수 없는
조선로동당이여
어머니만 있으면 그저그만이던
내 어릴 때처럼
나에게는
두려운것 무서울것 하나도 없구나

지구가 열쪼박으로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여도
백두산의 메뿌리를 안은듯
내 가슴속 심장은 든든하여라
어머니처럼 내 삶을 다 말아안아주는
위대한 당이 나에게 있어

기다려 잠들지 못하는 밤

박명섭

만민의 축복속에
인류의 명절
2월의 명절을 맞는 락원에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는데
어찌하여 이밤
수도의 거리는 잠들지 못하는가

조용히 창가에 섰노라니
어디선가 은은히 들려오는
《나의 어머니》 노래여

아 그때문이였구나
락원의 불밝은 창가여
오각별 빛나는 군모밀에
밝게 웃는 그 영상
이밤따라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우리의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이밤이면 오시려나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저 불밝은 창가마다에 어려
잠들지 못하는 수도의 밤이여

어머님 오시는 그 길우에
꽃주단 환히 펼쳐 드리자고
대성산 주작봉마루의 별들도
잠들지 못하는 밤

금시 활짝 열린진
락원의 대문으로
기약없이 떠나가신 어머니여

선뜻 들어서실것만 같아
저 당중앙의 창가에도
불빛이 꺼질줄 모른다

아, 2월의 명절을 맞는
온 나라 가정에
어머님 잠시라도
모시고싶은 마음
노래되어 밤하늘에
끝없이 끝없이 울려퍼진다

지금도 귀를 기울이면
백두밀영귀틀집에서
포연 스민 군복자락에
사랑하는 아드님을 감싸안으시고
만가지 소원을 헤아려
조선의 고운 꿈 키워주신
어머님의 그 유정한 목소리
들려오는듯하구나

그날에 어머님의 만가지 소원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
그날에 아드님의 고운 꿈
락원의 거리로
행복의 거리로 솟아올랐으니

세월이 흐를수록
행복이 커질수록
기쁨이 넘쳐날수록
어머님 기다려
잠들지 못하는 밤이여

인식의 한계를 두고

안동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물론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당의 은덕에 대하여 노래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의 고마운 은덕만을 노래하여서는 당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할수 없습니다.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위대성을 폭넓게 형상하려면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깊이있게 잘 형상하여야 합니다.》

그날도 나는 작품의 줄거리를 짜느라 온종일 책상에 마주앉아 공공 갑자르고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을 어떻게 하면 더 빛나게 형상할것인가. 어느 생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위대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겠는가.

책상과 탁자우에는 그동안 취제한 자료묶음이 가득가득 쌓여있다. 그것을 헤쳐볼 때면 저도 모르게 황금열매가 주렁진 울창한 수림속에 들어서는감을 느낀다. 어느 열매부터 어떻게 따서 어디에 건사하고 쌓아야 할지, 어느것이 더 향기롭고 어느것이 더 감미로운지...

그속에서 나는 났을 잃고 방황한다.

매혹과 신비의 세계에서 탐방이라고 할수 있고 흥분과 감동 속에서 무아의 경지에 빠진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감동깊은 력사적사실, 문학적이야기라고 하여 소설에 다 그려질수는 없다. 그렇다면 취사선택을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할것인가?

나는 또다시 부지런히 취재수첩과 자료묶음을 들추기 시작하였다. 하나와 같이 주옥같은 생활과 격동을 불러일으키는 서사시적화폭들이다. 위대한 인간의 성스러운 모습, 그 비범함과 슬기로움, 우주를 휘여잡을듯한 담력과 패기,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 시대와 인류 앞에 지닌 사명...

나의 상상력과 환상력을 깡그리 짜내어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세계를 다 파악할수 없다. 그 세계의 한 가늠만이라도 형상으로 재현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느덧 저녁해는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나의 친구인 조동무와 출판사의 편집원이 그때에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다가오는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수필 하나를 쓸수 없겠는가 하여 찾아온 그들이었으나 우거지상이 된 내 꼴을 보고는 차마 그 말을 못하겠는지 무엇이 걸려서 그렇게 모대기는가고 물었다. 나는 기회를 놓칠세라 입

을 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지도해주신 평양축전에 대한 장편소설을 구상하했는데 보시다 싶이...》 하고 두손을 벌려보였다. 나의 거동이 매우 측은하게 여겨져서인지 조동무가 (그도 역시 작가이다.) 잠시 생각을 고르다가

《이것도 도움이 되겠는지...》 하고 이야기의 서두를 뗐다.

...1989년 7월 4일 온 나라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라는 명절기분속에 흥성거리고있을 때 우산장창작실에 나간 작가들만은 자기 작품의 주인공들과 함께 움직이느라 텔레비전에 마주앉을 사이도 없이 드바빠 지냈다. 이렇게 해가 지는지 뜨는지도 모르고 창작에 몰입해있던 오후쯤해서 현대의 소형 행동차가 들이닥쳤다.

찾아오는 손님도 별로 없어 호젓하기 그지없던 창작실에 나타난 보지 않던 차의 경적소리에 호기심을 품고 찾아나갔을 때 작가들은 너무나도 뜻밖의 일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차에서는 아직껏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거대한》 크기의 물고기가 내려졌다. 이제라도 물에 놓으면 파도를 일으키며 내달릴듯 생긴한 물고기는 중량 수십키로그램에달하는 화련어였다.

큰 메돼지 맛잡이의 커다란 물고기를 놓고 두눈이 휘둥그래진 작가들앞에서 고기를 가지고온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감명깊은 사연을 들려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축전명절조차 쉬지 않고 창작에 고심하고있는 작가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고기라고...

수도를 떠나 집을 떠나 오직 창작의 세계에만 파묻혀있던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희귀한 물고기여서 가공방법을 잘 모를수 있는데 회를 치되 어떻게 치며 국을 끓이되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가르치심까지 일일이 주셨다는것을 들었을 때 한결같이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조동무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방안은 오래동안 숙연한 분위기로 휩싸여 있었다.

물론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였지만 나의 심정은 또다시 뒤흔치며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편집원은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렇다. 나는 이 이야기를 두번째 듣고있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것은 1989년 7월5일이였다. 국제문학창작실쪽으로 가던중에 한동무로부터 그 사연을 전해들은 나는 즉시 발길을 되돌려 봉화산려관으로 달음쳐갔다. 조선축전준

비위원회의 지휘부로 되고있는 그 러관의 한방에는 당시 축전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사업을 보좌하는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있었다. 누를수 없는 감동과 직업적인 취재심리에 끌려 그의 방에 뛰어들어 나는 다짜고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화련어를 보내주시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런데 그 일군은 전혀 그 사연을 모르고있었다.

《어저께라고?! ... 그이께서는 어제 새벽부터 밤까지 단 몇분의 여유도 없으시는데, 저걸 보시오.》

하며 그 일군은 7월 4일 하루동안에 그이께서 주신 가르치심과 비준해주신 문건더미들을 가리켜보였다. 나는 성급히 취재수첩을 펼쳐들고 그 문건들을 목록화하여 적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몽골과 세네갈 일군들을 접견하시면서 하신 교시와 접견자들의 반영문제와 관련한 말씀과 지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디아민족구락부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교시와 관련하여 외교부와 사로청이 해야 할 사업에 대한 가르치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실것을 제의한 여러 나라 대표단사업과 관련한 대책안 제시.

-7월 7일에 열리게 될 《주최국의 날》 행사준비에 대한 세부적료해와 가르치심 등을 비롯한 20여건의 문건 제기에 대한 료해와 가르치심...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것으로 실례를 들면 《독립절》을 맞는 외국청년들이 저희네 명절을 《세계적인 절경》인 보통강반에서 설수 있게끔 해줄수 없는가와 같은 문제였다. 정치외교적인 고려는 둘째로 치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복잡한것을 야기시키는 문제인가.

더구나 이런 문제들은 미리 예견되었던것들만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수시로 제기되는것들이었다.

자료를 보고난 나는 그 일군에게 이처럼 많은 일감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안겨드리는것이 우리 혁명의 거창한 현 실태로 볼 때는 어쩔수 없지만 지나치지 않는가고 말하였다.

그 일군은 나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어쩔수 없다고, 모든 일군들의 키가 그이의 높이에 도달해야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서 하루사업에서 그이의 업무량을 보면 내가 본것은 빙산에 일각뿐이라고 하였다. 하긴 그랬다. 축전이 제아무리 요란해도 나라전반사업을 볼 때는 수도를 중심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것이 아닌가. 당, 국가 전반사업의 중하가 그이께 지워져 있었다.

그렇다면 그이께서는 어느 시간에 어떤 계기로 남포시교외의 외진 산골 우산장창작실의 몇몇 작가들을 상기하시고 물고기까지 보내주시게 되였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활동과 사색과정을 따라 아무리 상상을 넓혀도 도저히 추리해낼수 없었다. 그 일군 역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집무활동을 더듬어보며 분초를 따져왔으나 결국엔 작가들을 상기할 시간적여유도 계기도 있을수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일군은 나에게 신통한 대답을 못준것이 안되었던지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실 하나를 들려주었다.

《내가 한번 파오를 범해 조직으로부터 되게 비판을 받은적이 있소. 그날밤 그일로 하여 잠을 못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궁핍거리는데 새벽 두시경인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소. 나보고 밤고기사냥을 나가자는것이였소.

나는 그날밤 그분을 모시고 날이 흰히 밝을 때까지 고기를 낚았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서너초롱 실히 되는 그 고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온 통에 담게하시더니 나더러 그 부근 광산로동자동무들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시는것이였소. 그이께서 나때문에 한밤을 밝히셨다는 가책으로 마음 무거워 발길을 천천히 떼는데 다시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였소.

<부락인데 이제부터 얼굴색을 밝게 가시오. 찌프린 얼굴로 주는 고기를 그곳 동무들이 기쁘게 받겠소? 부서에 가서도 명심하오.> 라고.

동무야 작가니 잘 알겠지만 그분께서는 한가지 일을 하시면서도 열, 스물을 헤아리시고 백, 천을 생각하시는분이요.》

뜨거운 이야기였다. 파오를 범하여 잠 못이루는 일군의 빈민을 헤아리시여 한밤을 낚시터에서 지새우시는 그이의 모습이, 잡아놓은 물고기를 보시며 애정깊게 간직된 사람들을 헤아려 그리시는 그이의 모습이 보이는듯했다.

한 새벽의 고요속에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쓰다듬어 나래치던 그이의 자애어린 마음은 가까운 광산의 경도에 닿기도 했으리라...

그런데 화련어는?...

내가 축전때의 그 일들을 회고하며 이 숙제를 끄집어내자 흥분속에 있던 편집원이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뭔가 줄 때 작가동무는 거기서 무슨 계기를 찾아내겠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열자식이면 열자식 다 마음속에 새겨있고 나가있건 잠을 자건 다 고루 보살펴주는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섬광처럼 나의 머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천재성,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천품을 론하기앞서 그 거룩하고도 뜨거운 인간사랑의 세계를 먼저 보아야 한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타산과 계산이 없다. 《정도품앗이》라는 말이 있다. 허나 어머니의 사랑만은 그렇지 않다.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이기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음속결에 세워두고계시는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아닌가.

나는 그동안 취재한 수많은 감동적 사실과 자료의 시원도 결국은 인간과 이 인간들이 살고있는 세계전체를 한품에 안는 위대한 어머니의 세계에서 봐야 한다는것을 알았다.

우리가 살고있는 행성은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다. 그로 하여 태양은 우리행성과 자연계 전체의 어머니이다. 태양!-어머니의 속성을 많은 글로 밝히지만 감성의 영역에서 그 속성을 다 밝힌다는것은 불가능하다. 태양과 어머니에 대해서는 오직 그 위대하고 은혜로움에 대한 감사만을 지니는것이 인간들, 자

식들의 도리라고 하지 않는다. 2월명절의 아침해를 승엄히 우리르는 나의 심장속에는 충성과 효성의 송가가 격조높이 울려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의 정열, 나의 지식, 나의 기량을 모두 합쳐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형상을 완벽하게 재현시키지 못할것이다. 언제 가면 그의 거룩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불만없이 그대로 재현시키겠는지...

창밖은 벌써 저녁어스름이 깃을 펼치였다.

이어 하늘에는 못별이 하나둘 반짝거리기 시작한다. 나와 조동무, 그리고 편집원 이렇게 우리 셋은 경건한 상념에 잠기여 하늘에서 반짝이는 못별들을 오래도록 바라보고있었다.

백두산고향집앞에서

박철

흰눈을 인 키낮은 지붕
통나무를 쌓아올린 두칸두리방...
그립던 프락에 들어서니
바라보는 모든것 생각은 많구나

우리 혁명이 눈보라를 헤치던
간고한 시절이었다만
그 년대가 마련할수 있던것
이 한채의 귀틀집이었던가

마음은 뜨거움에 몽클 젖어든다
내 조국 내 운명을 위해
참으로 귀중한것
그 력사의 첫자욱을 받들었다기엔
너무도 수수하구나 방바닥의 구름노전은

온밤 꺼질줄 몰랐을
저 벽가의 사기등잔
너무도 작구나
하나에서 백천을 헤아리던 예지앞에
진리의 글줄을 밝혀준 등불이라기엔

아 전장의 천막과도 같이
초연서린 배낭 두개와
정히 개여놓은 얇은 담요 석장이
그이를 위한 그이를 위한
그 모든것이었던가 백두산고향집이여

넘치는 고결함
넘치는 숭고함
아니여라, 이 추녀아랜
이 세상 그 어느 집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값높고 고귀한것 있었으니

세월의 설한풍 다 녹이던
어머님의 따뜻한 미소 피여있었고
밤이나 새벽이나
이 열려진 문과 뒤풀이론
사령부귀틀집 밝은 불빛이 흘러들었으리

아, 품고있는 책상은 크지 않아도
뜨거운 체온으로 더웁혀진
삼천리강산이 놓여있고
새별같이 빛나는 안팎아래
조선의 미래가 숨쉬던 집이여

정녕 조선혁명의
그 고난 그 간고함을
가산처럼 보여주는
이 귀틀집이 백두산에 솟아있어

아, 우리 인민은 받아안았구나
행복한 이 세월을
찬란한 내 조국을
삶의 가장 크나큰 재부로!

우리 집

오영재

밖은
출고 눈보라가 세차도
우리 집은 봄이여라
해빛넘치는 봄날이여라

바람소리 아츠러이
창밖에 울리니
내 집이 더 따사로워라
이 집이 우리에게 없다면
남들처럼 눈물힌 언땅우를
향방없이 헤매이고있으리

함초롬히 이슬을 머금고
언제나 다름없이
창가에 웃고있는 꽃들을 보아도
우리 집이 제일이라는 생각

박이 사납고 거칠게수룩
친형제의 우애로 넘치는
부드러운 눈빛들을 보며
정다운 목소리들을 들으며
우리 집이 제일이라는 생각

집이여
내 집이여
이 몸을 끌어주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있고
한생을 가는 일에 비바람을 막아
아늑한 보금자리를 주고
내 소원 내 행복을 키워주는
우리 집은 내 나라
내 나라는 우리 집

그이의 사상이 기둥이 되고
그이의 사랑이 지붕이 되었기에
세계의 정의와 량심이
그이품을 찾아와
우리과 한식술이 된
우리 집은 **김정일** 동지의 집

천만이 어깨걸어
하나의 성벽이 되고
억만의 숲결이 모여
하나의 거세찬 열풍이 된
일편단심의 우리 집

그래서 이 집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세상에서 제일 억세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여라

그 어떤 모진 광풍이
하늘땅을 뒤흔든다 해도
우리 집만은 다치지 못해라

그이는 력사앞에
사회주의의 운명을 책임지신
혁명의 령장
진리의 사령관

그 어떤 강적의 무리도
우리 집 마당엔 뛰어들지 못하리
그이 한몸 바쳐
지켜주시는 우리 집엔
바람 한점 문틈으로 스며들지 못하리

온 나라를 하나의 큰집으로
인민을 하나의 대가정으로
무어주신 그이는 **김정일** 동지
그이는 우리 집의 아버지
우리 집은 그이의 품이여라

오랜 세월 우리와
동지로 운명을 함께 하시며
사랑과 믿음이 한결갈고
의리와 신념에 변함없으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인민도
그이를 닮아 변함을 몰라라

어려워도 우리 집
힘겨워도 우리 집
이보다 좋은 집을 우린 몰라라
우리 집처럼 밝고
우리 집처럼 삶이 아름다운
그런 집은 세상에 없여라

밖은
눈보라가 세차고
세계의 하늘은 흐려있어도
우리 집의 하늘만은
언제나 맑고 푸르른 하늘

그이를 위대한 아버지로 보시고
대를 이어 길이길이 살아갈 이 집에서

민나니
그이의 빛발 따라
력사의 흐름 따라
우리의 푸른 하늘은
천리로 만리로 뻗어가리라는것을

오, 오 그날엔 그날엔
주체의 붉은기가
더욱 높이 휘날리고
우리 집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집이 되리라는것을

민나니

(1991년 12월 27일)

이날의 영광 있어

김형준

산천도
사람도
기쁨에 설레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시다!

눈보라에 버려진
총검이런듯
백두의 천리수해도
평양의 하늘가를 향해
《받들었 총!》을 하였는가

눈내린 수도의 거리
서둘러 찍혀진 발자국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앞을
영광넘쳐 걸어간듯

자옥마다 기쁨이 가득 고인 거리
김형준
옛 대오를 찾아 발끝 맞추며
충성의 선서 다지나니-

-그이는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시다
목메여 부르는 영광의 이 시각
로병들은 젊음을 되찾고
젊은 병사들은 순간에
로숙한 군인으로 자란듯

이 시각 온 나라 인민은
그이의 전사된 궁지에 넘쳐
한생 값높은 복무의 맹세로
어깨와 어깨마다
마음의 총검 없나니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셨기에
무궁한 세월속에 조국은
영원한 안녕이 깃들고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만이
이날의 기쁨처럼 영원하리!

걸어온 길 더듬어보아도
승리만을 새겨온 자국
걸어갈 길 생각하여도
영광만이 기억된
이 력사의 날

추억은 얼마나 깊으나
안도의 밀림속 붉은기아래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첫 무장을 잡은
항일혁명투사들은
교대없는 복무를 맹세하고

락동강기슭 불모재를 밟고온
로병사들은
마음속 군복 떨쳐입고

만세를 부르노라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운명의 수호자
그이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그이는 사회주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영광을 드리노라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축원의 전파로 휩싸인 이날은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녕을
그이께 맡긴 날이여라

사랑합니다!

김철

지금까지 한번도
입밖에 내어 말한적이 없건만
어찌합니까 마음속에서
수천수만번 거듭되다가
끝내 입밖으로 터져나온 이 말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이를 사랑합니다!

그이 쓰신 글
그이 하신 말씀
그이의 인품과
그이 펼쳐가시는
그 모든 크고 벅찬 세기적인 성업에
끌리어 매혹되어 불붙은 마음

이 마음을 사랑이란 말 아닌
그 무슨 다른 말로 나타낼니까
그이께서 우리에게 베푸신것 모두가
사랑! 사랑으로 가득차기에
사랑이란 말로밖에
이 마음, 이 진정을 아蜷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이를 맞이하여
사람으로 태어난 참값을 알게 되고
그이를 따르며
살아가는 참뜻도 깨달은 우리

그이 사랑하시는것을
우리 사랑합니다
그이 중히 여기시는것을
우리 또한 목숨보다 귀중히 여깁니다

그이 미워하시는것이면
우리도 그것을 끝없이 증오하고 타매하며
그이 꿈꾸시며 설계하는것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고 리상입니다

친근한 어버이로 모시웁니다
경모하는 스승으로 우러롭니다
동지되어 손잡고 동행자되어 따르며
충신이 되고 효자가 되어
위대한 령수이신
김정일동지를 받드웁니다

그이를 떠나서야 어찌 삽니까
그이가 우리에게겐 조국이고 땅이며
그이가 우리에게겐 태양이며 우주
그이의 품 떠난다면 곧 죽음인
그러한 생명이 우리이기에

우리 그이를
무한히 무한히 아끼고싶습니다
우리 그이를
기쁘게 기쁘게만 해드리고싶습니다

그이 바라시는 일 언제면 다할가
그이 가르치시고 일깨워주신것
때로 혹시 잊은것은 없었던가
안타까움 있다면 오로지 그것뿐

행복합니다!
세상이 우러르는 세기의 위인이신
그러한분을 사랑한다고
서슴없이 말할수 있는 인민은
우리들뿐입니다

그이를 위해서라면
아낄것이 없고 망설일것 없기에
폭풍이 불어오면 폭풍을 막고
격랑이 밀려오면 격랑도 막아
기꺼이 초개같이
홀뿌려져도 좋을 우리입니다

존경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
따르고 모신다는
그 모든 말을 합쳐 부르고 부르는
사랑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친애하는분이지여
경애하는분이지여
인민은 사랑합니다!

세월이 이어지고
인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인민을 사랑하실분
인민의 사랑받을분이십니다
(1991년 12월 27일)

사랑속에 만발하는 꽃송이

리종성

만물의 령장인 태양이 누리에 빛을 뿌리며 생명체들을 부활시킨 때로부터 수억만년이 흘러왔다. 그러나 그의 빛과 열은 제아무리 뜨겁고 은혜롭다해도 이 땅을 끌고루 다 비치지 못하고 구석구석에 그늘을 남기였다.

하지만 우리의 향도의 태양은 이름없이 스러졌을 보잘것 없는 인생에게도 따사로운 빛을 주고 생을 주어 그 삶을 영원토록 빛내주고 내세워주신 초겨울이었으나 날씨는 봄날처럼 따뜻했다. 길가의 누런 잔디밭우에서는 정오의 해빛이 구울고있었다.

따사로운 해빛은 작가 최로사를 찾아 방문의 길에 오른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상쾌하게 했다.

보통강변에 거대한 자태를 드러내고 솟아오른 류경호텔 량옆으로는 하늘을 치뿔은 105층의 웅장미를 더해주려는듯 40층 고층살림집들이 우뚝 솟아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인양 창가마다에서 아롱져 반짝이는 해빛을 안고 30층으로 올랐다.

30층 3호집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풍만한 몸매를 가진 로년기의 한 녀성이 마주나왔다. 그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아끼시며 내세워주시는 녀류시인 최로사였다.

새해가 환갑이라 하나 희맑은 살결과 두툼한 안경알밑에서 반짝이는 눈은 아직도 청춘인양 생기롭다.

해빛밝은 그의 서재에 들어서니 눈덮인 바위우의 푸르청청한 소나무를 그린 조선화와 찬서리 내리여도 시들줄 모르는 국화가 녀류시인의 다감한 정서를 보여주듯이 첫눈에 안겨왔다.

시인은 책상우에 펼쳐진 원고지를 주섬주섬 거두며 우리와 마주앉았다.

《여러 기자동무들이 이렇게 저를 종종 찾아오곤하는데 저는 정말 무슨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지 난감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야말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품을 떠나서 오늘의 참된 삶을 생각할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조용히 말끝을 떼는 시인의 눈가에 깊은 최고의 빛이 어렸다.

고향이 남반부인 그는 예술가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때부터 밝은 희망대신 어려운 생활을 타개해나가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더 머리를 써야만 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을 안고 학교로 가면 《월사금》을 내지 못했다고 책상을 든채 하루종일 벌을

서야 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병들어 누워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드릴 죽물도 없어 안타까이 눈물짓는 어머니를 띄여보아야 했다. 그리고 학교에 가고싶어 몸달아하는 어린 동생의 처지역시 소녀의 가슴에 눈물겹도록 가공하게 마쳐왔다. 생각다못해 소녀는 16살나이에 학교를 뛰쳐나와 악극단에 들어가려 마음먹었다. 한창 꽃망울을 방긋이 내밀기 시작하는 나이에 온몸을 발가벗기우고 받는 수치스러운 악극단입직시험에 성공하고 선불금으로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오는 소녀의 마음은 리상의 나래를 폈다.

(이 돈이면 동생의 야간중학교입학금도 될게구 그리고 내가 다음돈을 타올 때까지 우리 온 식구가 풀칠이나마 할수 있겠지...)

기쁜 마음으로 돈을 내놓고 자초지종을 어머니에게 아뢰던 소녀는 처음으로 얼얼하게 귀뺨을 맞았다.

《이년아, 그 악극단이란데가 어떤곳인지 알기나하느냐?...》

늘 다정하기만 하던 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청천벽력같이 노한 목소리였다. 이미 예술계에서 쓴맛을 다 보아온 어머니는 어린 딸이 가지고있는 예술적재능의 싹이 두려웠고 피어나는 미모가 늘 마음에 걸려왔던것이다. 그런데 화류계나 다름없는곳에 발을 들여놓은 딸을 보자 어머니는 분함과 모멸을 못이겨 사랑의 매를 든것이다. 그날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너만은 제발 예술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었다...

어린날의 먼일을 회상하는 시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후 저는 1948년도에 고향에서는 더는 살래야 살수 없어 조국을 광복하시고 해빛같은 정사를 퍼신다는 장군님의 품을 찾아 동생과 함께 분계선을넘어 북행의 길에 올랐습니다. 어린나이에 왜그런지 평양에만 가면 저의 모든 행복이 꿈같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더군요.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을 슬하에서 떼놓기가 안심찮은듯했으나 인차 응하시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병구완을 끝내구 인차 따라서겠다면서...

참 운명이란?... 제가 북행길에 오르지 못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나의 운명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의 한생에는 참으로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그 많은 길중에서도 인생행로의 참된 길을 찾기로 쉽지 않은 업이다. 허나 시인은 해빛이 밝

게 빛나는 길을 따라 거침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돈이 없어 왜놈교장실에서 하루 종일 벌을 서야 했던 치욕스러운 나날들을 멀리 밀어버리고 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배움의 노래를 부르며 열정의 노래를 떠나갔다. 그러나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제 원썬놈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조국이 위협에 처하자 그는 자기에게 보람찬 새생활을 안겨주고 배움의 넓은 길을 활짝 열어준 그 고마운 꿈을 위하여 선참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달려갔으며 간호원이 되었다.

열정적인 처녀였던 시인은 부상당한 환자들을 친누이의 심정으로 다정히 보살펴주었고 잠 못드는 전사의 머리맡에서 도란도란 시도 읊어 그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기도 했다. 그리고 배낭속에 넣고다니던 병사수첩에 부지런히 시도 쓰기 시작했다. 그 나날에 썼던 가사가 오늘날에 명곡으로 불리워지는 《샘물터에서》였다.

이름없던 한 처녀병사의 수첩에 써여졌던 보잘 것 없는 가사를 찾아내어 오늘의 명곡으로 불리워지도록 보살펴준 우리 당의 사랑, 그 사랑의 자양분속에서 작가는 한결음 한결음 성장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저는 습작품으로 썼던 그 가사가 인민의 사랑속에서 불리워지는 명곡으로 될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때 가사를 어떻게 쓰는지조차 모르고 생각나는대로 적어놓았던 글이 명곡이 될줄을 어떻게 상상했겠나요. 아마 우리 당이 아니라면 그 가사도 영영 파묻혀버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샘물터에서>는 저의 삶의 생명수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정녕 물이 없이는 모든 만물이 살수 없는 법이다. 생명수가 없어 이 땅의 꽃이 피고 백화가 만발하듯이 시인에게는 퍼내고 퍼내도 끝을 모르는 당의 사랑이 있어 한송이의 꽃으로 활짝 피어 질은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깊어가는 생각을 깨치며 시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방의 이름난 음악가는 불행은 항상 자기 운명의 문을 두드린다고 <운명>이란 곡을 쓰면서 문두드리는 소리를 첫소절에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운명의 앞길에는 언제나 환희와 걱정만이 있을뿐입니다.》

희맑은 얼굴은 상기된듯 발갛게 달아오르고 시인은 흥분한듯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여름 말복은 지났으나 무더위가 계속되던 8월 17일이었습니다. 여느날과 다름없이 단잠에 들었던 내가 문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한 일군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는 나더러 빨리 옷을 입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옷을 갈아입고 몸단장을 하며 서두르면서도 마음이 이상스레 설레었습니다. 제가 승용차를 타고 달

려가니 아니 글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저를 맞아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

시인은 감격이 북받치는듯 말을 더듬더듬 이어나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눈물이 앞서 모처럼 준비했던 인사말도 올리지 못하는 그를 보시고 동무가 보고싶어 불렀다고, 건강은 어떤가고 거듭거듭 물으시었다. 그러시고 눈물만이 앞서 어쩔줄모르는 시인을 달래시려는듯 친히 《샘물터에서》 선창을 때시는 것이었다. 노래를 끝낸후에도 시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최로 사동무가 그전에 무대소개를 참 잘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소개자를 보려고 모란봉극장에 자수가였었다고 웃음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60년대에 평양예술단의 소개자로 일한적 있는 그의 옛모습을 회고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었다.

순간 시인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령도자의 뜨거운 품속에 안긴 자신에 대한 행복감과 함께 부모의 슬하를 떠나 지나온 자신의 한생이 뜨겁게 돌이켜지는 것이었다.

부모가 곁에 있을 때는 어둠속에 방황하며 희망의 노래 한번 퍼보지 못하였던 가냘픈 한송이 꽃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스승의 품속에 안겨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꿈결에도 잊지 못하던 그이께서 자신을 위해 축배까지 들어주시는 이 분에 넘친 영광앞에 어찌 눈물인들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랴.

한때 편협한 사람들때문에 겪던 그의 마음속 고충까지 헤아리시여 그에게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다시 평양에 올라다가 그가 창작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하라고, 그 자식들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의 남동생까지 평양에 불러 함께 모여살도록 해주신 그 사랑.

어찌 친부모인들 이보다 더 뜨거울수 있겠는가. 1989년 봄 그를 만나신 자리에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눈물만 흘리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지금 40층주택에 와있지요?》 하고 헤아려주셨고 이제는 시집을 낼 때도 되었는데 시집을 내라고 은정어린 사랑까지 돌려주셨다.

진정 이런 우리 령도자의 인간미를 이 세상 그 어느 령도자가 따를수 있으랴.

시인의 이야기에 심취되었던 우리의 눈굽도 달아올랐다. 이 어찌 그 한사람에게 돌려주신 사랑이라고만 볼수 있겠는가. 이는 우리 작가들을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불러주시며 믿어주시는 그 사랑의 일단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군요. 너무 길게 늘어놓는 것이나 아닌지요?...》

흥그러운 우리의 기색을 살피고난 시인은 다시 조용조용 말을 잇는 것이었다.

《작가와 작품을 귀한 보물처럼 아껴주시는 친

애하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1980년대초 그는 량강도에 적을 두고 립시로 평양에 올라와 가사전투를 벌리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새로 나온 예술영화 《새별》을 보던중 깜짝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영화의 주제가가 그가 어느 옛적에 썼던 가사였기때문이었다.

(저 노래가 어떻게 ?...)

한대 어느 영화의 주제가로 씌였으나 영화가 변변치 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노래였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작가는 그길로 노래를 작곡하였던 김길학작곡가를 찾아 달려갔다. 작곡가는 뜻밖에 나타난 시인의 손목을 잡으며 이 노래가 다시 나오게 된 경위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어느한 지방지도의 길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면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누가 이 노래를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중 누구도 아는이가 없는것을 보시자 이 노래가 참 좋다고 조국과 사랑과 청춘에대한 철학이 담겨진 노래이니 이 노래를 가지고 영화를 잘 만들라고 말씀하시였다는것이다. 이렇게 되여 《새별》이라는 영화가 나오게 되였고 이노래가 영화의 주제가로 되였던것이다.

세월의 갈피속에 다 스러졌던 하나의 노래도 금싸라크를 찾아내듯 찾아내시여 뜨거운 숨결을 부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시인은 충천하는 기백을 안고 《우리가 제일 일세》, 《축배를 들자》를 비롯한 명가사를 편이여 내놓았으며 오늘도 환갑나이에 이르렀으나 청춘의 열정으로 혁명의 필봉을 달리는것 아니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의 삶의 보람과 행복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참다운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는데 있습니다.》

시간은 퍼그나 흘러갔다. 초겨울의 짧은 해는 진한 노을을 펼치며 갈길을 재촉했다.

우리는 작가에게 물었다.

《최로사동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무슨 작품을 준비하고있는지요?》

《예로부터 자식들은 부모의 생신날을 맞으면 자기를 낳아 길러준 그 은공을 생각하며 한가지 기념품을 꼭꼭 들고가곤하였습니다. 작가인 저야 친근한 어버이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무엇을 올려야 하겠습니까?》

저는 나의 친부모도 따르지 못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안아키워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돌려주시는 그분에게 우리 인민모두의 감사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만수축원의 노래>를 올리고 싶습니다. 허나 생각처럼 잘 안되는군요...》

안타까움이 내배인 진정어린 말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싶었다. 사랑은 내리고 충성은 오른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충성을 안고 모대긴 그의 시첩을 펼쳐들었다. 펼쳐지는 장마다에서 하나의 시어를 놓고 하나의 행에서도 그저 무심히 넘어가지 않은듯 지웠다가는 또 쓰고 그우에 덧쓰며 고심한 시인의 모습이 삼삼히 안겨왔다.

어느 한 폐지에서 우리는 눈길을 떼지 못했다.

만나뵈고 돌아오니 더욱 그리워
눈에 삼삼 어려오는 지도자동지
그이는 해님 마음속 해님
내 한생 변심없이 모시는 해님

그리울던 차고넘친 마음이여서
꿈결에도 다시 뵈는 친근한 영상
그이는 해님 마음속 해님
내 한생 변심없이 모시는 해님

내 운명의 영원한 봄빛을 주신
영원한 그 해발만 안고피리라
그이는 해님 마음속 해님
내 한생 변심없이 모시는 해님

우리가 가사가 좋다고 하자 시인은 상긋이 웃음지으며 《그것이 내 마음의 반영입니다. 영원히 그분만을 따라 피는 한송이 꽃이 되고픈걸요.》라고 하였다.

우리는 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는 그를 낳아놓고 사막의 이슬처럼 귀하고 빛나라고 이슬 《로》, 빛날 《사》를 따서 로사라고 지어주었다. 그러나 부모의 슬하에서는 귀하고 빛난 로사가 아니라 풀대끝에 스러지는 한방울 이슬처럼 가궁하던 그가 한없는 도량과 하늘땅보다 더 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에서 그야말로 빛나는 로사가 되여 만발한 꽃을 피우고있는것이다.

《저는 환갑이 래일모래이지만 60청춘의 패기를 안고 계절없이 한생 피는 꽃이 되려 해요. 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꿔가시는 우리 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더 곱게 장식하는 한송이의 밑꽃이되렵니다.》

그 어떤 수식도 꾸밈도 없는 소박한 말이였다.

우리는 흐르는 세월속에서 더 곱고 더 짙은 향기만을 풍길 아름다운 꽃송이를 마음속에 안아보며 그의 집을 나섰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높이 모신 단편소설에서의 생활탐구

김성우

불만족이 때로는 행복으로 승화되는 때도 있다. 역설이 아닌가? 아니다!...

우리는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최근에 창작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모신 단편소설들을 읽고 또 읽었다. 분량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수많은 작가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이 바쳐진 작품들가운데서 고르고 골라 한해에 네댓편씩 주옥같이 다듬어 내놓은 심혈의 작품들이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여 불만이 많았다. 그 어느 작품에서도 우리는 아직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인간중의 인간, 위인중의 위인이신 그이의 존귀하신 영상을 백분의 일이라도 만족할만큼 묘사한 그런 대목을 찾을수 없었다. 어떻게밖에 그이의 영상을 모실수 없단말인가. 이것이 우리 작가들의 재능과 열정의 한계란말인가.

결출한 사상가, 탁월한 령도자, 숭고한 인간애의 귀감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화폭에 담아 격조높이 칭송하고싶은 것이 작가들의 소원이라면 우리 평론가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작품을 두고 마디마디 감사의 정이 넘치는 붓을 달리고싶은것이 또한 더없이 간절한 열망인것이다.

이 열망은 이룰수 없을듯싶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번민의 창문을 열어제꼈을 때 우리는 대번에 모든것을 깨달을수 있었다. 창공에서는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있었다. 무한대한 빛과 열을 지닌 해질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우리 가슴에도 아름답게 안겨오고있었다. 저 태양이 지닌 무한대한 미를 그대로 화폭에 재현한 예술가는 지난

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우리 생활의 태양, 복반은 우리 생명의 어머니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은 그것을 형상해보려는 작가들의 미숙성으로 하여 작가자신과 독자들에게 불만족밖에 안겨주지 못할만큼 그처럼 밝고 그처럼 크고 그처럼 깊고 거창한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인간학의 무한대한 화원을 꽃피우는 우리 조선의 작가들만이 지닐수 있는 행복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처럼 위대한 인간세계의 태양을 잘 그려냈다는 칭찬보다도 우리의 무딘 붓끝으로는 도저히 미칠수 없는 한없이 숭고한 위인의 인간세계를 파고들면서 누구보다도 고심속

에 피로와하였을 작가들과 더불어 잠시나마 창작적고민을 함께 나누는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였다.

1

생활을! ...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지도자의 형상을 창조하려는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초미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종자도 좋고 주제도 좋다. 문제는 형상이 기림지고 감명깊게 꾸며지자면 소설의 전반을 인상깊은 생활로 충만시키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이란 생활밖에서는 존재할수 없는것이다. 인간문제도 허공에 떠있는것이 아니라 생활속에 있으며 생활을 통해서만 제기된다. 따라서 생활을 잘 그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학도 인간의 형상을 보여줄수 없으며 인간문제도 옳게 밝혀낼수 없다.》

생활을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린 작품이라야 실감이 있고 흥미가 있으며 교양적가치도 있다. 이것은 문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위인의 형상을 그리자면 더더욱 생활탐구에 대한 요구성이 높아진다. 위대한 인간의 위대한 생활을 어떻게 찾아 그려야 하겠는가.

여기서 이런 고민거리가 제기된다. 작가는 자기가 늘 몸을 잠그고있는 현실속에서 각이한 개성을 가진 인간들의 다양한 생활을 체험하고있다. 우리는 인민을 알고 그들의 생활을 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를 몸가까이 모시고 구체적인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직접 체험할수 있는 행운은 쉽게 차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출로가 없을가.

우리는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싶다. 그이의 위대한 생활을 우리는 늘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고있으며 우리모두는 그이를 잘 안다. 그이의 생활은 은혜로운 사회주의품속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생활모두이며 그이는 우리모두의 생각과 행동속에 늘 함께 살고계신다. 그이의 위대성은 인민의 위대성으로 구현되어 이 땅에 살고있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속에 숨겨져있어있다.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인민생활이 곧 그이의 위대한 생활로 되고 그이의 위대한 생활이 소박하고 평범한 인민들의 생활로 되여 소설의 화폭

속에 뜨겁게 살아숨쉬게 하는데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과연 어떻게 해야 작품속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한혈맥으로 얹혀진 소박한 인간들의 생활을 그이의 위대한 생활과 한덩어리로 융합시키고 풍만한 생활이 넘쳐흐르는 형상을 창조할수 있겠는가.

여기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하나의 생활속에 자연스럽게 얹혀들어가는 상대인물들의 생활을 진하게, 깊이있게 파는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을 개성적인 산 인간으로 만들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련관된 그들의 생활을 풍부히 탐구해들어갈수록 그 생활의 실제적인 창조자이신 위대한 지도자 형상이 더 진하게 살아날것이다.

사실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직접 관계를 맺는 인물들의 생활은 벌써 그자신만의 생활이 아니다. 그의 생활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손수 꾸며주고 이끌어주신 생활이며 숭고한 의리와 동지애의 정을 나누시며 함께 창조하는 생활이다. 그것이 풍만하게 탐구되어야 한다.

단편소설 《봄날의 미소》(문상봉, 《조선문학》 1991. 10호)를 보자. 인민대학습당 건설장에서 일하는 건축설계실장 리의천의 뜻깊은 생활이 그려지고있다.

그는 요즘 인민대학습당의 지붕형성수정안때문에 애를 먹고있다. 형상의 생동성과 시대감이 문제이다. 밤낮으로 설계탁을 마주하고 침식도 현장에서 하면서 모지름을 쓰지만 신중한 착상은 생기지 않는다. 실무도 능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애바른 조바심과 위구심때문에 신심마저 잃어가고있다. 창덕의 화분에 물주기도 잊었고 귀여운 손녀와 약속한 일요일의 모란봉산보도 잊었다.

소설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일요일 새벽 우연히 그 손녀애를 만나보신것을 계기로 그의 심증을 포착하시고 친히 리의천이 손녀애와 약속한 모란봉의 산보를 조직해주시는 모습을 그려였다.

리의천이로서는 예상도 못했던 꿈같은 생활이 아름답게 안겨진다. 창광원에서의 《특별봉사》, 푸짐히 잡든 사이 가뭇없이 사라진 피로, 모란봉에서 목격한 인민들의 행복한 휴식의 모습, 낯시질하는 사람들이 뉘아올린 잉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손수 손질해주시는 한포기의 늙은 산포도나무, 다시 보게 되는 옛건축물의 고색창연한 자태, 모란봉산정에서 굽어보이는 평양의 수려한 경치... 마치 처음 보는듯한 그 생활에 깊이 잠겨들면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보며 불충분한 설계도면을 옆에 낀채 불안해하는 의천의 심리...

우리 독자들도 어느새 리의천이와 함께 이 행복한 산보에 끼여들어 생활을 즐기면서도 마음

한구석 애타는 기대를 안고 기다리게 된다. 언제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 지붕형성수정안과 관련하여 천재적인 가르치심을 주실것인가. 어떤 묘안을 생각하고계실까.

그러나 기다리는 장면은 안나오고 계속 류다른 생활의 화폭만이 펼쳐진다. 드디어 나어린 손녀애가 나타나고 그뒤로 산뜻한 봄철양복을 입고 목직한 구력을 든 머느리가 나타나며 또 몇발자국 떨어져서는 늙은이답지 않게 치마바람을 일구며 활개질을 하는 마누라까지 나타났을 때 홀연 그이께서는 떠나가신다. 그들만 남겨두시고, 봄누리를 가득 채우는 환한 미소만 남겨두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리의천에게 무엇을 주시였는가. 그이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가...

독자는 문득 아쉽게 끝난 소설의 마지막 글줄에 시선을 박고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그이께서는 리의천에게 잊을뻔한 생활을 찾아주신것이다. 그 생활은 사회주의하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밝고 희망찬 생활이었다. 온 집안이 텔레비존화면과 함께 울고웃고하는 일요일에도 서재에박혀 미간을 잔뜩 좁혀가지고 낡은 참고서만 뒤적이고있던 그의 눈앞에 조국의 밝고 푸른 하늘을보게 해주신것이다. 언제 봐도 궁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조국의 아름다운 지붕, 바로 그것이 그대로 인민대학습당의 지붕에 반영되어야 했던것이다.

그제야 독자는 아까 무심히 스쳐버릴뻔했던 이상깊은 한 대목의 생활로, 그이의 뜻깊은 말씀으로 되돌아간다. 올밑대앞에서 《무영탑》의 구슬픈 옛전설을 말하며 그이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였던가. 인민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면서도 어딘지모르게 침침하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운 건축물, 그것은 지난 역사가 남겨놓은 생활의 그늘이었다. 《인민대중이 주인된 우리 시대는 창조물들에 그 어떤 형태의 그늘이든 사소한 세부라도 깃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민이 주인된 현실자체가 밝고 아름다우며 희망넘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바로 그속에 그이께서 리의천의 잠든 령감을 일깨워주시는 천금같은 가르치심이 있었던것이다.

이리하여 이 소설은 생활로 충만된 기쁨진 화폭속에서 한마디의 직선적인 설명이 없이도 그이의 위대한 풍모를 깊이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그속에는 사상의 위대함도, 령도의 위대함도 있고 교대한 인간성의 위대함도 있다.

이 소설의 창작경험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함에있어서 생활탐구의 가장 넓은 마당은 우리가 잘 아는 상대인물들의 개성적인 생활속에 있다는것이다. 특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뵙기 이전의 그의 생활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이전의 인상적인 생활세부와 일화속에 축적되어온 흥미있는 문제성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직접 맞선 생활속에서 여러가지 생활적계기들과 맞물려지면서 풍만한 생활세부를 낳으며 전개되는 법이다.

이다.

그런데 이 상대인물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뵈온 다음에도 여전히 개성적인 산 인간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함께 마음껏 생활을 호흡하는 적극적인 인물로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일부 작품들을 보면 앞애다 깔아준 상대인물들의 개성적인 생활은 비교적 흥미도 있고 풍부하기도 한데 일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마주선 마당에서는 즉시 공식적인 자세로 돌아가 자기 생활을 잃어버리는것이다.

단편소설 《희망의 새》(김원중, 《조선문학》 1991. 2호)는 작가의 진지한 탐구의 자리가 일정하게 안겨오는 작품의 하나이다.

이 작품에서 조만덕로인과 발가돌이 손자녀석의 형상은 처음에 커다란 흥미를 가지고 안겨온다. 다양한 생활이 실어졌다. 수산협동조합에서 파수원지기라는 한가한 일감을 맡게 된 로인의 아쉬움, 허전한 생활에 한가닥 기대와 희망을 가져온 장난곳은 어린 손자의 출현, 미제합정과의 싸움에서 희생된 아들을 대신하여 그애가 이 고향 바다의 주인구실을 하리라든가 즐거운 희망, 그런데 학습반을 《뚜꺼먹고》 수건바위로 찾아가 갈매기 관찰을 한 손자때문에 생겨난 분기, 그중에서도 우리 동물원에는 갈매기가 없다는 믿어지지 않는 손자의 《거짓말》을 나무람게 생각하며 《보기 드문 남의 나라 잔나비까지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제일 흔한새가 없어?》 하고 꾸짖는 세부는 인상적이다.

그런데 유감스러운것은 그자리에서 뜻밖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만나뵈온 다음의 생활은 너무도 빈약하고 긴 대사와 논리적인 설화, 틀에 박힌 주정토로속에 묻혀버린것이다. 만덕로인과 손자 해남이는 자기 생활을 잃어버리고말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후반부에 그려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생활을 만덕로인, 해남이와의 관계속에 튼튼히 엮혀 탐구하지 못하고있는것 이다. 장령과 수행원들이 기본상대이고 만덕로인과 해남이는 그 류다른 사냥의 우연한 참가자, 목격자처럼 되어있다. 이따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만덕로인이나 해남이에게 무엇인가 묻기도 하시고 해남이의 안내로 좋은 《사격좌지》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그이께서 하시는 뜻깊은 말씀들은 다 수행원일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만덕로인과 해남은 적극적인 교감속에 놓이지 못한채 그저 곁에서 듣고 감격해할뿐이다. 결국 이 사냥이라는 생활에서 만덕과

해남은 주인이 되지 못하고있다.

상대인물들이 주어진 정황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함께 감동적인 생활의 직접적인 창조자, 주인이 되자면 일정한 사회적문제성을 안고계기된 사건에 운명적으로 얽혀있는 주견있는 인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저 수동적으로 가르치심만 받는 인물이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 인간적품모에 무한히 감동되면서 그에 적극 반응할수 있는 능동적인 인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상대인물이 너무도 자기 몫이 작은것이다. 생활의 빈곤은 필연적인것이었다.

2

그러면 생활탐구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되어야 상대인물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자리에서도 생활의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살아숨쉬게 할수 있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에서 생활은 인간관계속에서만 깊이있게 그려지고 인간관계는 생활속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비결은 인간관계를 깊이있게 맺어주는데 있다.

인간관계를 깊이있게 맺어준다는것은 두가지 요구를 담고있다. 하나는 인간관계속에 보다 뜻깊은 인간문제, 사회적문제를 심어주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가 흥미진진한 극적이야기를 배태할수 있게 맺어주는것이다. 문제성있는 인간관계, 극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줄 때 생활은 저질로 찾아진다.

이것을 모르고있는 작가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할줄 아는 작가는 많지 못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영상을 높이 모신 단편소설에서 이 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요구로나선다. 왜 그런가.

두 등장인물들과의 관계속에 뜻깊은 인간문제가 심어지자면 그리고 그로 하여 그들사이에 심각한 극적생활이 생겨나자면 하나의 사회적문제를 놓고 서로 자기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대립하고 충돌하는 적극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대립과 충돌이 예리하면 할수록, 격렬하면 할수록 생활은 풍만히 전개된다. 이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그런데... 하고 작가는 질문을 제기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모신 인간관계속에서 상대인물은 전혀 전혀 관계를 가질수 없지 않은가.

옳다. 수령과 인민, 지도자와 전사 사이에 우리가 갈등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립과 충돌의 관계

는 설정할수 없다.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공고한 일심단결의 관계, 믿음과 보답, 사랑과 충성의 관계 이외에 다른것으로 될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고있는것은 이 일심단결, 이 혁명적의리의 관계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성을 안은 가장 극적인 관계이라는것이다. 영원히 따를수 없는 아득한 상상봉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지도자의 품모양에서 우리는 너무도 미숙하고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여 그저 고개숙이고 가르치심만 기다리는 철부지자식으로는 될수없는것이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번민을 안고 끝없는 충성과 효성으로 가슴불태우며 안타까이 모대기고 투쟁하는 인간, 하기에 결길로도 달리고 때로 낭떠러지앞에도 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왜 심각한 문제성이 없고 극적인 체험이 없겠는가. 또 그만치 바로 그런 전사에게 현명한 사령관이 되고 다심한 어머니가 되고 때로 채찍을 든 엄한 스승이 되어야 할 혁명의 지도자께서는 가장 심각한 극적체험을 겪으시며 끝없이 사색하고 번민하고계시는것이다.

단편소설 《담력》(림재성, 《문학신문》 1990. 2. 16)을 보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중심으로 하고 철도건설총국장 신정균과 그의 아들인 속도전 청년돌격대원 학규사이의 인간관계는 뜻깊은 인간문제를 안고 극적으로도 심각하게 맺어져있다.

정균은 기존공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로부터 북부철길건설공사를 랑쪽에서 동시에 해나온다 하더라도 20년이 걸쳐야 한다는 엄청난 수자를 줄일방도를 찾지 못해 안타까이 모대기고있다. 그가 방대한 공사량과 투자, 엄청난 공사기일일에서 기가 질리게 된것은 정열도, 지식도, 경험도 아닌 담력이 부족한데 있었다. 하지만 그 담력의 부족은 또 어디서 온것이었던가.

가득이나 무거운 정신적부담을 안고 허덕이고 있는 그에게 또하나의 정신적타격이 가해졌다. 북부철길공사장에 나가있는 아들이 뜻밖의 사고로 취한 중상을 입고 입원하게 된것이었다. 사고는 전적으로 그의 《자유주의》에 있었다. 시오리가 넘는 차굴이 개통되기를 기다렸다가 로반과 구조물공사를 하는것을 기다려낼수 없었던 청년건설자들이 개통되지 않은 차굴을 뛰어넘어 로반공사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작업장으로 설비를 운반하는게 문제였다. 왼쪽은 강, 오른쪽은 산양도 발붙이기 어려울만큼 험한 령... 그러나 청년들은 때를 리용하여 강년까지 설비를 운반한 다음 험한 벼랑중턱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 바줄이 끊어져 설비가 통채로 강물에 굴러떨어질 위험이 조성된 순간 한 청년이 설비밑에 몸을 던졌다. 설비는 구했으나 온몸에 피칠갑을 한 청년은 의식을 잃었다.

가슴 철렁한 이 소식을 듣고도 정균은 아들한테로 달려갈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소집하신 중요한 협의회에 참가해야 하였기때문이었다. 공사장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하나 이 작은 사고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미 보고되었다. 그이께서는 청년을 위하여 직승기편으로 유능한 의료집단을 보내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어 수술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계시었다. 그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는 그이께서도 모르고 계시었다.

협의회에 참가한 신정균의 마음속에서는 두가지 감정이 다투고있었다. 가보지 못한 아들의 신상에 대한 걱정과 끝내 현세기안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끝내기 어렵겠다는 보고를 당에 올리게된 한없는 자책감이다. 그러나 인민과 한 약속은 어길수 없다고 하시며 공사의 운명을 두고 크나큰 심려를 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보았을 때 그의 머리속에서는 아들의 부상으로 인한 사사로운 근심따위는 가뭇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한 청년을 가운데 놓고 혁명의 위대한 지도자와 그의 친아버지사이에 뜻깊은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

친아버지는 중대한 혁명과업을 먼저 생각하며 중태에 빠진 아들을 가보지 않았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즉시 비행기편으로 의료집단을 파견하시고 수술결과를 안타까이 기다리신다.

친아버지는 수많은 간부들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공사의 운명을 두고 심려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보며 너무도 크고 무거운 자책감에 잠겨 지긋게 갈마들던 아들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을 가뭇없이 잊을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회의도중에, 현지의료단에서 온 긴급전화내용을 보고받으시고 비상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중대한 협의회를 중단시키시었다.

친아버지는 비조직적인 아들의 소행을 경솔한 자유주의로, 모험으로 치부하며 민망스럽게 생각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청년의 행동을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북부선철도를 하루빨리 건설하려는 충성심이 낳은 대담한 발기로, 기존공법이나 엄혹한 자연환경에 주눅이 들지 않는 배짱과 담력의 표현으로 높이 평가하시었다.

친아버지가 한갓 경솔한 모험과 사사로운 걱정거리로 보았던것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600여리 철길을 여러토막으로 나누어 동시에 전격전의 방법으로 공사를 내밀 충격적인 방도를 찾아내신것이였다.

소설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관계를 더 뜻깊게 극적으로 심화시키고있다.

신정균이 협의회를 중단시키려는 그이앞에 불쑥나왔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협의회는... 제시간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 너무도 뜻밖이신듯 놀랍고 엄하신 눈길

이 신정균에게 떨어졌다.

《...만약 중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그 청년이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알을수 없을거요. 그렇게 놓고보면 총국장동무는 우리를 믿고 아들 딸들을 보내준 수천수만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앞에 죄될 생각을 했소.》

신정균은 흠칫하며 고개를 쳐들었으나 눈길을 떨구고말았다. 그이앞에서 학규가 누구의 아들임을 구태여 밝힐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이의 숭고한 풍모에 비하면 너무도 인간애가 부족했던 자신을 또한번 돌이켜보았을뿐이었다.

여기서 작가는 드디어 다른 일군의 입을 통해 그 청년이 바로 총국장자신의 아들임을 보고드리게 하고 이제는 질책으로부터 감동으로 넘어가 사랑하는 전사를 눈물겹도록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던 그이의 감회깊은 심리를 묘사하고있다.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맙소. 고맙소.》

아, 누가 누구에게 고맙다고 치하하고있는것인가!

이 작품이 짧은 단편소설형식속에서도 풍만한 생활을 펼쳐보여줄수 있는것은 이렇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뜻깊은 문제성과 심각한 극성을 체현한 관계로 맺어주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간데 있다.

이 관계에서 상대인물은 자기의 주견,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적극 반응하고있으며 적극적으로 긴장한 생활적 감정적 교감속에 놓여 있다. 언급한 《봄날의 미소》가 일정하게 성공한것도 바로 상대인물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사이애 심각한 문제성을 심어 생활적교감이 왕성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마련했기때문이었다. 이 작품에 제기된 문제는 단순히 피로한 한 일군을 충분히 휴식시켜주는 인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일군들이 무슨 일에 부닥치든지 먼저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면서 인민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그속에서 창조적환상도, 담력도 찾는 구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세워주는 문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 진리를 회의석상과 같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인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것이 아니라 리의철을 낳은 참고서의 세계에서 끌어내어 밝고 희망찬 생활의 한가운데 세워 주심으로써 스스로 감득하게 해주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의철자신이 안타까운 고심을 가지고 있었던까닭에 아직은 그이의 진의도를 간파할수 없었던 단계에서 점차 그 응심깊은 의도를 깨닫게 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굴곡적인 심리를 펼쳐보이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와의 적극적인 생활적교감속에서 다채로운 인정심리적 생활들이 탐구될수 있었다.

왕왕 이런 말을 들을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한 단편소설들이 회상실기보다 큰 감흥을 주지 못한다.

또 이런 말도 들을수 있다. 론리적으로는 안겨오는데 감정적으로는 뜨겁게 안겨오지 않는다.

어찌하여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역시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생활을 인간학적으로 탐구하지 못한데서 찾아야 할것이다.

생활을 인간학적으로 탐구한다는것은 무엇인가. 생활을 론리적으로가 아니라 산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심리정서적으로 감득할수 있는것으로 찾아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심리정서적인 생활은 산 인간의 생동한 숨결과 희로애락의 감정이 실지 생활에서처럼 그대로 진하게 안겨오는 생활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산 인간을 보여주자면 생활하는 과정에 드러나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인간의 사상감정은 추상적인것인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이루어지고 표현된다. 구체적인 생활을 떠나서 인간의 사상감정에 대하여 말한다는것은 벌써 인간을 추상화하고 따라서 사상도 개념화하여 선언한다는것을 말한다.

인간의 사상감정이 생동하게 드러나는 구체적인 생활을 찾자면 작가가 소재자체의 론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세부속에서 환기되는 산인간의 심리정서적체험체계를 생동하게 그려볼줄알아야 한다. 여기서 기본은 정치적령도선과 인정선과의 통일이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 작가들은 피타는 탐구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우에서 이야기한 좋은 작품들과 함께 단편소설 《빛나는 한생》(림병순, 《조선문학》 1990. 10호)은 일정한 긍정적경험을 안겨주고있다.

물론 이 작품은 만족할만큼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우리가 보고저한 위대한 지도자의 인간세계를 작가는 풍만한 심리정서적생활묘사속에서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이작품을 어느정도 평가하게 되는것은 최근에 나온 이 주제의 단편소설들가운데서 그래도 이 작품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인간세계를 정면에서 깊이있게 묘사하려고 시도한 흔치 않은 작품가운데 하나이라는데 있다.

소설에는 오랜 혁명투사 박일의 여생을 책임지고 빛내여주시려는 그이의 다심하신 심려와 극진한 사랑이 그려져있다. 작가는 그것을 몇개의 인상적인 세부속에 집약시켜 주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내면적사색과 심리적체험세계를 정면에서 개방하면서 여기에 박일의 심리정서적체험을 교차적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생활을 탐구해나가고있다.

소설에서 작가가 초점을 모두어 그려준 생활은 지팽이와 관련된 세부들이다.

외국방문도중에도 조국의 올해 농사형편을 두고 전화까지 걸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심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병원침상에서도 수화기를 들고 비료공급문제를 물어보기 위하여 무진애를 쓰는 로혁명가... 그런데 전사의 도리를 다하기도전에 그이께서 벌써 조국으로 돌아오신다. 박일은 전우의 아들이 재간스레 깎아다준 지팽이를 받아들고 허구쁜 웃음을 짓는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지팽이를 동무삼아 산보나 하라는거겠소?...》

어딘가 민망하고 서글픔에 젖은 목소리였다. 그어떤 상실감이 괴롭게 가슴을 짓눌러 모지름치던 박일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누워서 맞을수는 없어 끝내 지팽이를 짊고서 역두에 나섰다.

하지만 뜻밖에도 역두에서 박일을 맞이한 기쁨으로 환한 안색을 지으셨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 지팽이를 보시었을 때 그이의 심중은 어떠하셨던가. 작가는 여기서 이 지팽이가 산보할 때는 제법 심신풀이가 된다느니, 옛날 젊었을 때는 스테끼를 멋으로 짊고 공작을 다닌적도 있다느니 하며 일부러 너스레를 떠는 박일에게 빙그레 웃음지어 응수하시면서도 끝내 안색을 밝게 가질수 없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심리를 섬세히 그리고 있다.

(우리는 한생 혁명밖에 모르는분에게 기껏 지팽이를 쥐여주었는가? 여생을 그 지팽이에 의지하여 지내라고?...)

그 아픈 심정이 이튿날에도 가셔지지 않으시여 또 병원에 전화를 거시여 박일의 건강과 기분상태를 알아보시는것이다.

더우기 바로 이날이 박일에게 류달리 뜻깊은 날임을 아시었을 때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가슴쓰린 생각에 잠기시는것인가. 이날은 박일의 진짜 《생신날》이었다. 50여년전 장군님을 만나뵈고 친히 정치공작임무를 받은 혁명가로서의 참된 인생의 시작점이다. 박일은 이 뜻깊은 날을 누워있을수 없어, 지금도 그날의 신념으로 전사의 본분을 다하고자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농촌으로 떠나갔다.

로투사의 그 간절한 심정을 자신께서도 미처다 헤아리지 못했다는 쓰라림이 앞서 스스로 마음속에 채찍을 내리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내면세계는 한없이 가슴쓰겁게 안겨온다.

확실히 작가는 널리 알려진 소재를 가지고도 인간학적으로 생활을 찾아 심리정서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내면세계에 파고들으로써 보다 깊은 예술적감명을 안겨주려고 좋은 시도를 하였다. 만일 작가가 오랜 연고관계에 있는 상대인물과의 관계를 더 대담하게 파고들어 인상적인

생활세부를 좀더 찾아내고 구성작업에도 더 섬세한 관심을 돌려 뒤가 내다보이는 결합을 극복했다라면 이 소설은 확고한 성공작으로 되었을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만이 아니라 상대인물의 내면세계도 심리정서적으로 파고들어 감성적으로 그려주는것이 필요하다. 이 글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상대인물의 심리정서적체험세계를 섬세하게 깊이 파고드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그 어떤 구속도 느끼지 않는 넓은 활무대이다. 취재도 마음대로, 창조적환상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공간이다. 작가들은 여기에 욕심을 부려야 하며 이 공간을 짙은 정서가 넘쳐흐르는 생활로 충만시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묘사의 기본시점을 이 상대인물의 내면에 두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풍모에 대한 사색과 체험을 심화시킨 단편소설 《담력》이 비교적 좋은 경험을 남겨주었다.

소설의 절정부분에서 자기 아들 학규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슴뜨거운 사랑을 심장으로 느끼면서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생명이 경각에이른 그 청년이 자기 아들임을 밝힐수조차 없는것이 숨막히도록 안타까와 모지름쓰는 신정균의 내면세계묘사는 감명깊다. 혐의회를 계속해줄것을 간청하면서 오늘의 하루, 아니 단 한시간을 늦춤으로써 래일은 수천수만시간을 잃을수 있다는것을 눈물을 삼키며 말씀올리는 신정균, 동무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자는것인가고 엄한 눈길을 던지시는 친애하는 그이의 노여움속에 깃든 그 뜨겁고도 고결한 사랑을 감수할수록 그이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소년처럼 소리내어 울고싶는데 또 다시 그우에 울려오는 그이의 격하신 목소리-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을 그 어떤 천만재부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 내세워주시오. 그래 동무가 수령님의 그 높은 뜻을 몰라서 시간과 귀중한 우리 청년의 생명을 한저울 대우에 올려놓고 흥정한단말이요?》

참으로 인상깊은 세부이고 인간학적으로 잘 꾸러진 심리정서적생활묘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잘 리해되지 않는 하나의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일부 작가들이 작품의 주제사상을 밝히는데 《편리한》 구성방법에 매달려 어디까지나 제3의 위치에 있는 인물의 시점에서 사건을 다룸으로써 보다 흥미있고 감성적인 심리정서적생활세부를 찾아낼수 있는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외면하고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형상한 단편소설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수 있는것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보다 부관이나 기타 방제인물들의 시점에서 생활을 그리는 형상방법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의도가 작용한다고 본다. 시점자의 지성적수준을 높게 두어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인간의 생활에 대한 분석적묘사의 지성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있고 또는 위대한 지도자의 인간세계를 미처 리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시점에

서 끊임없는 의혹과 오해를 덧쌓아가다가 드디어 그것이 한순간에 풀리게 함으로써 극적인인력을 얻으려는 의도도 있다. 그런데 때로는 그저 이야기기를 손쉽게 엮어나가기 위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되기도 하는 것이다.

단편소설 《지휘봉》(한정아, 《조선문학》 1990. 2호)은 담담한 필치로 한 여성을 큰 가극의 지휘자로 키워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형상을 창조한 흥미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의 기본사건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일군들의 의혹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래도 여러모로 보아 미숙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가극의 지휘를 정심에게 대담하게 맡기고 현대가극예술의 최절정에도 이끌어올려주시는 이야기이다. 인간의 첫 교양자인 여성들이 사회의 높은 지위에 오를 때 인류는 진보할수 있다는 크나큰 뜻을 안으시고 애면글면 심혈을 다하여 정심을 이끌어주신 그이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는 실로 한량없이 위대한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품은 더 감성적으로 뜨겁게 형상할수 있는 공백을 남기고 마무리되고 있다. 그 공백은 어디에 있는가.

작품은 순전히 예술단 부단장인 춘석의 시점에서 그려주고 있다. 아무래도 정심을 못미더워하는 춘석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거듭 그런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작가의 의도는 이해된다. 구성적인 기교를 노렸을 것이다.

작품에서 정심의 시점에서는 아무런 묘사도 주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 있는 정심의 고심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에 접할 때마다 체험한 격렬한 감격의 파동도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춘석이의 시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심을 보고 있다.

물론 작가는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상대인물을 춘석이로 할 것인가, 정심이로 할 것인가 하는 데서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양쪽이 다 우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감성적으로 뜨겁게 생활을 파는 데는 정심의 편에 묘사의 초점을 돌리고 그의 시점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부각시키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실제상 진짜 고심이야 당사자인 정심이 겪고 있지 부단장이 겪는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작품에는 인상적인 생활세부와 감명깊은 체험세계를 펼쳐줄수 있었던 인물선들도 설정되어 있다. 여성지휘자의 《가다로운》 요구에 불응하여 말쑥하게 나오는 안무가와 단소연주가, 연주도중에 지휘탁우로 연방 쪽지를 던진 사람들... 작가는 이런 계기들에서 정심의 고민과 절망, 안타까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변함없는 신임과 사랑에 접할 때마다 그가 느끼는 깊은 감동과 새로운 결심을 여성다운 섬세하고 다감한 내면심리묘사를 통해 더 감명깊게 전달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좋은 생활세부들도 더 풍만히 탐구될수 있지 않았을까.

생활을 심리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뜨겁게 펼

쳐보이자면 인정심리적세부를 많이 찾을줄 알아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서만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으로 형상하는데서 그이와 상대인물들사이에 맺어지는 인정선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맺어준데 기초하여 생신한 세부들을 탐구해야 한다.

단편소설 《지휘봉》은 물론 《빛나는 한생》이 독자의 욕심에 비추어 더 성공할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아쉬운 감을 주게 된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지휘봉》에서는 정심이 여자인것만큼 생김한 인정심리적세부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수 있으며 《빛나는 한생》에서는 박일이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그 한생의 요람지에서부터 모시고 살아온 로혁명가인것만큼 그에 따르는 인정심리적세부들이 또 얼마든지 숨어있을 것이었다. 이것을 노리고 더 생활탐구를 진행했다라면 이 작품들이 더 인간학적으로 품위있고 감명깊은 것으로 되었을 것이다.

×

욕심! ... 그렇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만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가장 찬란한 인간계의 태양으로 최상의 수준에서 우러러모시고 싶은 인민이 간절한 소망과 창작가들의 불같은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털어놓고 말하여 위대한 작가만이 위대한 인간의 형상을 손색없이 창조할수 있다. 우리는 감히 창조라고 말한다.

하기에 우리는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아마도 이 불만은 영원히 가실길 없는 그런것일수도 있다. 우리가 높이 받들어모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 인간적풍모에 매혹되면 될수록, 세월이 흘러 그이의 위대성을 더 깊이 절감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무리 심혈을 다 쏟아부어도 그이의 정신적높이에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는 자신들의 미흡한 재능을 두고 가슴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을수는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 시대의 주체문학에 높이 우러러모실 이 영광스러운 사명앞에서 우리 어찌 잠시나마 실망하거나 자만할수 있으랴. 오직 분발! 분발이 있을뿐이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하신 풍모를 그리기 위해 있는 정력을 다 쏟아부은 여러 작가들과 조금이나마 창작적고민을 같이 나누고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작가들의 고심우에 덧짐을 얹고 경솔한 잡음을 올렸을가 우려하게 된다. 다만 하나의 평범한 독자로서 재삼 당부하고싶은것은 산 인간의 생활감정이 풍만히 넘쳐흐르는 가장 아름다운 화폭속에 우리의 향도의 태양을 고이 받들어모셔달라는 것이다.

만병초

만가지 병을 고친다고 하여 신기한령약으로 불리우는 만병초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사철 푸른 관목이다. 모진 추위와 광풍을 이겨내고 눈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강의한 의지의 상징인 백두산 만병초에는 예로부터 여러가지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고있다.

옛일을 되살려주는 만병초전설에는 백두광명성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으니 오늘 백두산사람들이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즐겨 전하는것은 지극히 응당한 일이다.

우리들의 운명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민족의 광휘-백두광명성과 만병초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여있을가.

사슴골은 백두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잡고있는 자그마한 마을이다.

어느때부터 여기에 민가가 생기고 마을이 들어앉았는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왜놈과 지주놈의 등쌀에 못이겨 속세를 떠나 산속에 몸을 숨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이루어진 마을인것임에 틀림이였다.

사슴골마을에는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고랑쇠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 겨울에 마을사람들과 함께 처서판으로 돈벌이를 떠났다. 그래 고랑쇠가 앓는 어머니를 구완하고있었다.

살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고장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쪼찌게 가난하였으나 인심이 후하고 인정이 흘러 가난속에서도 퍼그나 화목하게 살고있었다.

그들은 피땀을 흘려 일군 화전에 감자와 귀밀을 심었는데 워낙 땅이 척박한 고장이라 소출이 적은데다가 악착한 왜놈들이 여기 궁벽한 산간오지예까지 따라와 얼마 안되는 곡식을 몽땅 빼앗아가는바람에 항시 굶주림에 허덕이군하였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몇푼의 돈을 벌기 위해 왜놈들이 주인노릇을 하는 험한 처서판을 찾아 집을 떠나지 않을수 없었다.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고 바줄로 통나무를 끌어날라야 하는 처서판은 언제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죽지 않으면 종신불구가 되는 고역장으로 남편과 아버지들을 떠나보낸 아낙네들과 아이들은 어느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눈보라가 태질을 하는 올씨년스러운 밤에는 뜬 눈으로 긴긴밤을 새우군하였다.

속달로 여러해째 자리에 누워 앓으면서 바깥출입이나 겨우 하는 고랑쇠의 어머니는 요사이 더욱 마음이 불안하였다.

《자리나 잡으면 이내 한번 들리겠하던 너의 아버지가 2월에 접어들도록 소식이 없는걸 보니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어머니두 참, 걱정말아요. 잘 있으니까 소식이 없는게지요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고랑쇠였다.

《글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병이 똑 떨어질것 같다...》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하여 말끝을 흐리였다.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온 고랑쇠는 코바람을 히히 불며 장작을 췌다.

한참 도끼질을 하고나니 답답하던 가슴이 쑥 열리는것 같았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그날따라 맵짠 칼바람이 눈가루를 날리며 기승을 부렸다.

고랑쇠네 집에는 무서운 불행이 덮쳐들었다.

처서판으로 아들을 만나러 갔던 이웃집 박로인이 끌고돌아온 발구우에는 사경에 처한 고랑쇠의 아버지가 누워있었다.

산판을 돌아치며 로동자들을 못살게 굴던 왜놈 십장놈이 밑에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보지도 않고 둔덕우에 무저논은 통나무부지의 받침대를 제마음대로 뽑아던지는 바람에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통나무사태에 치우는 참사가 빚어졌던것이다.

격분한 로동자들과 왜놈들 사이에는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박로인의 아들은 도끼를 휘둘러 여러명의 경찰놈을 까둑히고 수림속으로 종적을 감추고말았다.

이렇게 되여 아들을 만나지 못한 박로인은 피투성이가 되여 죽어가는 고랑쇠의 아버지를 싣고 돌아온것이였다.

머리가 터지고 여러군데 상처를 입은 아버지의 정상은 참혹하였다.

가까스로 숨은 붙어있으나 불행한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였다.

《으흑... 아버지!》

《여보... 이게 웬일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통곡하던 어머니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고랑쇠는 겁이 덜컥 났다.

《어머니 정신차리세요. 으흐흑...》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어머니... 고랑쇠의 눈에선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어허... 세상도 무심하구나...》

박로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할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못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예?...》

고랑쇠는 박로인을 붙잡고 몸부림쳤다.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짓던 로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이 거울에 핀 백두산의 만병초꽃이 죽게 된 사람을 살리고 못고치는 병이 없다구들 하더라만...》

고랑쇠는 귀가 번쩍 트이는것만 같았다.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 추운 겨울철에 어디에 만병초꽃이 피어있는지 알겠느냐?》

《할아버지, 제가 그 만병초꽃을 구해오겠어요》

박로인은 필쩍 뛰면서 손을 내저었다.

《아서라! 내가 공연한 말을 했구나. 백두산추위가 어떠한지 넌 일기나 하느냐?》

《할아버지, 만병초꽃을 찾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겠어요.》

고랑쇠는 숨겨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 눈물을 떨구며 다짐했다.

《아버지...어머니 저는 만병초꽃을 찾으러 백두산으로 갑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박로인이 그토록 말렸으나 고랑쇠는 끝내 집을 나섰다.

밖에서는 웅-웅 눈보라가 울부짖고있었다.

백두산쪽으로 방향을 잡은 고랑쇠는 가슴을 치는 눈속을 헤치며 내쳐 걸었다. 캄캄한 밤, 뒤엀킨 가시덤불...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사방에서 쨍-쨍- 박달나무 얼어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랑쇠는 온몸이 뽕뽕 얼어들었다.

벌써 열흘나마 찾아헤맸으나 백두산은 아직 먼 곳에 있었다. 열아흐레만에 그는 백두산 기슭에 이르렀다. 그러나 길길이 쌓인 눈속에서 만병초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찾으랴.

눈우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별무리를 이루었는데 그중에는 꿈같은 모양을 이룬것도 있고 사슴

처럼 생긴 별무리도 있었다.

《별님, 별님, 밝은 별님, 만병초가 있는곳을 알려주세요. 불쌍한 우리 부모 살려주세요.》

고랑쇠는 별한테 물으면 만병초가 있는곳을 알것만 같아 하늘에 대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슴처럼 생긴 별무리가 눈부신 빛을 뿌리며 땅으로 쏟아져내리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맵쌀 추위가 가셔지고 훈훈한 바람이 불어왔다.

백두산쪽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이 폐부속에 흘러들어 흑-하고 흐느끼고나자 대번에 얼었던 온몸이 녹고 새힘이 솟는것이였다.

어느덧 은쟁반같은 달이 하늘중천에 높이 솟아 백두산의 여러 봉우리들을 두루 비치니 그야말로 령산은 월세계였다.

산에 비친 달, 눈우에 비친 달, 울창한 숲에 비친 달... 그 어디에 비친 달을 나뉘랴하랴만은 이날밤 여기에 비친 달은 참으로 무어라 표현할수 없었다.

산정에서 무너져내리는 희디흰 눈은 말그대로 은하수를 기울인듯하여 보는이로 하여금 신비경에 취해 절반 얼을 빼앗아갔다.

계곡을 따라 무너져내리는 눈은 바위에 부딪쳐 하얀꽃으로 부서지는데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에 그것들은 물방울로 변했다. 거기에 달빛이 비치니 틀림없는 령롱한 야광주였다.

《백두산이다!-》

고랑쇠는 힘껏 소리쳤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인차 눈보라소리에 삼키우고 말았다.

어느 사이엔가 백두산창공에 장수별이 빛나더니 그옆에 신비론 새별이 솟아 찬란한 빛발을 뿌리는것이였다.

찬란한 그 빛은 온 누리를 환하게 비쳐주었다.

젖빛안개가 자오록히 피어오르는 백두산천지엔 금실을 드리운듯하였다.

고랑쇠는 백두산의 황홀경에 넋을 잃고 멍하니 그자리에 서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백두산쪽에서 탐스럽게 생긴 사슴 한마리가 나는듯이 달려오고있었다.

(웬 사슴일까?)

그 사슴은 고랑쇠앞으로 곧바로 오더니 저쪽 장수봉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달려가는것이였다.

달빛의 조화인지 아니면 별빛의 조화인지 그 사슴은 온몸에서 빛을 뿌리는 금빛사슴으로 보였다. 아니 분명 금빛사슴이였다.

고랑쇠는 어쩐지 그 사슴이 자기를 오라고 부르는것만 같았다. 가다가는 서서 뒤를 돌아보고

또 가다가는 한참이나 고랑쇠를 돌아보곤하였다.

고랑쇠는 저도 모르게 사슴을 따라갔다.

얼마쯤 따라가니 어느덧 아침해가 솟았다.

수림속을 헤치며 금빛사슴을 따라가던 고랑쇠는 어느 바위벼랑밑에 이르자 깜짝 놀랐다.

고랑쇠앞에 노란꽃이 활짝 핀 만병초가 한벌 쪽 깔려있는것이 아닌가.

고랑쇠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만병초꽃을 한송이 두송이 정히 따서 가슴에 품었다.

온몸에 향기론 꽃내가 풍기고 힘은 더 부쩍부쩍 솟구쳤다.

(저 사슴이 나에게 만병초가 있는곳을 대주었구나!)

고랑쇠는 눈속에서 피어난 만병초가 더없이 고마왔다. 자기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금빛사슴이 고마왔고 눈석을 일으킨 혼혼한 바람도 고마왔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그 누군가의 조화로만 여겨져 고랑쇠는 또 잠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밤이면 하늘에서 명멸하는 장군별!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솟은 새별!

고랑쇠는 그 별의 조화가 아닐가 하고 생각하였다. 때아니게 천지를 향하여 쏟아져내리는 그 별빛에 어떤 인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부지중 들었다.

귀중한 만병초꽃을 가슴에 안고 고랑쇠는 멀리 장수봉쪽 수림으로 사라지는 금빛사슴을 손을 들어 오래도록 바라주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었다.

웬일인지 고랑쇠가 가는 앞엔 눈이 녹아 길을 내주었다. 그 길을 따라가니 퍼그나 가까와져 한나절 남짓해서 집에 가당게 되었다.

《할아버지!》

고랑쇠가 집에 불쑥 들어서니 박로인은 눈을 크게 뜨고 어리둥절해서 쳐다보기만 하였다.

《보세요, 만병초꽃을 가져왔어요!》

《아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이제 죄다 말씀드리겠어요.》

박로인에게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한 고랑쇠는 가쁜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와 맥없이 눈을 감고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만병초꽃향기를 맡게 한 다음 그것을 달여 방울방울 입에 넣어드렸다.

잠시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는 혈색이 들고 숨소리가 순조로워졌다.

백두산의 만병초는 명산의 정기가 어려서인지 참으로 신기한령약이었다.

어느덧 씻은듯이 상처를 가신 아버지가 일어났고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난듯 어머니도 몸이 가

벼워져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어머니!-》

고랑쇠는 부모님들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고랑쇠는 어깨를 들먹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애야, 이게 어찌된 일이나?》

아버지는 아들의 손목을 잡고 대견스레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꿈이 아니고 정말 생시란말이나?》

어머니도 너무 기뻐 저고리고름을 눈에 가져다 댔다.

고랑쇠는 자기가 보고 겪은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였다.

고랑쇠의 말이 끝났으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박로인은 너무도 놀라와 돌미륵처럼 그자리에 앉아 까딱않고 머리만 끄덕이었다.

《음, 그렇단말이지?》

박로인은 앓음새를 고치더니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백두산의 봄우뢰... 백두산에 새로 솟은 새별! 정말 희한한 일일세.》

《백두산에서 걸출한 위인이 탄생하신게 분명합니다.》

《옳네, 예로부터 위인이 태어날 때 하늘에 상서로운 별이 뜨고 천기변화가 무쌍하다 하였거늘 분명할세.》

박로인과 고랑쇠 아버지는 오래동안 말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목소린 갈려있었다.

이야기는 좀처럼 끝날줄을 몰랐다.

잠들수 없는 밤이었다. 먼동이 푸름푸름 밝아 오고있었다.

그날은 바로 2월 16일이였다.

×

그후 사람들은 얼마 지나서야 백두광명성탄생에 대한 격동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여앉기만 하면

《아무렴, 그럴테지. 고랑쇠가 만병초꽃을 얻은 날이 그저 레사로운 날은 아니란말야. 아무리 만병초의 약효가 크다 한들 보통날에 뜯어서야 그런 신통력을 가질수 없지.》하고 말하곤하였다.

최근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구호나무들이 많이 발굴되자 이 이야기에 신빙성이 더해져 사람들은 전설이 아니라 정말로 있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누가 그 말을 부인할수 있겠는가!

젓줄기

김명길

오란한 박수속에 50대의 단아한 녀인이 주석단에 올랐다.

오래동안 언제설계부문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웠으며 최근에는 대동강물길을 돌려 천리 대인공강을 형성하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에서 특출한 공헌을 한 능설계사업소 실장인 녀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한다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이 랑독되었다.

박수소리는 더욱 고조된다.

스건설사업소 당비서 한철묵은 감회깊은 눈길로 녀인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뭉클하여진다.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고 박수소리가 몇자 녀인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연단에 나섰다.

그가 이제 무슨 말을 할가?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하루 앞둔 이날,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를 받아안은 그가 과연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호소하겠는가?

《동지들...》 녀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의 아버지도 언제설계가였습니다.》

한철묵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녀인의 목소리가 꿈결에서처럼 들려온다.

그렇다. 저 녀자의 아버지는 언제설계가였다.

이제는 길고긴 30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잊을수 없다.

그가 한 기업소의 당사업을 책임진 당일군으로 자라난 오늘에 있어서는 더구나 잊을수 없다.

그는 저 녀인과 그의 아버지때문에 비통한 마음을 안고 입당한후 처음으로 당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던 35년전의 그날을 생각했다.

담배연기가 안개처럼 서려돌던 방안, 공사가 멎어서서 안타까이 모대기던 당일군, 그에게 철묵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웠던가.

(그때 진운위원장은 어설픈 가설막의 창가에 굳어진듯 서있었지...)

(1)

관개건설사업소 당위원장 진운은 아까부터 창가에 서서 소란스레 주절거리며 흘러내리는 강물을 바라보고있었다.

흙을 날라오지 않고서는 안되는가? 무슨 다른 방도는 없을가? 그는 사위를 둘러보았다. 눈앞으로 다가드는것은 희뿌연 백사장과 누런 사토질의 땅뿐이다. 참, 땅도 척박하기 그지없군, 이런고장이니...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황량한 등판의 저끝은 벌써 희끄무레한 어둠속에 잠겨든다.

그는 토질조사를 나간 지배인을 기다리며 오래동안 방안을 서성이었다.

...며칠전부터 토의에 토의를 거듭해오던 당위원회에서는 가까운곳에 점토가 없다면 50리밖에 서라도 흙을 날라오자는것으로 론의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등판에 생명수를 주자는것이 당의 의도였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로력과 자금이 들어야 할지? ... 막상 론의에 붙여놓고도 갖 전쟁을 이긴 나라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당원들은 그저 무거운 눈길로 진운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결국 부득불 휴회를 선포하고 모든 당위원들이 토질조사를 나가는것으로써 회의는 끝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진운이도 오늘 하루종일 기초공사장에서 노동자들과 무릎을 맞대고 이 문제를 토론했다. 그러나 점토의 원천은 없었다.

저녁녘에야 시공부의 한 기사가 이렇게 말했다.

《며칠전에 한 노동자가 이고장의 모래를 가지고 언제를 쌓자고 제기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요?》

《지배인동지가 기각시켰다고 하기에 저희들도...》

그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래-》

지배인이 기각시켰다면 엉터리없는것이거나 거의 불가능한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생활로부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서로 숨겨본적이 없는 지배인이 그 말만은 한적이 없었다. 왜 안했을까? 혹시 내가 흘려들었는가? 모래언제... 모래언제... 그건 정말 불가능할것 같다. 세상에 모래를 가지고 언제를 쌓았다는 레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모래성을 쌓는다는 말이 나온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담보를 가지고 그랬을까?

날은 점점 어두워갔다. 멀리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온다! 기사장이다! 발걸음소리는 점점더 가까워진다. 아니 아니로군. 기사장은 언제나 조용히 천천히 걷는다. 그럼 지배인인가? 발걸음소리는 문앞에서 멎어서고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지배인도 아니다. 전쟁때부터 함께 싸워온 오랜지기인 지배인은 당위원장실의 문을 두드리는 법이 없다. 그는 언제나 문을 벌컥 열고는 《위원장동무, 또 문제가 생겼소.》하며

투박투박 걸어들어오군한다. 그때면 정말 일감을 잔뜩 만들어가지고오군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다. 그의 눈앞에는 색날은 병사복을 입은 어깨가 짝 벌어진 청년이 서있었다.

촉수 낮은 희미한 전등불에 비친 청년의 얼굴은 해쓱했다. 어디서 본 기억은 없다. 하긴 지금 전국각지에서 속속 모여들고있는 만여명의 사람들을 그가 일일이 알수는 없는노릇이다.

그는 묻는듯한 눈길로 청년을 쳐다보았다.

《중기계의 불도젤운전수 한철목입니다.》

청년이 몹시 갈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까이 와서 앉소.》

청년은 무거운 걸음으로 그앞에 와 앉았다.

그리고는 손에 움켜쥔 병사모만 꾸깃거리며 말이 없이 마주보았다.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군. 아직은 집도 식량도 부족하고 공사장도 어수선하니까. 그는 하루에도 수십번이나 이런 사람들과 마주앉군했다.

《어서 말하오.》

《위원장동지에게 한가지 묻고싶은것이 있어서...찾아왔습니다.》

그는 힘들게 입을 뗐다.

진운은 담배곽을 열어 내밀었다.

《담배를 피우겠지?》

《네, 한대... 피우겠습니다.》

철목은 담배연기를 깊숙이 들이삼켰다가 내뿜으며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위원장동지... 마영수란 사람을 아십니까?》

《응?...》

전혀 뜻밖의 물음이었다.

진운은 부르르 떠는 철목의 입술을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 청년은 누구인가? 그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그를 상기시키는가? 무엇때문에, 어째서? ... 하면서도 그는 《아오.》하고 대답해버렸다.

청년은 숨가빠 다우쳐물었다.

《그가... 그 사람이 전쟁때...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에 말입니다. 잘못 살았다는것이 사실입니까?》

진운은 미간을 찌프렸다. 그는 그 일을 상기하기가 싫었다.

《그건 왜 묻소?》

《전...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싶습니다.》 청년은 고집스레 되물었다.

두사람은 서로 말없이 쳐다보았다. 마치 서로의 얼굴에 모든것이 씌여있기라도 하듯이...

진운은 청년에게 다시 조용히 물었다.

《난 동무에게 왜 그걸 알자는가를 물었소.》

《...》

두사람의 착잡한 시선은 다시 허공에서 부딪쳤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오뇌에 젖은 청년의 눈길이 통나무를 쪼개여 얼추 대패질해 조립해놓은 책상우에 떨어졌다.

《전 땅크병이었습니다. 포천강전투에서 저의 땅크는 불타버렸습니다. ... 정신을 차리고보니 제가 한 간호원의 등에 업혀 전투장을 빠져나오고있었습니다. 간호원의 옷과 머리는 불타는 땅크에서 질 업어내오느라고 다 그슬려버렸더군요. 그 간호원이 바로 마인옥동무입니다. 그 사람의 딸인...저의 몸에는 지금 마인옥동무의 피가 흐르고있습니다.》

우린 그후 적후부대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승리하고 인옥동무의 집으로 가자고 약속했지요... 물론 살아남으면 말입니다.》

청년은 얼굴을 힘껏 문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이 강변길을 걸으며... 후방에서 잘 싸운... 전사의 아버지가 기다리고있으리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진운은 눈길을 떨구었다. 얼굴이 해쓱해지고 오뇌에 젖어 떠는 그 모습을 마주볼수가 없었다.

그들이 어떤 운명의 길을 걸어왔는지,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찢터올랐는지 그는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다.

그러니 인옥이가 돌아왔구나. 우리 혜영이와 둘이서 늘 노래를 불렀지...

그는 멀리 깜빡이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웃는듯도 하고 가냘프게 떨고있는듯도 하였다.

마영수, 마인옥, 진운이가 어찌 그들을 잊겠는가.

그는 연풍호반의 한마을에서 영수와 이웃으로 살았었다. 진운은 언제사업소의 한 세포위원장이였고 영수는 재능있는 설계기사였다.

두 집의 아낙네들은 새벽녘이면 우물가에 마주 서서 살림걱정을 하기도 했고 몰라보게 숙성해가는 혜영이와 인옥이의 미래를 두고 다심한 마음으로 걱정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였다.

그 애들 둘은 사업소의 씨클무대에서 늘 함께 노래를 불렀고 들길도 함께 걸었었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그애들의 청아한 목소리가 들리는듯싶다.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빠꾸기 빠꾸빠꾸
아 장군님 주신 땅...

평화롭던 그 시기에는 모든것이 행복스러웠고 따뜻한 즐거움속에 잠겨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많은것을 변화시켰다. 두 집 아낙네들의 살림걱정도, 딸들의 운명도...

인옥이와 함께 무대에 서있던 진운의 딸 진혜

영은 지금 이 세상에 없다. 조국을 위해 순직한 그애의 고귀한 피는 고향의 이름없는 골짜기에 뿌려졌다.

그러나 마영수는... 마영수는 자기 생활에서 잊을수 없는 치욕을 남겨놓았고 진운의 가슴에 아픈상처를 새겨놓았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끝나고 마영수가 마을에서 사라진후 진운은 전선에 있는 인옥이한테서 두번 편지를 받았다.

하나는 《그리운 혜영이에게》였고 다른 하나는 《존경하는 세포위원장아저씨에게》였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무엇때문에 알리겠는가? 전쟁에는 그럴 말고도 얼마나 가슴아픈 일들이 많은가. 그저 군세게 끝까지 싸우는것만이 필요한 때였다.

또 진운이로서는 내놓고 말하지 않은 속대사도 있었다. 엄혹한 시련의 시기이니만큼 가슴아픈 희생이 없을수는 없는것이다. 그래서 혜영이도 그 애젊은 나이에 먼저 가지 않았는가. 혹 적탄에 맞아 쓰러지는 경우에도 자기가 지켜싸운 고향의 푸른 언덕과 그 언덕에서 이기고 돌아오라 바래주던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추억하며 눈을 감게 하자는것이였다. 그것마저 어떻게 빼앗는단 말인가?

허나 그애는 끝끝내 돌아왔다. 돌아오자 가슴에 타격을 받았을것이다. 마영수는 딸앞에 한없는 고통과 죄스러움을 안고 허물처럼 서있었을것이고...

진운은 슬픔으로 하여 돌처럼 굳어지고 얼굴이 까매졌을 인옥이를 생각하자 가슴이 저려났다.

《그래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있소?》

《여기에 있습니다. 청계동골안에...》

생활이란 얼마나 공교로운가. 전쟁때 원한품고 헤어진 그들이 6년세월이 지난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것도 사연많은 두 젊은이의 사랑때문에...

청년은 괴롭게 되물었다.

《당위원장동지, 진실을 말씀해주십시오. 그가 정말 적들에게... 리용되었습니까?》

진운은 천천히 눈길을 쳐들었다. 좁아지고 충혈된 청년의 눈이 뚫어지게 마주보고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인옥이를 자기자신처럼 믿고 있는 이 청년에게 과연 무엇이라 해야 한단 말인가?

《그건 오해요.》

그렇게 말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때문에... 어차피 알게 될 일이 아닌가. 이사람은 지금 진실을 바라보고있다. 진실, 그렇다. 진실만이 그들의 사랑을 지켜줄수가 있는것이다.

《그가... 적들의 강요를 이겨내지 못한것은 사실이였소.》

철목의 어깨가 알릴듯말듯 떨렸다.

침묵, 고통스런 침묵이였다. 다음 긴 한숨과도 같은 소리. 《사실이였군요.》

철목은 머리를 싸쥐고 이윽도록 그앞에 앉아있었다. 또다시 한순간의 침묵이 흐른뒤에야 그는 타는듯한 눈길을 쳐들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수 있습니까? 딸은 전선에서 피흘리며 싸우고있는데 아버지란건...》

그는 《변절자》라고 말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렇게 꼬집어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명백한 문제였던것이다.

《동문 당원이겠지?》

《네.》

《그렇다면 똑똑히 알아두오. 당은 이미 그의 죄를 용서했소.》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인옥동문 떠나갔습니다. 전 그동무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는지 짐작합니다. 결국한 녀성이였지요. 참을수 없었을겁니다.》

가다니? 어데로... 진운은 긴장해서 되물었다.

《어데로 갔단말이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편지만 남겨놓고...》

철목은 침통하게 말하며 그때까지 손에 움켜쥐고있던 종이장을 내놓았다.

진운은 창백해진 청년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종이장을 펼쳤다.

이 한장의 종이장우에 두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있는건가. 두 젊은이의 눈물이 얼마나 습배였는지... 얼룩덜룩했다.

《사랑하는 철목동무, 이렇게 떠나는 절 용서하세요. 가까운사람하나 없는 동무를 여기까지 데리고와서 홀로 두고 떠나다니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군요. 허나 동무를 위해서도 가야 할 길이기에 떠납니다.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피로써라도 씻을수만 있다면... 모든 사연은 여기 당위원장아저씨에게서 알아보세요.》

철목동무, 포성이 울던 전선의 그밤이 그리워요. 그밤에 우린 약속했지요. 꼭 이기고 돌아가 버림받은 땅에 물을 주자구요. 우리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그렇게 허위단심 달려온 길이 여기서 끝날줄이야... 부디 행복하세요. 동무에게만은 불행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아, 철목동무...》

못다한 처녀의 말은 몇점의 눈물자욱으로 남았다.

마영수를 생각할 때마다 굳어지군하던 진운의 마음도 찌르르 젖어들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렇게 떠날 길이면 오긴 왜 왔단 말입니까? 예까지 와가지고...》

철목의 눈에서는 눈물이 번쩍였다.

진운은 묵묵히 앉아있었다.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생각은 더욱더 깊어졌다.

저 청년은 지금 묻고있다. 당위원장동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동지야 당일군이 아닙니까?

그렇다. 그는 당일군이였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더한단 말인가? 인옥이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를 만나서는 모든것이 랑설이라고... 아니면 그런 때에는 인간이면 그럴 수도 있으니 인간으로 리해해야 한다고...

아니다! 그는 그렇게 말할수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어느새 일어나 걷고있었다. 담배연기가 그의 뒤에서 부드러운 명주필처럼 감겨돌았다.

사람들은 생활에서 많은것을 용서하고 또 많은것을 리해하며 좋아간다. 그러나 조국을 배반한 죄만은... 생활에서 용서할것도 리해할것도 따로 있는법이다. 그래서 인옥이도 철목이앞에 한없는 죄스러움을 안고 떠나갔을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이것은 비단 마영수의 가정 하나에 관한 문제만이 아닐것이다. 여기 신계땅에 모여들고있는 만여명의 사람들중 어느 누가 전쟁의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집을 잃고 가까운 사람을 잃고... 생활의 자옥에 치옥의 상처를 깊숙이 남긴사람들도 적지 않다. 피뢰군살이를 거부하고 인민군대로 의거하여온 의롭고 용감한 전사들도 치옥스러운 국군살이를 상기시킨다면 얼굴을 붉힐것이다.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 목수, 도거리군... 형형색색의 그 사람들의 가슴에는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가 깊숙이 남아있다.

그는 방안을 거닐었다. 매 걸음걸음 생각하며...

멀리 불빛들이 깜빡인다. 그것이 외딴집 창문에서 흘러나오는것인지, 아니면 이동용천막에서 새어나오는것인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그 불빛 밑에는 사람들이 있을것이다. 그들은 이 시각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갈망할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만사가 매일반일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도 좋은 일을 찾아서 떠나가기도 하고 모여들기도 하는것이 아닌가?

중요한것은, 그들모두에게 귀중한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며 래일은 더 귀중하다는것을 깨닫게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진운은 어깨가 묵직하여졌다. 철목은 이 반시간의 담화로써 자기의 모든 짐을 진운이에게 넘겨지워버렸다. 허나 여기서 그가 아니고 또 누가 그짐을 받아지겠는가?

메마른 땅은 물을 기다렸다. 사람들은 참다운 삶을 갈망하고...

진운은 마침내 돌아섰다. 그는 포박포박 그루를 박아 말했다.

《철목동무, 인옥인 꼭 돌아올거요. 난 그렇게 믿소. 지금 중요한것은 나나 동무나 마영수동무

가 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것이요. 그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값있는 삶을 바치도록... 그러면 인옥이는 돌아올거요.》

멀리 불빛들이 깜박이였다. 그것들은 웃는듯도 하고 우는듯도 하였다.

진운은 깊은 숨을 내쉬였다. 그 불빛밑에 이밤도 잠못들고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줄수 있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가? 푸르스름한 밤이였다.

(2)

리무진지배인은 새벽녘에야 돌아왔다.

그는 전처럼 문을 벌컥 열었으나 떠들지는 않고 그저 무거운 안색으로 걸어들어왔다. 피곤한듯 의자에 몸을 깊숙이 실었다.

《위원장동무, 이거 야단났소. 가까운곳엔 원천이 없구만. 이젠 아무래도 결정을 지어야 할가보우.》

진운은 그의 앞에 고뿌를 가져다놓고 말없이 물을 따랐다. 물방울들은 기묘하게 넘어날듯넘어 날듯하면서도 넘어나지는 않았다.

《내 생각엔 찾을것 같은데요.》

리무진은 몸을 반쯤 일으켰다.

《아니?... 무슨 방도가 생겼소?》

진운은 의미있게 웃었다.

《그거야 나보다 지배인동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모래언제 말입니다.》

《모래언제?...》

지배인은 웬일인지 긴장한 눈길로 진운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실망한듯 중얼거렸다.

《기어코 알아냈구려.》

《아니, 그럼 나한테 숨기려고 했습니까?》

무진지배인은 웃고만 있는 당위원장을 점도록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였다.

《숨기고싶었겠소. 공연히 위원장동무의 가슴만 아프게 할것 같아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걸 설계한 사람은... 마영수요.》

《...?...》

《그 사람이 위원장동무의 가슴에 얼마나 아픈 상처를 남겼소. 난 지금도 잊을수 없소. 전동기를 그러안고 숨진 혜영이를 말이요... 그때 마영수는...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는 나보다 위원장동무가 더 잘 알지 않소.》

혜영이... 진운의 가슴은 예린 칼로 뚫 곳는듯이 아팠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넘쳐날듯 넘쳐날듯하면서도 넘쳐나지 않는 물고뿌만 바라보았다. 고향의 푸른 하늘을 쳐다보던 그애의 눈길도 저렇게 맑았지.

《아버지. 아파요.》 하던 그애의 목소리가 금시

들려오는듯... 진운은 눈을 감았다. 눈이 쓰렸다.
어데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무진지배인뿐아
니라 철목이도 물었다. 어데서 무엇을 했는가?
...

그는 이런 노래구절을 알고있었다.

추억은 안개런가 불길이런가
추억은 아마도 머나먼 메아리...

추억이란 얼마나 야릇한것인가. 그것은 사람을
때로는 송엄한 감정으로, 때로는 분노의 감정으
로 이끌어간다. 산 사람은 살아있는동안 그것을
잊지못하는것이다. 그는 그 머나먼 메아리에 조
용히 귀를 기울였다.

세월을 거슬러 1950년 가을, 그때 진운은 철봉
산의 이름없는 골짜기에서 마영수가 돌아오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관개건설장의 설계도들을 여기
까지 날라온 다음 영수는 앉고있는 안해를 피신
시키고 오겠다면서 마을로 내려갔다.

진운은 혼자서 설비들과 도면들을 깐깐히 검사
하고 파묻었다. 그러나 일을 다 끝낼 때까지도
영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나절이 지나갔다. 그는 곧 후회하기 시작했
다.

정신없지. 이런판에 마을로 보내다니. 그런데
이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사이면 몇번왔
다갔을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이 혹시?...
마을쪽에서 먼 총성이 들려왔다. 진운은 긴장
해졌다. 그는 구식보총에 장탄을 해가지고 마을
쪽으로 달려갔다. 거기엔 이미 미제침략군이 들
어와있었다.

마영수는 어떻게 되였는가?
진운은 타는듯한 가슴을 안고 썰녜까지 동구밖
에 엎드려있었다. 그러나 영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진운은 철봉산에 들어와서야 모든것을 알게 되
였다. 마영수는 앓는 안해를 구원하느라 그냥 집
에 남아있다가 적에게 잡혀갔던것이다.

불길한 소식들이 려이어 날아들었다. 마영수가
적에게 굴복당하여 언제의 설계도를 그려주었다
고 한다. 적들이 일부 설비들은 파내었다. 애국자
들이 잡혀들어가고있다.

진운은 당조직으로부터 마영수를 적에게 체포
되게 한것으로 하여 엄격한 추궁과 책벌을 받았
다.

그는 가슴을 쳤다. 그런놈을 믿다니...
곧 감금당한 애국자들과 언제와 설비를 구원하
기 위한 전투가 조직되었다.

이 전투에서 진운은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
그애는 보총을 틀어쥔채 자기가 지켜낸 전동기
에 피호르는 가슴을 짝 대고 엎드려있었다.

《아프냐?》
그애는 보총을 틀어쥔채 자기가 지켜낸 전동기
에 피호르는 가슴을 짝 대고 엎드려있었다.

《아프냐?》

진운이와 무진이가 달려가 안아일으켰을 때 혜
영이는 창백한 얼굴에 애써 웃음을 그리었다.

《아파요 아버지... 우리가 이겼지요?》

《그래 이겼다.》

그애는 한팔로 아버지의 목을 꼭 그러안고 한
손으로는 무진이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물이 보고싶어요. 여기에 물이 차면
장군님께서 오신다고 했지요 ?》

무진의 눈에서 떨어진 굵다란 눈물방울이 그애
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래, 장군님께서 오시면 네가 꽃다발을 드리
고...》

《아저씨, 땅에 물을 주자요... 장군님께서 오시
면... 오시면...》

그애는 백옥같은 얼굴에 웃음을 짓고 고향의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그렇게 잤다. 아, 혜영아!
무진은 땅을 쳤다.

그때 그는 건잡을수 없는 분노를 안고 마영수
의 집으로 달려갔다. 아직도 여기저기서 총성이
들려오는 마을 한복판을 바람같이 꺾지르며...

진운이 딸애를 안고 그의 뒤를 쫓아갔을 때는
벌써 무진이가 마영수의 가슴에 총구를 대고 서
있었다.

영수의 눈길은 공허하게 허둥거렸다.

《직장장동무, 난... 난 조국을 배반하지 않았소.
그놈들이 언제를 보호해야 한다기에... 하도 강박
해서... 설계도를 그려주었을뿐이요 난... 난...》

《이 변절자.》

무진은 천천히 총구를 쳐들었다.

머리를 물어헤친 영수의 안해가 진운의 앞으로
달려나왔다.

《아주버니, 정말이에요. 저이는 설비 있는곳을
대주지 않았어요. 날 죽이겠다고 해서 도면만 그
렸어요. 믿어줘요. 아주버니...》

울음을 터뜨리며 진운의 팔에 매달리려던 영수
의 안해는 그때까지 진운에게 안겨있는 피투성이가
된 혜영이를 보자 악-소리를 치며 주저앉았다.

진운은 딸애의 시신을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천
천히 영수의 앞으로 걸어갔다.

《마영수.》

《난 아니요. 위원장동무, 난 아니요...》

마영수는 타다남은 나무등걸같았다.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마영수와 무진의 사
이에 서있던 진운은 하나 둘 모여온 마을사람들
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장군님께서 계시고 우리 당이 있는
한 우리는 꼭 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묻
겠습니다. 조국이 시련을 겪고있을 때 당신들은
어데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기다렸는가를 말
입니다.》

그렇다. 그것은 꼭 물어야 할 말이였고 각자는

그 엄숙한 물음앞에서 랑심적으로 대답해야 했다.

그렇게 묻는 날이 왔다. 마영수는 그때도 그저 공허한 눈길로 마주보며 넘볼처럼 한마디 말만 곱씹을뿐이었다.

《난 설비를 넘겨주지 않았소. 난 아니요. 난… 난…》

난…》

당은 그 말을 믿었다. 그렇다면 적들은 어떻게 설비들을 찾아내었는가? 그것은 진운에게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다…

《난 그래서 기각시켰소. 세상에 모래로 언제를 쌓았다는 레는 없지 않소. 사람이라도 믿을만했으면 협의라도 붙여보는건데…》

진운은 힘들게 눈길을 들었다.

《날 생각하는 지배인동무의 마음은 알만합니다. 그러나 협의는 해보아야 할걸 그랬습니다.

난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닌 마영수가 설계했다는것이 기쁘군요. 그건…그래도 그 사람의 가슴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쟁때는…》

리무진은 진운의 초연한 모습을 일별하며 말을 끊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적들이 파낸 설비는 그가 모르는 장소에 은폐시킨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는 그려주지 않았소?》

《그랬지요. 그러나 자기가 설계한 언제를 폭파하라고 설계도를 그려줄 설계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저 적들의 강요를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위원장동문 그를 믿자는거요? 그 모래언제도?》

《모래언제의 기술적문제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옥이가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집을 떠났지요. 그애에게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

리무진지배인은 피로한듯 얼굴만 문질렀다.

《지배인동무, 결심하십시오. 내 생각엔 그 설계를 검토에 붙여보고 마영수를 설계실로 조동시키는것이 좋을것 같군요.》

《음…》

무진은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조동시키고 토의는 해봅시다. 그러나 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안될거요, 모래로?… 그것도 그 사람이… 좌우간 내가 만나보겠소.》

진운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배인동문 좀 쉬어야겠습니다. 마동무는 내가 만나보지요.》

리무진은 요 며칠새 몹시 수척해진 당위원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참, 위원장동무두… 그 사람일에 그렇게 마음을 쓸진 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실을 나선 진운은 청계동으로 향했다.

누구인가 산자드락에 군데군데 투겨놓은 서덜발을 지나 가파로운 둔덕을 올라서자 넓지는 않으나 아늑한 분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벽계수가 고요히 흐르는 골짜기안에서 진운은 어렵지 않게 마영수의 집을 찾아내었다.

방문은 열려있는데 마영수는 어데 간지 없었다.

진운은 방안을 기웃해보았다. 어둡시그레한 방안에 하나가득 종이장들이 널려있었다. 무엇일까?

그는 한몽테기 잘되는 종이장들과 도면들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토방에 걸터앉아 맨처음 설계도를 펼쳤다. 모래언제였다. 그다음 종이장들에는 알수 없는 수학기식들이 빼곡이 적여있었다.

모래언제, 모래언제라… 진운의 가슴은 서서히 높뛰었다. 얼마나 기발한 착상인가. 그리고 여기에 한 인간의 성실한 땀이 얼마나 습배였는가.

그러나… 복잡한 수학기식을 적은 종이장우에 머리를 젖던 리무진지배인의 얼굴이 우렷이 떠올랐다.

《안될거요, 모래로… 그것도 그 사람이…》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그는 악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영수만은 믿지 못한다. 혜영의 시신앞에서 그가 얼마나 절통히 피눈물을 흘렸던가. 그러니 어떻게 믿을수 있겠는가?

그러면 종이장우에 마영수의 얼굴이 겹쳐진다.

두사람은 서로 각이한 눈길과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당위원장동무, 믿어주십시오.》 그 눈길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있었다.

《아니 못믿겠소.》 리무진은 말하였다.

진운은 다시 종이장들을 한장한장 뒤지었다. 굵고 지우고, 다시 썼다가는 재고…

그는 거기에서 당이 아파하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모대긴 한 인간의 성실한 노력을 보았다.

아직은 하나의 물방울같은 그 애국의 넋을 키워주고 지켜주면 거창한 호수가 될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 마영수의 참다운 삶의 길은 거기에 있다.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진운은 눈길을 쳐들었다. 마영수가 앞에 서있었다.

굳어진 영수의 손에서 도면이 두르르 굴러내렸다.

《아, 영수동무.》

《…》

영수의 눈길은 초점을 잃고 허둥거렸다. 어찌 알았으랴. 진운이와 이런 마당에서 이렇게 마주설줄…

진운은 너그럽게 웃었다.
 《왜 그리 놀라오. 난 여기 못을 사람이요?》
 마영수의 입이 녹슨 쇠문짝을 잡아제길 때처럼 힘들게 열렸다.
 《당위원장동지…》
 《자-여기와 앉소. 어떻게 지내는가 보고싶어서 왔소.》
 《…》
 《그래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있소?》
 《며칠전에… 운반직장에 토공으로… 오셨다는 이야길 듣고도… 인옥이가 만나러 가겠다는걸 제가 말렸습시다.》
 《철목동무한테서 이야길 들었소.》
 마영수의 눈은 또다시 허둥거렸다. 진운은 위축될대로 위축된 그의 마음을 이해하였다. 그는 마영수를 억지로 끌어다 앉혔다. 그리고는 다정히 물었다.
 《그사이 어떻게 지내왔소? 대충 듣기는 했지만.》
 《거기를 떠난후… 신계읍에서 폭격에 처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눌러앉았습니다. 작년에 고향에 갔댔습시다. 내가 설계한 언제가 보고싶더군요. 혜영이의 묘도 찾아보고…아까운 사람들이 죽고 나같은놈이 살아서…》
 그는 떠듬떠듬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진운은 지난해 추석때 고향에 들러온 무진지배인이 하던 말이 불현듯 생각났다.
 《혜영이한테 들렸댔소. 누가 벌써 묘소를 정리하고 들꽃을 가득 가져다놓았더군.》…
 그는 눈길을 쳐들었다.
 《마동무, 누구도 동무에게 과거를 묻지 않소. 지나간 일은 잊어버립시다. 땃땃이 사시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옥이와 철목이를 위해서도 그렇소. 해방후 우리가 평남관계를 시작했을 때 마동무가 얼마나 큰일을 했소.》
 마영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었다.
 《당위원장동지, 그뻔 모두가 밀어주어서…》
 《지금도 당은 동무를 믿소. 참… 이 모래언제 말اي요. 주인도 없는데 내가 좀 뒤져보았소. 가능할가?》
 수심에 차있던 마영수의 눈이 반짝이었다.
 《네, 지수백만 잘한다면 휴먼제보다 오히려 나으리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아직…》
 《음…》
 진운은 종이장들을 모두어 간중그러놓고 일어섰다.
 《가능하단 말이지… 되기만 하면 그건 정말 막대한 리익이요. 마동무, 정말 좋은 생각을 해냈소.
 정말 좋은 생각이요. 한번 대답하게 해봅시다.》
 마영수는 엉거주춤히 따라 일어섰다.
 《기각되었다고 하기에 난…》

《래일아침부터 설계실에 나오시오. 지배인동무와는 토론이 있었소. 설계를 완성하고 국가적인 협의에 제출합시다.》

《네? …제가요?》

《허허, 왜 그러오. 힘껏 해보시오. 모두가 동무를 도와 나설거요. 그리고 집을 좀 거두시오. 몸도 거두고…이제 아버지가 큰 일을 맡은줄 알면 인옥이도 돌아올거요. 그러면 보란듯이 잔치를 차립시다. 이 꼴짜기에 웃음이 차넘치면 나도 더없이 기쁘겠소.》

《위원장동지.》

마영수의 여윈 볼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3)

언제부터였는지… 진운은 책상 한모서리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꼼짝않고 앉아있었다.

그도 이런 일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것은 아니었다. 마영수에게 설계를 맡겨주며 이제 많은 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고 난관도 있을것이라는것을 예상하였었다. 그저 영수가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보다 언제를 먼저 생각하기만을 진심으로 바랐다.

그런데 오늘 누구인가가 그에게 모래로 언제를 쌓았다가 무너지는 날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고 물었다.

진운은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구려어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물음은 언제나 제기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평범한 물음은 마영수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언제가 설사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자그마한 사고라도 생긴다면…

마영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다보고 기약할수없는 앞길을 내다보았다. 그저 조용히 살걸, 그의 견고치 못한 신념은 또다시 뒤흔들렸다.

저녁에 무진지배인으로부터 마영수가 설계를 포기했다는 말을 들은 진운은 그저 말없이 책상만 번지였다.

그동안 당위원회의 결정대로 강변에 모래언제의 모형을 만들어놓고 수압시험을 하느라고 노상 거기에 붙어살다싶이한 리무진은 쓰겁다는듯 입맛만 다시고있다가 침울한 진운의 안색을 보자 도리어 위로하려들었다.

《너무 마음쓰지 마오. 위원장동무. 마영수하나 없다고 일이 안되겠소.》

《그럼 그 사람은… ?》

《그 사람은 아마 우리가 믿을만한 사람이 못되는가 보오.》

믿을만한 사람이 못된다?… 그럼 그때 그 종이장들은? …쓰고 지우고 켜다가는 다시 쓰고… 그

것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렇게도 숨쉴게 자기를 기만할수 있을까?

아니다! 그 종이장들은 그때 진운에게 말했다.

믿어주시오. 나도 애국의 녀를 간직한 공화국의 한 공민이요. 그렇다. 진운은 분명 그렇게 읽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애써 믿고 지켜주려 했는데 그렇게 포기한단 말인가.

진운은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았다. 피곤하였다. 이 며칠새 눈 한번 제대로 붙여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불현듯 갈라들었다. 그는 무거운 머리를 한손으로 피었다. 자리에 눕고싶었다. 눈시울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가 이래서야 안되지. 그는 관자노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짚 눌렀다놓았다.

입술을 짹 깨물고있던 사나이의 얼굴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철목이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토막토막 끊기던 그의 말소리가 귀전을 쳤다.

《인옥일... 만났습니다. 위원장동지 말씀대로 사리원복구건설장에 가 있더군요. 우리는 정방산 기슭에서 만났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침묵을 지키더니 돌아가자는 저의 말에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철목동무, 용서하세요. 동무의 가슴에 아픈 상처만 남긴 이 녀자를 잊어주세요.>

저는 그 녀자를 잊을수 없습니다. 어떻게 잊는단말입니까? 치미는 본격을 참고 말했지요.

<그렇게 험사리 잇고 버리고하는것이 인간이라면 동무는 무엇때문에 날 엄혹한 그순간에 자기의 피로 살려냈소. 그리고 우린 그 먼길을 무엇때문에 불길을 헤치고 달려왔단 말이요.>

그 녀자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전 인옥동무 위로했습니다.

<모든것은 지나가버린 일이요. 인옥이, 아버지의 파오에 대해서도 모든것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달라질수 있는거요. 당은 이미 아버지를 용서했소... 돌아갑시다.>

그 동문 한참만에야 짹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아닙니까. 오직 자기의 깨끗한 피로만 씻어야 하는겁니다. 그건... 제가 아버지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절 찾지 말아주세요.>

그 녀자의 얼굴에는 빙글같이 차거운, 범접할수없는 아름다움이 서려있었습니다.

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녀자의 말이 옳지 않은가고...》

그사이 여섯군데공사장 당조직을 발동하여 겨우 인옥이 있는곳을 찾아내고 철목이를 보냈던 진운은 실망하였다. 더우기는 그의 마지막말이 가슴에 걸렸었다.

《동무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요?》

그것은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진운은 방안을 휘둘러보았다.

보름전, 이 방에서 자신은 뭐라고 말했던가.

그때 이 문제를 토의하는 당위원회에서 진운은 이렇게 말했다.

《마영수동무와 같이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본의아니게 적들에게 리용당한 사람들은 불과 몇이 안되지만 그들도 다 당의 품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운명을 맡아주고 삶의 보람을 안겨줄 품은 우리 당밖에 없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조직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장내는 조용하였다. 물을 뿌린듯...

《동무들, 우리는 응당 그들의 가슴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에 한몫 바치려는 투철한 신념을 심어주어야 하며 그들이 그길에서 참된 삶을 빛내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다음 진운이 가결을 물었을 때 백프로가 마영수에게 중심설계를 맡기자고 지지하였다.

그들은 모두 로동당원들이었던것이다.

그래서 리무진지배인도 이 열흘동안 수압시험장에서 자기가 그렇게도 경멸하던 마영수를 도와왔다. 그러니 그의 환멸이 얼마나 크겠는가.

진운은 창가에 뒤집을 쥐고 돌아서있는 지배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지배인동무, 그를 다시 만나봅시다.》

무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진운의 세세한 손동작과 눈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듯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또... ?!》

《네.》

리무진은 두뼉두뼉 걸어 진운의 옆에 와 주저앉았다. 그는 자기의 두툼한 손바닥을 진운의 손 위에 얹었다.

《당위원장동무, 우린 오래동안 함께 일해왔소. 이제 정말 잔등을 갈겨달라면 신통히도 가려운데를 때릴 정도가 됐소. 그런데 난 이번 일만은 위원장동무를 리해할수가 없소. 글썽 무엇때문에 그사람일에 그렇게도 마음을 쓰오. 혜영이가 어떻게갔소. 전쟁때도 위원장동문 그 사람을 믿고 마을로 내려보냈다가 어찌됐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일이 어찌될지 알겠소. 난 그게 걱정이요.》

진운은 그의 손을 짹 잡았다.

《내가 왜 지배인동무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진운이외에 또 누가 진운인가고 묻는다면 그건 지배인동무지요. 그러나 지금은 지배인동무나 나나 개인감정을 생각할 때가 아니지요.

땅이 물을 기다리는것 못지않게 그들도 웃음꽃 피는 생활을 갈망합니다.

지배인동무, 그 동문 지금 기술적확신을 가지고도 과거사를 생각하면서 차후의 실패를 두려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저 그를 믿고 동정이나 해주었지 채찍질은 못했군요.》

리무진지배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운은 움쩍 일어섰다.

《지배인동무. 수압시험은 계속합시다.》

《글쎄, 그게 될수만 있다면 제일먼저 춤을 출건 내가 아니겠소.》

진운은 애써 웃었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마영수동무는 해낼겁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강변을 향해 걸었다.

마영수는 수압시험장에 없었다. 진운은 파란물이 고인 못앞에 앉았다. 물은 푸르렀다. 그는 사방을 두루 살펴보았다. 마영수는 어디로 갔는가. 마음은 더욱더 무거웠다. 그는 금방 리무진지배인에게 마영수가 꼭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낼 것이라고... 정말 해낼수 있을까? 이런 위구가 또 다시 갈마들었다.

그는 무심히 물속에 손을 잠그었다. 물결이 가볍게 일렁인다. 둥그렇게 퍼져가는 파문속에서 누구인가의 얼굴이 떠올라왔다. 그는 눈을 쏘아봤다. 혜영이었다.

벌써 6년전에 희생된 딸의 모습이 물결우에서 일렁거렸다.

《혜영아!》

그는 가만히 불러보았다.

마음한귀가 찌르르해나며 뒤흔튼 그리움에 가슴이 뢼다.

《아버지 왜 여기 나와 앉아주세요?》

《난 지금 마영수동무를 찾아 나왔다. 그런데 그는 없구나.》

《아버진 그를 믿고 도우려 하시는가요?》

《그래 도우려 한다.》

《아버진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어요?》

《난 그에게서 나라를 위해 애쓰려는 마음을 보았다. 그런데 모두 그를 믿지 않는구나. 인옥이까지도 떠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겁이 나서 마음까지 흐려지고있다. 그래서 너에게 묻고싶구나.》

딸은 그 아름다운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렇다면 영수아저씨를 끝까지 도와주세요. 그래야 인옥이도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애의 얼굴에 그들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아버지.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길이 살아갈 사람들이예요. 나도 그래서 이 땅 한치를 위해 피흘리지 않았는가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까지 그를 버리시면 그의 인생은 그저 그렇게 끝나고말아요. 아버지 힘을 내세요.》

《고맙다. 혜영아!》

《아버지!》

물결이 일렁이었다. 진운은 눈을 똑바로 뜨고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기기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푸른물속에 황혼이 진 쪽빛하늘이 비껴있을뿐... 그러나 그는 말했다.

《혜영아, 네가 흘린 피를 헹궈이 하지 않오마. 네가 피흘려 지켜낸 땅에서 그들이 삶의 보람을 잃고 살아간다면 그땐 너도 그리고 이 땅을 위해 피흘린 선렬들도 정말 한줌의 흙이 되고마는것이 아니겠느냐. 내 기어코 그를 일으켜세우마. 고맙다. 혜영아...》

그는 일어섰다. 마영수는 수압시험장에서 멀리 떨어진 강기슭에서 하염없는 생각에 잠겨 앉아있었다.

《마동무!》

《...》

마영수는 흠칫 놀라며 일어섰다.

그러나 진운을 맞이하는 그의 눈길은 전처럼 그렇게 허둥거리지 않았다.

《어찌된 일이지요?》

영수는 침울하니 대꾸했다.

《위원장동지, 전 이걸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는 수십번나마 그 말을 외워본듯 매우 툭툭하게 순간적으로 말해버리는것이였다.

진운은 말없이 그의 손에서 도면을 받아쥐었다. 어두워오는 때여서 설계도의 구체적인 세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오래동안 그것을 쳐들고있었다.

《힘이 들수있소. 처음해보는 일이니까, 하지만 주저앉아서는 안되오.》

이외로 너그러운 그 말에 영수는 그제야 당황하여 떠들거렸다.

《아니... 당위원장동지 전 못합니다. 그러다 무엇이 잘못되리라도 하면... 전 못하겠습니다. 전 정말...》

그는 못하겠다는 소리만 뉘날하다가 진운의 날카로운 시선이 찌르는듯 마주보자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렇다...?》

《...》

《그러니까 동무는 과학적인 담보가 전혀 없이 이 일을 시작했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면 제 힘껏 돕겠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다른 사람은 할수 있는데 동무는 못하겠단 말이요. 음... 알만하오. 겁이 난단 말이지. 잘못되는 경우 과거사를 꺼들어 죄책을 물을가봐 겁이 난다는거겠지.》

《...》

진운은 영수의 앞을 오락가락 거닐었다.

자갈돌들이 그의 발밑에서 부걱거렸다.

영수는 초조한 기색으로 진운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진운은 입을 열지 않았다.

마영수는 다시 떠듬거렸다.
《당위원장동지, 전 토공으로 땅을 파겠습니다.
저같은놈에겐 그것이…》

《그만하십시오.》
마침내 당위원장이 멎어서며 격하여 소리쳤다.
진운의 가슴에서는 분노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그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땅을 파겠다고…
사람이 떨떨하기란, 이래가지고 무슨 설제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결국 리무진지배인의 말이 옳
지않았는가.

《그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땅을 파면 제대로 팔
것 같소. 그대 당위원회에서 이걸 동무에게 말길
때 그 당원들이 털끝만한 사심이라도 가지고 동
무를 대하던가. 당조직은 오직 이걸 설제한 동무
의 그 마음을 믿었을뿐이요.

내 혼자의 마음갈아서는 동무를 믿고싶지 않지
만 그러나 당은 동무를 믿고있소.

그래 동문 아직 당의 그 믿음을 의심하오?》

《네?》

마영수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진운의 말은
모진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들이찔렀다.

《난 사실…》

《내 말을 막지 마오.》

진운의 눈에서는 섬광같은 빛이 번쩍이었다.
그는 영수앞에 바위처럼 버티고섰다.

《동무는 아마 전쟁때도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
으면 모든것이 달리되었을것이라고 생각하겠지.
공교롭게 안해가 앓고 적이 이 순간에 들이닥쳤
으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지 않소?... 아니 그렇
지 않소. 동무에게는 자기라는 한 인간의 운명보
다 나라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
었던말이요. 어머니를 따르지 않는 자식이 어머
니에게 사랑과 효성을 바칠수는 없는법이요.》

《...》

《그래서 지금도 동무는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줄수 있는 기술적담보를 가지고도 혹시 어떤 실
수로 화가 없겠는가 하는것부터 생각하는거요.》

마영수는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망연히 서있었
다. 조용해진 강기슭에는 물소리만이 단조롭게
들려왔다.

진운은 애써 흥분을 가라앉히며 담배를 피워물
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퍽 가
라앉아있었다.

《마동무, 내가 당위원장이기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지 마오. 이 땅에 태를 묻은 인간이
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
오.

이 땅 한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선렬들이 피를

흘렸소. 그들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난 동무에게
아픈 말이지만 해야할 말을 한거요. 마동무, 우리
그 사람들앞에 부끄럼없이 삽시다. 그들처럼...》

마지막 말을 할 때 당위원장의 목소리는 몹시
갈렸다.

마영수는 돌아섰다. 그는 비칭거리며 강기슭을
걸었다. 한걸음, 두걸음, 세걸음...마침내 주저앉
았다. 그리고는 으깨여져라 머리를 꼭 끌어쥐였
다.

어둠은 짙어가고 강물은 소란스레 주절거리며
흘렀다.

(4)

마영수는 어둡시그레한 방안에 홀로 앉아있었
다.

혜영의 아릿다운 얼굴이 생시런듯 너무나도 방
불히 떠오른다. 백옥같은 그 얼굴에 어려있던 미
소, 그렇게 그애는 갔다. 그러니 웃었지, 웃으면
서 잠든듯 고요히 눈을 감았었지. 아, 나도 그렇
게 웃으면서 죽을수만 있다면... 죽어서도 웃는
인간과 살아서도 고통스레 우는 인간, 지금 살아
있는것은 누구이고 진짜 죽은것은 누구인가?

혜영의 얼굴이 사라지면 그자리에 진운의 근엄
한 얼굴이 떠오른다. 그는 말했다.

《...자기라는 한 인간의 운명보다 조국의 운명
을 먼저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말이요.
어머니를 따르지 않는 자식이 어머니에게 사랑과
효성을 바칠수는 없는법이요.》

그렇다. 그것은 진리이다!

마영수는 고통스레 신음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기가 조국과 인민을 외면했던 그 순간부터 자
기의 삶이 끝났다는것을 아픈 마음으로 깨달았다.
그러나 혜영이는 언제를 지켜 숨진 그 순간부터
영생하는 삶을 얻었다.

그는 자기 삶의 가치가 이 땅과 이 사람들에게
바치는 그 마음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았다.

그래서 그 삶을 이어주려고 진운이 것처럼 애
쓴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나는 어쨌던가. 난 한
푼의 가치도 없는놈이다.

그는 눈을 떴다. 방안은 어둡컴컴했다.

그는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양초에 불을 켰다.

초불이 희미하게 타고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그가 인옥이를 위해 애써 마련한 가장집물들이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캄캄한 밤이
였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우중충한 산발만이 마

당에 그림자를 던지고있었다.

그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까딱않고 서있었다. 아니다! 이렇게 서있을수는 없다. 다시는 수치스럽게 살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누가 뭐라겠으면 하라. 난 진운이가 가자는 그길로 가겠다.

마영수는 껌작을 모로 세워놓고 양초를 있는데로 다 꺼내 불을 달았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도면들을 퍼놓았다.

어디서 걸렸던가? 그렇지. 역시 중심강토가 문제다. 이건 언제의 심장이지. 이 심장에 무엇을 쪼아박는다?

그는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나의 녀를 쏟아붓자.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참다운 삶의 그 녀를... 그는 그리고 계산하고 또 그렸다.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 시간은 흘렀다. 그러나 마영수는 가물거리는 초불아래서 것처럼 어렵게 생각했던 설계의 중심, 바로 지수벽의 력학적 힘을 다 계산해내었다.

마영수는 전철처럼 느껴지는 환희속에 머리를 쳐들었다. 관자노리가 축축했다. 그는 찻잔하고도 텅텅한 땀내를 흐뭇하게 마시었다. 땀냄새가 이렇게도 상쾌하였던가. 땀을 닦던 그의 손이 갑자기 벗어났다. 무슨 소리인가? 분명 발자국소리였는데... 이 새벽에 누가? 잘못되었겠지. 초불들이 휘황히 타고있었다. 아니 분명 발자국소리다. 자박자박...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다가와서는 마당에서 머뭇거린다. 진운이다. 나를 찾아왔구나. 그는 서둘러 일어났다. 발자국소리는 가볍게 마당에서 서성이었다. 아니다. 이건 진운의 발걸음소리가 아니다. 얼마나 약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인가. 누굴까?

그런데 밖에서 나지막한 부르짖음이 터졌다.

《아버지.》

아버지라니?...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문을 벌컥 열었다. 희끄무레한 달빛아래 배낭을 멘 딸애가 서있었다.

《인옥아...》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선 그들의 모습을 푸릿한 달빛만이 비치고있었다.

마영수는 눈을 습벅이며 딸애를 마주보았다.

막상 만나고보니 가슴만 옥죄여들었다.

인옥이는 배낭을 벗어 토방에 놓더니 땀에 젖은 귀밑머리를 조심히 쓸어올리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마영수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며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그는 딸애의 크고 검은 눈동자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무슨 소리냐. 네가 왜 나한테 용서를 비느냐. 용서는 내가 너한테 빌어야 할게 아니냐.

《큰일을 맡은 아버지질 돕지는 못하고 괴롭히기만 해서 죄송해요. 이젠... 아무데도 가지 않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인옥아.》

《아버지 전 다... 알았어요. 어제밤에 진운아저씨가 절 찾아왔더군요.》

마영수는 정수리를 한대 주어맞은 사람처럼 비칠거렸다. 인옥이가 그의 팔을 더욱 꼭 잡았다.

《전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그 아저씨 만나겠어요. 그런데 아저씨 이렇게 말했어요 <지나간 일은 더 생각지 말자. 지금 아버지가 큰일을 맡고 힘이 부처하는데 너까지 괴롭히면 되겠느냐. 가서 아버지질 도와드리자. 당이 있고 우리 당이 키워낸 당원인 네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왜 삶의 보람을 주지 못하겠느냐. 당은 아버지질 믿는다>. 아버지...》

인옥이는 끝내 흐느꼈다. 그애의 구슬같은 눈물이 달빛에 반짝이며 마영수의 손잔등에 떨어졌다.

그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꼭 깨물었다. 아, 진운... 그의 가슴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영수는 문지방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딸의 손을 쓸고 또 쓸며...

《아버지 전 그래서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중요한건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며 그 오늘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어떻게 사는가 하는것이라고 말이에요. 당이 아버지질 믿어주는데야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 믿음에 꼭 보답하자요.》

《후-》

마영수는 딸의 손에 얼굴을 묻으며 마침내 흐느껴 울었다. 울다가 눈물이 흐르는 얼굴을 쳐들었다. 달은 누리를 밝게 비치고 어디선가 밤새가 정답게 울어댔다.

《당위원장동진... 어디계시냐 ?》

《저와 함께 오시다가 수압시험장으로 가셨어요.》

《가자-》

그는 인옥이의 팔을 부여잡고 일어섰다.

그들은 서로 꼭 잡고 소로길을 내려섰다. 달리 다싶이 강변길을 걸었다.

멀리 외등이 반짝이고있었다.

희미한 불빛은 정다웁게 그들을 손짓해 불러준다. 그 불빛은 갈수록 더욱 밝아졌다.

시험장에서 맨먼저 진운위원장이 머리를 쳐들고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뒤를 따라 무진지배인

이 일어선다. 또 한사람. 철목이다. 또 하나 둘…
진운위원장이 성큼성큼 마주오기 시작했다. 희
뽀미 가지여지는 새벽어둠속에 그의 모습이 거인
처럼 안겨온다.

마영수는 저도 모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당위
원장이 마주오고있다. 빨리, 어서 빨리 그의 곁으
로 가자. 저런 사람과 함께라면 불속인들, 물속인
들 꺼리랴. 당위원장이 마주온다. 발부리에서 자
갈들이 뿜겨난다.

달릴수록 정답고 믿음에 찬 그 모습은 더욱더
가까와진다. 더욱더 …

×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숨소리하나
없다. 인옥이(그 녀인은 인옥이었다)는 목메여 말
했다.

《당의 그 손길에 떠받들려 저의 아버지는 공훈
설계가로, 저의 남편은 당일군으로, 저는 영웅으
로 자라났습니다. 사연많은 그 나날에 당은 우리

의 가슴에서 한방울, 한방울 애국의 물방울을 모
아 오늘은 이처럼 거창한 천리 대인공강을 만들
었고 저희들에게 다시는 마르지 않을 삶의 젖줄
기를 주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
다.

<사람이 살면서 버리지 말아야 하는것이 우리
당에 대한 믿음과 의리이다. 이것이 내 인생총화
이다. 애들아, 당은 우리의 생명이다>…》

한철목의 볼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그
러나 그는 그것을 씻을념을 안했다.

안해의 맑은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는 그것
을 의식했다. 안해는 천천히 돌아선다.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일심단결의 대오로, 신
념과 의리로 뭉친 불패의 대오로 육성해오신 두
위인의 영상이 광휘로운 금빛후광에 싸여 눈부시
게 안겨온다.

인옥이는 흐느끼며 허리를 굽힌다. 우렁찬 박
수가 터졌다. 조선로동당! 오, 우리의 생명이어!

어서 창문을 열자

강인철

격한 이 가슴 누르기엔 방안이 좁구나
눈굽을 짙는 안해여 내 붓일랑 좀 가져와다오
마치 저들만이 아는 희소식인듯
행복에 휩싸여 들뛰는 아이들아
어서, 어서 창문을 열자

친애하는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이 아침
길게 들이키는 공기조차 후련하구나
기다리던 환희의 봄시위를 맞은듯
얼지 않은 대동강도 류달리 물결 출렁이누나
거리의 더 밝아진듯 이 땅도 더 커진듯

눈꽃이 앉아 웃는 거리의 가로수는
눈이 시도록 하이얀 은빛을 뿌려올리고
행복이 약속된 래일을 끄당겨 달음치듯
달리던 전차는 경적소리 더 경쾌히 울리누나

바빠 가는 어느 일손을 붙잡고서라도
썸썸은 기쁨 터놓고 속삭이고싶고
낯설은 어느 집 창문애라도
행복을 소리치며 나누고싶어하는 저 사람들…
광장앞에선 방금 꼬마들이
실토리 풀고풀어 창공높이 통일연 띄워올렸구나

애들아,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냐
저기 김일성광장 력사의 사열대를 보는 이 마음
벌써, 벌써 우러러뵈는것만 같아라
전승광장의 원수님모습과 꼭같은
친애하는 최고사령관의 거룩한 그 모습을!

젊은 시절 아버지들이 넘어온 언덕을 굽어보아라
최고사령관을 모시여
언제 한번 패한적 있었더냐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받아
빛나는 금별만이 별처럼 수놓이지 않았느냐

영광넘친 땅 존엄높은 세상이어
저 하늘에 넘치는 령장의 미소를 보며
락동강 로병들은 군복깃을 다시 여며라
충충 통일거리 새 집은 더 높이 솟구치고
필필 비단천은 강물처럼 더 빨리 쏟아져라
일심단결의 행군대오는 봄우뢰를 부르듯
통일년대의 새 광장으로 도도히 급류하노라

더 밝은 거리
더 어엿해진 얼굴들
더 후련해지는 이 공기

파연 무엇으로 환희와 존엄의 이 세계를
봄에 담아 다 읊조릴수 있으랴
푸르른 저 하늘가엔 이미 새겨져있지 않는가
최고사령관 그 이름은 곧
승리라는 말! 백전백승이라는 의미!

걱정없어, 이제라도 저 창문들에
회오리바람이 들여닥쳐도
두렵없어, 그 어떤 남의것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의것은 영원히 우리의것 되리
아, 그래서
우리 집 창문은 언제나 밝게 열려있으리

시조

나의 조국이여!

(우즈베키스탄) 백여진(백 월로리)

백두산
백가지 색을 가진 무지개가 비낀
인민의 성산 백두산에 내 서있다
노을 비낀 천지 아찔한 절벽
네 모습 장엄하기도 하구나 백두산이여

내 너를 시에 담고싶구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감정을 안고
백두산이여! 이내 마음도 내앞에 펼치고싶구나
내 남은 여생을 너를 가슴에 안고 보내련다

민족의 태양의 이름 빛나는 메부리

부드러운 안개도 너를 향해 노래부르고
구름도 네 아름다움앞에 자리를 내놓으며
홀어지누나

하여 나도 이내 심장을 여기에 남기련다
노래에 담아 시에 담아
내 너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자랑하고싶구나

인민의 자랑 백두산이여
잘 있으라 백두산이여
너의 아들은 멀리 있어도
항상 네 가까이 있노라

조선은 하나다

과도는 기슭을 치고
초병들은 초소를 지키고있다
북과 남사이에 평화는 없고
바다마저도 두동강이 났구나

인민의 자랑 《통일의 꽃》을 철창속에 가두고
그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짓밟고있구나
그러나 조선은 싸우고있다
통일을 위하여!

원췌는 장벽뒤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인민의 노래와 환희가 넘치는
사회주의제도를 노려보고있다

그러나 조선은 하나 언어도 하나
사상과 목적도 하나
친구들이여! 자유의 투사들이여 일어나라
행복을 위하여, 친선을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묘향산

묘향산에 대한 전설은 많다
쏟아지는 장엄한 폭포수에 대한 전설들도
웅장한 소나무들은 자기의 아지를 펼쳤다
떨어지는 폭포수 산울림되어 은은히 들려온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산으로 떠났다
아름다운 조국의 산천을 구경하고저
아름다운 묘향산 폭포들을 바라보노라니

왜서인지 심장은 한없이 높편다

나는 너에 대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노래를
부른다
묘향산 너는 마음속에 가깝고 친근하기도 해라
나는 영원히 너를 잊지 않고 추억하리라
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가서도

금강산

잘 있었느냐 금강산아
내 이국땅에 살면서
난생 처음으로 너의 품에 찾아왔구나

너의 아찔한 절벽은 장엄하고
돌틈의 샘물은 맑기도 하구나
신선한 공기 쏟아지는 폭포수

소나무들도 숨소리를 죽이고
새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나가던 길손도 여기서 노을을 맞이한다

산우로는 안개가 유유히 흐르고
내 마음은 기쁘기도 하구나
행복에 겨워 뛴뛰는구나

금강산아 너와 헤어지는 이 시각
나는 바라노라
상봉의 시각, 행복의 순간은 다시 오리라는것을!
나는 가슴속에 깊이깊이 간직하고 떠나가노라

평양

대동강 기슭에 환하고 아름다운 도시
버드나무 가지들은 공원마다에 드리웠네
많은 사람들과 전차들, 버스들이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흘러흐르네

강이 사랑스러워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나는 아침저녁 강기슭을 거닐었네
나에게는 언제나 잊혀지지 않는다 너의 모습
밤 가로등의 불빛, 밝고 맑은 분수들

꿈결에도 자주 생각한다 평양이여

박물관들과 기념비들, 나라의 영웅들을
춤추며 노래부르며 찾는듯싶구나
《왕》들이 사는 소년궁전의 소년소녀들이

우리의 만남은 빨리도 흘러갔고
떠나올적 나는 눈물을 흘렸네
나는 심장으로 말한다 평양이여!
너는 언제나 나의 고향, 조국이라고

(필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따슈겐트주
《우즈베키스탄》 꼴호즈 중학교 교장임)